



유아를 위한

#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유아를 위한

#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제 1 부 이 론 편

I. 자료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7
II. 이론적 배경 .....	12
1. 양성평등교육 .....	12
2.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	17
III. 자료의 구성 및 활용방안 .....	27
1.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책자와 CD-ROM .....	27
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책자와 CD-ROM .....	29
3.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 책자와 CD-ROM .....	32

## 제 2 부   활동 편

Ⅰ.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	35
Ⅱ.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	119
Ⅲ.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 .....	188
관련자료 및 사이트 .....	230
참 고 문 헌 .....	232



# 제 1 부 이론 편

I. 자료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III. 자료의 구성 및 활용방안







## I. 자료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생의 출발부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에 의해 다르게 평가 받고 기대되어진다. 신생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생한 지 24시간 이내의 신생아에게 적합한 형용사를 표현하도록 한 연구에서, 남·여 신생아의 몸무게, 키, 근육 탄력성, 반사능력 등의 신체활동계수가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아는 ‘부드럽고 온화하다’, 남아는 ‘강하고 튼튼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정해숙·양애경·김홍숙, 1995). 이처럼 남·여 신생아에 대해서조차 성인들은 그들의 고정화된 성 관념에 의해 다른 기대를 갖는다.

남·여 신생아의 서로 다른 출발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성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으로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면서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서열화 된다.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남성다운 것은 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여성다운 것은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정해숙, 2001). 성역할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존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횡포이다.

그 동안 이중적 성별구조로 인한 여성 차별과 억압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일찍이 남·여 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미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성별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육기본법, 여성 발전 기본법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양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실제적 노력이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회에 있어서 수치의 차이를 줄이는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





책으로 제시된 양성평등교육을 교육계에서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여성의 교육 접근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만 해석해 왔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교육에의 접근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것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으므로 양성평등교육은 이제 더 이상 논의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면 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버젓이 마련되어 있고 여성의 교육기회는 남성과 비슷한 수치이니 양성평등교육은 이미 실현된 듯 현혹되기 쉽다. 물론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남·여 모두 100%에 가까운 완전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면 여성의 취학률은 60.7%로 남성의 취학률 99.1%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정해숙, 2001).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 단계의 수치차를 접어두고 교육에 있어서 남·여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치더라도 이는 동등하게 주어지는 형식적인 교육기회일 뿐, 가부장제 사회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교육기회는 성차별적 교육이 주어지는 ‘정당화된 통로’가 되어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은폐한다.

교육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의 이념과 목적, 명시적 교육과정, 교사-학생 간 상호 작용, 교육구조와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성별화된 이중적 차별구조가 내재해 있다(조경원, 1999). 즉 동일한 교사에 의해, 동일한 교과과정이 전달된다 해도 현행교육은 사회의 성역할 기대에 따라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이라는 틀에 맞추어 나누고 재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여성과 남성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여성의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형식적, 표면적 차원의 접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으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더 이상 취약집단이지 않도록 이를 위하여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를 ‘성인지 훈련(gender training)’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사회의 성역할 교육과정(gender curriculum)을 타파하고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에의 접근기회 뿐 아니라 학업성취 등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간 격차가 없도록 하



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유아기는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양성평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아는 3세 이전에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획득하고 이후 성 안정성(gender stability)을 인식하여 6, 7세경에 이르면 성 항상성(gender constancy)을 지니게 된다(유희정, 2000). 따라서 이미 생의 초기인 유아기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타고난 성별에 따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도식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비롯한 교육계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초·중등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유아교육 단계에 대한 관심은 그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이재욱, 1999). 이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양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호한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역할 교육 실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곽윤숙, 1986; 유희정, 2000; 최기영, 1987),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방식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가부장적 성별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굳이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유선택활동 시 역할놀이 영역에는 여아들이, 쌓기놀이 영역에는 남아들이 많이 집중되는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있어 기존의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가부장적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성별화 구조가 도처에 잠재되어있는 현 사회실정에서 유아가 양성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을 무시하고, 때로는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아가 생물학적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 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유아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된 성역할로 인하여 남성들 또한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어 삶이 왜곡되어진 측면이 존재하므로 양성평등교육은 남녀를 떠나 인간의 인권 존중, 나아가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사회와 급격히 달라진 현대사회의 산업구조는 여성의 노동력과 사회참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근거하였을 때 양성평등교육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이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냉혹한 경제체제에서의 생존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유아들이 주역이 될 미래사회는 3F, 즉 여성다움(feminin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의 시대라고 예견되어진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현재 남성적 사고가 지배적인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를 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파트너로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유아기부터 양성 평등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화로운 남녀의 협동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한 교육의 실현 없이는 사회정의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의 의식적 실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어떻게 정의되더라도 반드시 포함되는 말은 변화이고 또



한 공통적으로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의 연구는 유아들이 성차별적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아들이 양성 평등한 의식을 고취하여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성차별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유아들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차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관습화 되어있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바로 잡아 올바른 성역할을 습득한다면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양성 평등한 교육이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방법적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개념 및 목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유아기에 성역할이 어떻게 학습되고 발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인적·물적 환경이 유아의 성역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 1. 양성평등교육

#### 가.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목표 및 내용

##### (1)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성(性)은 생물학적 측면의 성(sex)과 사회적인 측면의 성(gender), 두 가지 면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 생물학적 측면의 성(sex)에서 남·여 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반면 사회적 측면의 성(gender)에서 남·여는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가부장적 사회가 존속되어온 과정 속에서 생물학적인 성(sex)의 차이가 사회적인 성(gender)의 차별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 속에서 억압과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양성평등’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필연적이다.

‘양성평등’을 명료하게 정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한다’라는 단순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철학적으로, 또 여성학적으로 양성평등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압축하면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



의 평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희옥, 2002; 민남정, 2001; 장인경, 2002).

'기회의 평등'은 성별과 관계없이 남·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특정성별에 대해 이익 또는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기회에의 평등한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기회에 다가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남성과 여성이 처한 조건을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인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여성은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패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는 보다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한 시도가 철학적으로, 여성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주장되어 왔고, 그 결과 법적·제도적으로 남·여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되어 온 양성평등교육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 차원에 머물러서 양적인 기회균등에 그쳤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양성평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회의 평등' 뿐만 아니라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모두 달성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기회가 남·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한 교육의 조건이 남·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조성되며,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남·여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으로 기존사회의 성역할 교육과정(gender curriculum)을 타파하고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에





의 접근기회 뿐 아니라 학업성취 등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정해숙, 2001). 결국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더 이상 취약집단이지 않도록 이를 위하여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를 ‘성인지 훈련(gender training)’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은 교육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다(교육부, 1999).

첫째, 개성과 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 남·여가 타고난 개성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립적·자주적 정신을 기르고, 그러한 태도를 정립시키고자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스스로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지니고 자립적인 남성, 여성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평등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기쁨으로써 나아가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국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가로막혀 사회진출을 차단당해 온 여성인력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2)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및 내용

양성평등교육의 기본방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평등권 보장의 현실을 객관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과 남녀평등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도록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케 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인간의 귀함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박은혜, 김희진, 박삼근, 김정원(2004)은 양성평등교육의 목표를 인식, 분석, 실천전략의 세 측면에서 선정하였다. 구체적 교육목표는 현대 사회 변화와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 이해, 양성 불평등의 현황 인식 및 원인 분석,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학습 및 실천이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의 경우에는 남녀의 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식하기, 평등한 놀이,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직업에서



의 평등, 성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응능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유희정, 2000). 남녀의 평등함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성에 따른 신체특성을 알고 다른 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들의 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이 속에서의 평등함과 동시에 자주 접하는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직업에서의 평등함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평등한 진로지도로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 나. 양성평등교육의 실현방안

양성평등교육을 실제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rnot(1985)는 교육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지양하는 평등주의적 접근법(equal opportunity approach)과 가부장적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여성주의적 접근법(feminist approach)을 들고 있다. Houston(1985)은 성 중립적 양성평등교육을 주장하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교육영역 내에서 생기는 성별 차이를 제거하는 적극적 교육, 둘째, 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소극적 교육, 그리고 성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을 고려하는 (gender-sensitive) 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김재춘과 왕석순(1999)은 양성평등교육을 ‘양성 평등한 교육’과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자는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성차별적 요소,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양성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을 종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1) 성차를 무시하는 양성평등교육

성차를 무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실재 속에서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여 모두에게 개방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또는 유아교육현장의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남아와 여아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유선택활동 시 남아와 여아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방안이 자연스럽게 시행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남아와 여아가 다양한 놀이에 동일하게 접근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차를 무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은 형식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

## (2) 성차를 제거하는 양성평등교육

기존의 교육현장에 실재하고 있는 성차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남·여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교육적 시도이다. 즉 유아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 중 직·간접적으로 성차를 야기하는 활동을 사전에 제거하여 처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선택활동 시 남아와 여아 간에 불평등한 접근 실태가 나타나는 활동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즉 역할놀이영역에 여아들만 모여든다면 놀이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제거하기 위해 분홍색 부엌소품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교육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유아들이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

## (3) 성차를 고려하는 양성평등교육

성차를 고려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성차를 무시하는 소극적 방법, 성차를 제거하는 극단적 방법이 현재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힘들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성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Martin(1994)은 성이 차이를 만들 때는 성을 고려하고, 차이를 만들지 않을 때는 무시함에 의해 양성평등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자유선택활동 시 남·녀가 동등하게 다양한 놀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아가 많이 모이게 되는 역할놀이 영역에 엄마, 아빠 역할 중심의 소꿉놀이 소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관련된 소품을 제공한다거나, 역할놀이영역을 우체국으로 꾸며 우체국놀이를 위한 소품을 제공한다면 보다 남·여 유아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성평등교육의 실현방안 중 성차를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차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한 성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 가. 유아기 성역할 발달

#### (1) 성역할의 개념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 내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행동과 태도 등의 특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성(性)을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구분하듯이 성역할 또한 남·여의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 구별되는 성역할(sex-role)과 사회·심리적인 근원에 의해 구별되는 성역할(gender-role)로 나눌 수 있다(김완신, 2003; 이윤경·김현수·신화식, 1985). 전자의 성역할이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개념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된 관념에 따라 형성된 일종의 사회적 기대(민남정, 2001)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태도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기대하는 것이다.

인간은 출생 후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적절한 성역할을 기대 받으며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으로 길러지게 된다. 성역할을 지속적으



로 기대 받는 이 과정을 성 유형화(sex-typing)라 하고, 성 유형화를 통하여 각 개인이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함으로서 남·여의 특성을 규정짓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결국 성역할 형성에 있어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영향보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성역할 개념이 성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 아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양성성이란 한 개인 내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결합하여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온 남·여성역할의 합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아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성역할의 표상으로 떠오르고 있다(황지현, 2002).

## (2) 성역할 학습 이론

성역할은 생의 초기단계인 유아기에 형성되어 인간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가 어떻게 성역할을 형성하는지, 즉 성역할을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올바른 성역할 개념 습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역할 학습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온 결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신희정, 2003; 유희정, 2000; 정해숙·양애경·김홍숙, 1995; 최영주, 2001).

첫째, 유아가 타인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한다는 동일시 이론이다.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간을 둔 이 이론은 동일시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아가 자신의 성별과 동일한 부모를 성역할의 모델로 삼아 이를 무의식중에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성역할이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시 이론은 부모 이외의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한다는 사회학습 이론이다. 동일시 이론이 성역할 학습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사회학습 이론은 이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환경 즉 부모, 또래, 지역사회,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가 사회적 환경을 통해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관찰 학습이 일어나거나,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에 의해 성역할이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습 이론은 성역할 형성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재적 환경을 강조하였으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유아의 내적 사고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유아를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아가 외부의 환경적 자극을 스스로의 인지 과정을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성역할을 학습한다는 인지발달 이론이다. 앞서 살펴본 동일시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은 유아의 성역할 학습에 있어 외부적 영향을 주 요인으로 강조한 반면,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유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 형성이 단순히 동일시의 산물이나 사회적 훈련의 결과가 아닌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지적 성취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인지발달 이론은 성역할 형성에 있어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유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넷째, 성역할의 학습 과정에서 유아 각각의 개별적인 도식을 강조하는 도식 이론이다. 도식(schema)이란 개인의 지각을 이끌고 조직해주는 연합망으로 구성된 인지구조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은 정보를 찾거나 정보를 받아들인다. 인지발달 이론이 인지적 과정의 능동적 존재로서 유아를 강조했다면, 도식 이론은 각각의 유아가 정보를 처리하는 모형을 더욱 강조하여 개별 도식에 따른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성역할 학습을 유아의 인지적 과정에 근거한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인지 과정의 핵심 요소인 도식이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자극을 받음으로서 성역할의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성역할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지 발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이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가 성역할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성역할 학습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없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이론들은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성역할 학습에 있어 양성성(androgyny)의 획득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양성성이 성역할 발달의 가장 상위단계라는 것을 주장할 뿐, 양성성 습득의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3) 성역할 발달 과정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별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받으며 자라게 되고,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기대 받으며 성장한다. 성역할은 유아가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성별을 알아가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확고한 성역할 개념이 형성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성역할이 발달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희정, 2000; 이재옥, 1999)

####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획득 시기 : 2-4세

‘성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개념으로서 남·여 중 한 쪽 성별에 속해 있고 다른 쪽 성별에는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유아는 2세경부터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구별하며 자아정체감을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며 이를 통해 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아직 자신의 성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3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자신의 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정확한 성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시기에는 성 유형화(sex-typing)를 통해 성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감이 달라지고, 머리 모양, 옷차림 등으로 성별을 구분해내며, 또한 남·여에 따라 적합한 일을 분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요리, 설거지, 다림질, 세탁 등을 성인 여자의 일로 분류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 유아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세 유아는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적절한 성역할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기대에 보다 충실해지지만, 반면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기대를 별다른 갈등 없이 쉽게 무시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 유아는 외형이 바뀌더라도 성(sex)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 성 안정성(gender stability) 획득 시기 : 5-6세

‘성 안정성’이란 성 정체감이 보다 확고히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획득되면 유아는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의 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5세경이 되면 유아는 성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며 성 안정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성에 대한 선호도가 부각되어 자신과 동일한 성에 대해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한다. 즉 긍정적인 것은 모두 자신의 성과 관련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다른 성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6, 7세가 되면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는데, 이는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성역할이 기대되는지 성역할 범주체제를 완전히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성 안정성이 획득되는 시기의 유아는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를 위배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어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성역할 행동 및 태도를 나타낸다.

### 성 항상성(gender constancy) 획득 시기 : 7-8세

‘성 항상성’이란 겉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개념으로서 타고난 성이 평생 불변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6세를 지나 7세경에 이르면, 유아는 머리모양, 옷차림, 행동이 달라져도 자신은 언제든지 동일한 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는 성 유형화 지식이 성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지식은 이미 탄탄하게 유아의 내면에 자리 잡아 이 시기에는 오히려 성에 따른 정보 범주화의 경향이 급격히 감소한다. 7세부터는 지금까지 형성된 성 역할 개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확고해져가기 시작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성에 따른 범주화 행동 및 태도가 사라지면서 성역할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한다(유희정, 2000)고 보고하고 있다.

#### (4)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유아의 내적·외적 모든 요인들이 성역할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크게 생물학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영주, 2001).

첫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유아의 타고난 성에 의해 달라지는 성역할이다. 생식기의 차이에 의한 신체적 특성들이 이에 속하지만 성역할 개념의 대부분은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타당성으로 성차별적 요소들을 당연히 여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요인이 성역할의 차이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차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





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 요인으로 유아를 둘러싼 타인들, 즉 부모, 형제, 또래, 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부모는 성역할 학습에 대한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성역할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서 Barnett(1981)는 부모의 성역할 신념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진다고 했으며, 하승민(1985)은 이러한 부모의 성역할 관념이 유아의 독립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성 형제만 있는 경우보다 이성 형제가 있는 경우에 성역할 개념이 더욱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2000). 이는 이성 형제가 있는 경우보다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성 유형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적 관계를 넓혀가게 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만나는 또래나 교사에 의해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스스로의 성역할 신념에 대해 반성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 대중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아가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TV의 경우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성차별적인 요소를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확대, 재생산,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 외에도 남아선호사상 등의 사회적 관념들, 직업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들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들이 총체적으로 유아의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요인들이 성역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대략 6세경까지는 부모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 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 집단, 교사, 대중매체 등의 영향력이 커져 간다(우민정, 1995). 영향력의 정도는 각각 다를지라도 유아를 둘러싼 모든 요인들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 및 태도에 통제를 가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성역할 형성에 작용한다.

## 나.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전략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역할 교육 실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곽윤숙, 1986; 최기영 1987; 유희정, 2000), 유아교육기관이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로 반영함으로써 가부장적 성별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 기존의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가부장적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성 차별화 구조가 도처에 잠재되어있는 현 사회실정에서 유아에게 양성평등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을 무시하고, 때로는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수·학습매체, 유아교육과정, 교사, 부모 등 교육환경의 다양한 요소가 각각 양성평등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양성평등교육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실외 환경은 유아의 성역할 개념 형성에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유아에게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환경,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 심미적으로 가치 있는 환경,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구성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나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곳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 시 역할 놀이 영역에는 부엌 소품들이 자주 배치되고, 쌓기 놀이 영역에는 공룡, 동물 등의 소품이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유아들이 사회적인 성역할 기대에 의해 다른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남아와 여아의 놀이 선호도를 다르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학급 유아들의 이름표를 제작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남아들의 경우에는 차가운 색 계열을 사용하고, 여아들의 경우에는 따뜻한 색 계열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환경들이 무의식중에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라 유아의 색 선호도를 다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 구성 시 작은 요소 하나일지라도 양성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세심한 고려, 적극적 노력,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다.





## (2) 유아 교수·학습매체와 양성평등교육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유아가 접하게 되는 교수·학습매체는 유아의 성역할 개념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매체는 해당 활동에 대한 교육 목표만을 고려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 불평등한 요소들이 도처에 내재해 있다. 예를 들면 그림책의 경우 중요한 교육 매체 중 하나로서 유아가 가장 친근하게 접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도서들이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유형화된 성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어 유아의 양성평등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홍숙·양애경·정해숙, 1995; 성정아, 1995; 이운경, 1981). 동화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자인 경우가 많으며, 등장인물들의 경우 남자는 독립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며,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인물로 묘사된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는 부드럽고, 상냥하며, 가사 일을 하는 소극적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양성 평등한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의 그림책을 유아들에게 제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성구진, 1994; 윤혜원, 1990; 이지현, 1984; 홍연애·정옥분, 1993). 따라서 그림책을 비롯한 그 외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를 제작, 활용하는 데 있어 성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유아교육과정과 양성평등교육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있어 가부장적 성 차별 요소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아교육과정은 그러한 비판과 무관한 듯이 인식되어져 왔다. 많은 관계자들은 유아기 교육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 자신하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육활동 중 상당 부분이 교육 목표부터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성 고정관념에 의거한 불평등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해숙·양애경·김홍숙, 1995). 예를 들면, 극놀이의 경우 왕자님 역할은 남아, 공주님 역할은 여아,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역할은 남아, 토끼 역할은 여아가 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역할에 따라 그릇된 성 고정관념을 유아들에게 전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성역할 평등개념



에 기초한 내용으로 극놀이를 포함한 노래, 이야기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강경희, 1999; 강소원, 1999; 심은아, 1997; 염명순 외, 1999; 우민정, 1995)고 보고하였다.

Langenbach(1977)는 성역할 평등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여 유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적인 놀이와 동적인 놀이에 참가하게 하고, 남·여 유아 모두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남·여 모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유아교사와 양성평등교육

교사는 유아에게 의도된 교육과 의도되지 않은 교육의 두 가지 양식으로 성역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가 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교육활동 속에서 다양한 성역할 기대가 유아에게 전달되고, 또한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신의 행동 및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의 성역할 개념 형성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교사가 남아와 여아에게 서로 다른 접근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사가 여아보다 남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조경자, 1988; Brophy & Good, 1970; Irvine, 1986), 역시 여아보다 남아가 교사의 돌봄을 더 많이 받으며, 여아는 교사 옆에 근접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정해숙·양애경·김홍숙, 1995)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성에 따른 교사의 차별적인 행동 및 태도는 학습 경험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곧 남·여 불평등한 성역할 개념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에 관한 신념 및 가치관을 반성적인 태도로 겸허하게 돌이켜 보아야 하며,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 양성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교사 자신이 스스로의 성역할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 (5) 유아의 부모와 양성평등교육

유아교육기관에서 물리적 환경, 교수·학습 매체, 교육과정, 교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고 해도,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아에게 양성평등의식을 길러준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유아의 성역할 형성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자가 바로 부모이며, 따라서 부모의 성역할 의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만 실제로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연숙(1991)의 연구는 어머니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양성성(androgyny)을 지니고 자녀교육에 임할 때, 유아도 양성적 성역할 개념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직접적, 간접적인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성역할 개념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Ⅲ. 자료의 구성 및 활용방안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의 실제편은 1)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3)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교육 활동의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을 검증한 결과를 기초로 본 자료는 크게 책자와 CD-ROM으로 개발되었다.

#### 1.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책자와 CD-ROM

본 자료집에 제시된 총 25개의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은 생활주제중심으로 전개하고, 각 활동을 양성평등 교육내용별, 활동유형별, 수준별 등으로 분류해주어 교사가 유아의 발달적인 개인차와 요구, 관심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Ⅲ-1 참조).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의 생활주제는 교육부 고시 제 6차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고, 양성평등 교육활동의 세부내용은 ㉠ 남·여의 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 평등한 놀이, ㉢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 직업에서의 평등, ㉤ 성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응능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활동유형은 흥미영역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으로 분류하고, 활동수준은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I, II 수준으로 나누었다. 양성평등 교육활동은 세부적으로 활동명(활동수준)과 활동목표, 활동유형, 활동자료, 활동방법, 추후활동, 유의점, 가정과의 연계 순으로 기술하여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유아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활동에 제시된 그림자료, 그림동화자료, 사진자료들은 활동명을 참고하여 CD-ROM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표 III-1〉 교육활동의 생활주제 및 내용 요소별 분석

생활주제	활동명	내용별					활동유형별		수준	
		㉠	㉡	㉢	㉣	㉤	흥미 영역별 활동	대·소 집단 활동	I 수준	II 수준
나와 유치원	1. 인형업고 돌아오기		○	○				○	○	
	2. 모두가 함께 하는 농구놀이		○			○		○		○
	3. 내가 태어났어요.	○						○		○
	4.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				○		○		○
	5. 나는 ○○해요.	○				○	○			○
가족과 이웃	6.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				○	○	
	7. 돼지책			○		○		○		○
	8. 우리 식구			○		○		○		○
	9.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없는 일	○		○	○	○		○		○
	10. 내가 커서 어른 되면				○	○	○		○	
	11.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	○	○			○
계 절	12. 남자색과 여자색이 따로 있나요 ·					○		○		○
	13. 설거지하기		○	○			○		○	
	14. 뜨개질은 재미있어요.		○			○		○		○
건강한 몸과 마음	15. 운동선수 짝짓기	○			○		○		○	
	16. 내가 좋아하는 운동		○			○	○			○
	17. 명화 - 모자상 외 감상하기			○		○		○		○
	18. 자장이 감상하고 표현하기			○		○		○		○
동 물	19. 아빠 가시고기의 아기사랑			○				○	○	
교통 기관	20.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				○	○	○			○
도구와 기계	21. 손전등 조립하기				○	○	○			○
	22. 자화상 그리기	○			○		○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23. 나도 건축가				○	○	○			○
특별한 날들	24. 송편 빚기			○				○	○	
	25. 추석을 즐겁게 지냈어요.			○		○		○		○

\* 해당사항 : ○

\* 내 용 별 : ㉠ - 남·여의 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 - 평등한 놀이

㉢ -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 - 직업에서의 평등

㉤ - 성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응능력



## 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책자와 CD-ROM

유아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는 가정통신문과 부모회 자료로 나누어진다. 가정통신문은 서면을 통한 유치원과 가정과의 의사소통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활용되는 부모교육 방법이다. 따라서 부모의 성역할 개념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정에서 자녀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보를 제시함과 더불어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가정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가정통신문 자료는 크게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의 통신문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통신문으로 구성되어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Ⅲ-2 참조). 유치원에서는 진행 중인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CD-ROM 부모교육 자료에서 선택하여 출력한 후 가정으로 보낼 수 있다.

부모회 자료는 강연자료, 토론회자료, 워크숍자료, 참여수업자료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부모회 강연 자료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강연회에서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직원이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와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성하였다. 강연 자료의 내용이 많으면 2회의 강연회로 내용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강연회에 사용할 파워포인트 자료는 CD-ROM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론회나 워크숍 자료는 부모들이 함께 토의하거나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양성평등 활동들을 유치원에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나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는 CD-ROM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에서 자녀들과 활동에 참여해볼 수 있도록 참여수업 자료를 첨가하였다. 참여수업은 유치원의 연간 행사 중에 하나로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 부모교육 자료는 연간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에서는 부모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일년 동안의 부모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자료집에 소개된 부모교육 자료들을 이용하여 연간계획을 세워보면 <표 Ⅲ-3>과 같다. 부모교육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



〈표 III-2〉 부모교육활동의 목표 및 내용별 활동 분석

	활동유형		활동명	목표별			내용별				
	①	②		가	나	다	가	나	다	라	마
가 정 통 신 문	○		1. 양성평등 의식을 점검해 보세요.	○	○						○
	○		2. 나의 몸	○			○				
		○	3. 함께 목욕해요	○			○				
		○	4. 내가 태어난 이야기			○	○		○		
	○		5. 사랑하는 나의 딸(아들)에게			○	○				
		○	6. 나의 놀잇감 I		○			○			
		○	7. 나의 놀잇감 II			○		○			○
	○		8. 남자답게? 여자답게?	○	○			○			○
		○	9. 울고 있는 콩쥐	○		○					○
	○		10. 분홍 딸과 파랑 아들?	○	○	○		○			○
		○	11.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	○			○		○
	○		12. 우리 집 가족회의			○			○		○
		○	13. 빨래를 함께 할까요?			○			○		○
	○		14. 서로 돕는 엄마 아빠			○			○		○
		○	15. 아기하고 노는 아빠			○			○		
	○		16. 아빠의 짐을 덜어주세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	○	○			○		○
		○	17.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	○		○			○		
		○	18. 엄마 아빠의 일 (직업)	○		○				○	
	○		19. 직업의 특성과 올바른 호칭	○	○					○	○
		○	20. 한국을 빛낸 사람들	○		○				○	○
	○		21. 우리 아이가 자라서	○		○				○	
	○		22. 우리 아이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나요?	○		○		○		○	○
		○	23.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운동	○		○		○			○
		○	24. 함께 추석을 준비해요			○			○		○



	활동유형	활동명	목표별			내용별				
			가	나	다	가	나	다	라	마
부 모 회	강연회	자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	○	○	○
	토론회	젠더체크리스트 검사 후 토론회	○	○	○	○	○	○	○	○
		자료감상 후 토론회	○	○	○	○	○	○	○	○
		주제토론회	○	○	○	○	○	○	○	○
	워크숍	동화와 편견	○	○	○					○
		도미노게임		○	○				○	○
		생활 속의 편견들	○	○	○	○	○	○	○	○
	참여수업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	○	○	○	○		○	○
		가족의 날	○	○	○	○	○	○	○	○

\* 해당사항 : ○

\* 활동유형 : 가정통신문 - ①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②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 목 표 별 : ㉠ - 현대사회와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중요성 이해

㉡ - 양성불평등의 현황인식 및 원인분석

㉢ -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전략학습 및 실천

\* 내 용 별 : ㉠ - 남·여의 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 - 평등한 놀이

㉢ - 가정에서의 평등한 성역할

㉣ - 직업에서의 평등

㉤ - 성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응능력

〈표 III-3〉 부모교육활동의 연간계획 예시

시기	부모교육활동	시기	부모교육활동
3월	1차 강연회, 가정통신문 1, 2	9월	2차 강연회, 가정통신문 14, 15
4월	워크숍 가정통신문 3, 4, 5	10월	참여수업 :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가정통신문 16, 17, 24
5월	참여수업 : 가족의 날 가정통신문 6, 7, 8	11월	토론회 : 자료감상 후 토론회 가정통신문 18, 19, 20
6월	토론회 : 젠더체크리스트 검사 후 토론회 가정통신문 9, 10, 11	12월	워크숍 가정통신문 21, 22, 23
7월	워크숍, 가정통신문 12, 13	2월	토론회 : 주제토론회





### 3.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 책자와 CD-ROM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는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 & A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교사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활동 -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교실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지도방법, 동료교사와의 토의 활동, 부모와의 상담 등 - 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신념이나 교수행동 및 실재를 반성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Ⅲ-4 참조). 교사교육 자료는 유치원내 교사들끼리 또는 유치원 교사연수 및 강습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CD-ROM에서 따로 출력하여 제본한 뒤 교사 개인별로 1부씩 나누어 갖고 자주 읽어볼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표 Ⅲ-4〉 교사교육활동 목록

활 동 명	방법
1.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해보세요.	토의
2. 양성평등놀이, 지도할 수 있어요.	쓰기 / 토의
3. 우리 교실은 어떨까요?	체크리스트
4. 색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지 않나요?	체크리스트
5. 유치원에서의 교구, 적절한가요?	토의
6. 양성불평등을 경험했어요.	저널쓰기 / 토의
7. 영화를 보고 이야기해봅시다.	감상 / 토의
8. 일상적인 삶에서 언어와 태도는?	쓰기 / 토의
9. 이럴 때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쓰기
10. 남자답게? 여자답게?	쓰기
11. 가장 정확한 표현은?	쓰기 / 토의
12.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화, 무엇이 문제일까요?	쓰기
13. 올바른 직업호칭을 사용해요.	쓰기
14. 노래를 바꾸어 불러보세요.	쓰기
15.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기 / 토의

## 제 2 부 활동 편

I.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II.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III.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





# I.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활동 1 : 나와 유치원 / 인형 업고 돌아 오기(I) .....	36
활동 2 : 나와 유치원 / 모두가 함께하는 농구놀이(II) .....	39
활동 3 : 나와 유치원 / 내가 태어났어요(II) .....	41
활동 4 : 나와 유치원 /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II) .....	47
활동 5 : 나와 유치원 / 나는 ○○해요(II) .....	54
활동 6 : 가족과 이웃 /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I) .....	57
활동 7 : 가족과 이웃 / 돼지책(II) .....	60
활동 8 : 가족과 이웃 / 우리 식구(II) .....	64
활동 9 : 가족과 이웃 /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없는일(II) .....	68
활동 10 : 가족과 이웃 / 내가 커서 어른 되면(I).....	72
활동 11 : 가족과 이웃 /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II).....	76
활동 12 : 계절-봄 / 남자색과 여자색이 따로 있나요?(II).....	79
활동 13 : 계절-여름 / 설거지하기(I) .....	82
활동 14 : 계절-겨울 / 뜨개질은 재미있어요(II) .....	85
활동 15 : 건강한 몸과 마음 / 운동선수 짝짓기(I) .....	88
활동 16 : 건강한 몸과 마음 / 내가 좋아하는 운동(II).....	91
활동 17 : 건강한 몸과 마음 / 명화 - 모자상 외 감상하기(II) .....	94
활동 18 : 건강한 몸과 마음 / 자장가 감상하고 표현하기(II).....	96
활동 19 : 동물 / 아빠 가시고기의 아기사랑(I) .....	99
활동 20 : 교통기관 /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II) .....	102
활동 21 : 도구와 기계 / 손전등 조립하기(II).....	104
활동 22 : 도구와 기계 / 자화상 그리기(II).....	106
활동 23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 나도 건축가(II) .....	110
활동 24 : 특별한 날 / 송편 빚기(I) .....	114
활동 25 : 추석을 즐겁게 지냈어요(II) .....	117



관련 생활주제 : 〈나와 유치원〉

## 활동 1 인형 업고 돌아오기 (I)

### 활동목표

-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안다.
- 아기를 돌보는 일은 엄마와 아빠의 공동 역할을 안다.
- 규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 활동유형

게임

### 활동자료



사진자료(아빠나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사진), 포대기 2개, 인형 2개, 신호악기, 반환표시, 점수표



### 활동방법

- ① 아빠,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사진 자료를 직접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것은 어떤 사진일까?
  - ○○아빠는 ○○를 업고 재워주시고 있구나.



- △△엄마와 아빠께서 함께 △△ 목욕을 시켜주시고 있네.
- 만약 아빠께서 너희를 이렇게 업어주거나 안아주면 어떤 기분일까?
- 너희가 아빠, 엄마가 되면 아기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니?
- ④ 준비물을 보여주고 게임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본다.
  - 이 인형 2개와 포대기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
- ④ 두 편으로 나누어 앉는다.
- ④ 양편의 수가 같은지 확인한다.
  - 양편의 수가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④ 게임에 필요한 약속과 태도를 이야기한다.
  - 신호 악기 소리를 듣고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 인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대기 속으로 잘 넣는다.
  - 인형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업고 간다.
  - 바르게 앉아서 열심히 응원을 한다.
- ④ 원하는 유아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게임 방법을 보여 준다.
  - 교사는 약속한 대로 잘 하는지 관찰하고 평가, 격려한다.
- ④ 게임을 한다.
- ④ 게임이 끝난 후 유아와 함께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준다.
  - 규칙을 잘 지키며 일찍 들어온 사람은 누구니?
  - 친구들의 응원하는 태도는 어땠니?
- ④ 유아와 의논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한 번 더 해본다.
  - 인형 안고 돌아오기

#### 추후활동

- ④ 역할놀이영역에 포대기와 인형을 내주어 놀이한다.
- ④ 남자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게시한다.
- ④ 모형운전대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하고 돌아오기 게임을 해볼 수 있다.



- II 수준 유아의 경우에는 인형 업고 돌아오기를 릴레이게임으로 할 수 있다.

#### 유의점

- 아빠가 재워주거나 목욕을 시켜준 유아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며, 커서 아빠가 되어 어떻게 아기를 돌봐줄 것인지 남아에게 이야기해보게 한다.

#### 가정과의 연계

- 집에 있는 놀잇감을 조사하여 ‘남자와 여자의 놀잇감’ 그래프를 만든 후에 남자나 여자만 사용하는 놀잇감이 있는지 토의해 본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6 ‘나의 놀잇감 I’ 참조).
- 활동 전에 아빠나 엄마가 돌봐주는 사진을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생활주제 : 〈나와 유치원〉

## 활동 2 모두가 함께 하는 농구 (II)

### 활동목표

- 남녀가 함께 하는 농구에 즐겁게 참여한다.
- 사람마다 서로 다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 활동유형

게임

### 활동자료

유아용 농구공, 유아용 골대, 종이, 필기도구

### 활동방법

- ① 유아와 실외에서 남·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놀이를 찾아본다.
  - 우리가 실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놀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② 농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농구는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
  - 농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③ 팀을 나누어 농구를 한다.
  - 같은 팀끼리 농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 누가 농구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니?
  - 공을 어떻게 던져야 골대에 잘 들어가니?
- ④ 농구를 한 뒤, 평가시간에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본다.





- 농구를 해보니 느낌이 어떠니?
-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 있었니?
- 공을 잘 넣는(잘 잡는, 심판을 잘 하는) 아이는 누구였니?
- ⊙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다시 농구를 해본다.
  - 역할 나누기 (심판 또는 선수) / 팀 이름 정하기
  - 농구 게임을 위한 새로운 규칙 정하기

#### 추후활동

- ⊙ 인형놀이, 쌓기놀이, 축구 등 성에 따른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다양한 놀이에 남녀 유아가 함께 참여 해본다.

#### 유의점

- ⊙ 농구를 한 후 어떤 아이가 농구를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농구를 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예: 공을 골대에 넣을 때 기분이 어땠나, 여자친구가 공을 잘 넣을 때 어땠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가정과의 연계

- ⊙ 성에 따른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놀잇감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온 것을 친구 앞에서 발표하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후에 책으로 묶어 언어영역에 내준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7 '나의 놀잇감 II' 참조).
-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 직접 해보고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관련 생활주제 : 〈나와 유치원〉

### 활동 3 내가 태어났어요 (II)

#### 활동목표

- 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 나의 몸은 시간에 따라 자라고 성장함을 안다.
- 남자와 여자의 신체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안다.
- 나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신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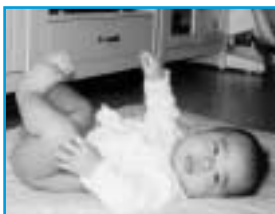
#### 활동유형

신체활동

#### 활동자료



출생과 관련한 그림카드(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림,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모습, 신생아의 모습, 영아기의 모습), 유아가 가정에서 가져 온 사진자료, 홀라후프(난자), 호스나 줄(탯줄), 가방, 우유병, 딸랑이





활동방법

- ① 유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본다.
  - 우리 반 교실에 있는 거북이나 꽃은 어떻게 자라게 되었을까?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거북이처럼 알에서?, 꽃처럼 땅속 씨앗에서?)
- ②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직접 보며 아기씨의 수정과정 및 태아의 성장 과정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정과정과 태아기의 신체 성장 및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 아기씨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생겼니?
  - 아기씨는 아기집에서 어떻게 자랄까?
  -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어땠을까?
- ③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자라날지 그림 카드를 함께 보며 이야기해본다.  
(신체적 성장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 아기는 어떻게 자라날까? 어떻게 지낼까?
  - 조금 더 자란 아기는 어떤 모습이니?
- ④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 온 과정을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해 본다.
  - 정자와 난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 ⑤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정과 출생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기씨(태아)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본다(이야기 ‘내가 태어났어요’ 참고).
- ⑥ 신체로 표현해본 뒤 관람한 유아의 느낌을 물어본다.
  - 친구의 어떤 모습이 재미있었니?
  - 어떤 친구의 움직임이 진짜 정자의 모습, 아기의 모습 같았니?
- ⑦ 직접 신체로 표현을 해 본 유아의 느낌을 들어본다.
  - 몸으로 표현해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니?
  - 어떤 모습을 표현해 보는 것이 재미있었니? 어려운 점은 없었니?



- 어떻게 표현해 보았으면 더 좋았을까?
- 그 외에 더 표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니?

#### 추후활동

- ① 수정에서 유아기까지의 성장과정에 대한 신체 표현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부모가 되어 임신하는 모습), 노년기와 죽음까지 사람의 일생 전체를 신체로 표현해 볼 수 있다.
- ② 엄마, 아빠, 산부인과 의사, 아기의 역할을 정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 유의점

- ① 신체적 특징과 움직임이 들어간 어휘를 사용하여 유아의 신체적 표현력의 증진을 돕도록 한다.
- ② 아기의 움직임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동작으로 표현 되도록 유도한다. 유아의 표현을 자극하는 도구들(우유병, 보행기, 장난감 등)과 함께 상황을 제시한다.

#### 가정과의 연계

- ① 활동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과정을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부모의 결혼, 임신과 출산, 유아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을 유치원에 가져오도록 하여 전시한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4 ‘내가 태어난 이야기’ 참조).
- ②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며 남녀의 신체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3 ‘함께 목욕해요’ 참조).



### 〈내가 태어났어요〉

어느 날 나의 엄마와 아빠는 서로 만났어요.  
둘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탄따라~라~~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태어났지요? 더 자세하게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빠 몸속의, 아기씨를 만들 수 있는 정자가  
엄마의 난자를 향해서 헤엄치기 시합을 했어요.  
서로 빨리 가려고 꼬리를 빠르게 흔들며 대면서 가고 있네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정자가 엄마의 난자와 만나게 되었지요.

난자와 만난 정자는 엄마의 아기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숨도 쉬고, 물도 먹고, 영양분도 섭취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닮은 내 모습을 만들고 잘 자랐답니다.  
가끔 엄마 배를 차기도 하면서요.

1달, 2달, .....8달, 9달, 10달이 다 되어 이제 나는 엄마 뱃속이 너무 좁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큰 머리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아, 응애~응애! 소리와 함께 나는 드디어 나왔어요.

아직은 잘 보이지도 않고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오느라 너무 힘이 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난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울고만 있네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엄마와 내 몸을 잇는 탯줄을

이제 그만 가위로 싹둑 잘라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내 몸의 배꼽이 된 거래요.

갓 태어난 나는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자거나

팔다리를 흔들며 울기만 해요.

물론 엄마 젖과 우유는 너무 맛있어요.

쪽~쪽 많이 먹었더니 이제 누워있다 아래로 뒤집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지 2달, 3달, 6달 정도가 되어서

나는 이제 점점 멀리 있는 딸랑이도 가지러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쪽쪽쪽쪽 배를 밀며 기어 다니고,

곰처럼 두 팔과 두 다리로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자꾸만 넘어지긴 했지만 혼자 킁킁대면서 일어서게 되었지요.

이제 나는 혼자 엄마 아빠한테도 갈 수 있어요.

아장아장, 뒤통뒤통

아장아장, 뒤통뒤통

금방 넘어질 것도 같지만요, 걷는 건 너무나 재미있네요.

또 달릴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공을 잡으러 뛰어갈 수도 있고, 엄마에게도 뛰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젠 울지 않고도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배워 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 생일이 5번이나 지났어요.  
나는 키도 많이 자라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도 알게 되었지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모습이 조금 다르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똑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혼자 보고요.  
혼자서 옷도 입어요.  
바지도 입고, 윗옷도 입고,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지요.  
혼자서 밥도 잘 먹는답니다.  
냠냠냠 냠냠냠

저 태어나서 이렇게나 많이 자랐지요?





관련 생활주제 : 〈나와 유치원〉

## 활동 4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II)

### 활동목표

- 사람마다 특히 잘하는 일이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에는 구별이 없음을 안다.
-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연결하여 지어본다.
- 동화의 내용을 기억하여 동극으로 표현해 본다.

### 활동유형

동화 · 동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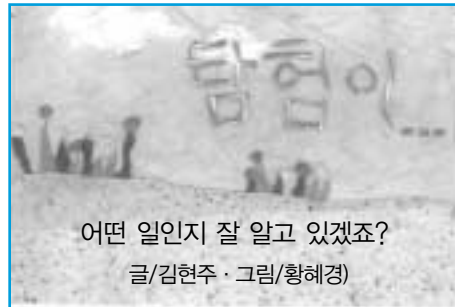
### 활동자료



그림동화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글:김현주 그림:황혜경



###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나뭇잎이 아주 무성해진 더운 여름날이에요.  
두 아이가 숲 속 탐험을 떠났어요.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탐험은 위험하지만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지요.





줄기가 두 갈래로 멋있게 뻗어 오른

나무 옆을 지날 때였어요.

“어쩌나. 어쩌나.”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누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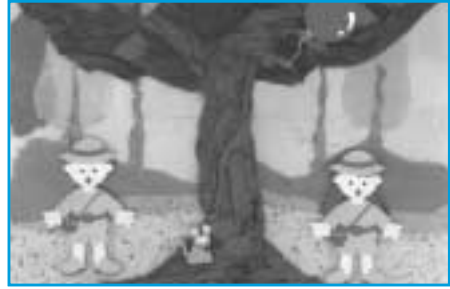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또 한 아이가 물었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빨간 풍선이 저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 버렸어.”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말아, 내가 꺼내 줄게.”

한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넌 여자아이잖아!”

아주 작은 생쥐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난 나무타기를 잘하는 여자아이야.”

여자아이는 쏜살같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생쥐의 빨간 풍선을 꺼내왔어요.

“고마워. 넌 정말 나무타기를 잘하는 여자아이구나!”

아주 작은 생쥐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생쥐가 풍선을 가지고 쭉쭉 달려간 후에,

두 아이는 다시 숲 속 탐험을 떠났어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용감한 일이지요.





보랏빛 꽃이 피어있고 풀이 무성한  
들판을 지날 때였어요.

“어쩌나. 어쩌나.”

조금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누구니?”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또 한 아이가 물었어요.

“먹이를 구하러 가야하는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금 작은 엄마 토끼 한 마리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말아, 내가 돌봐 줄게.”

한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남자아이잖아!”

조금 작은 엄마 토끼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난 아기를 잘 돌보는 남자아이야.”

남자아이는 다정하게 아기토끼를 안고 자장  
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아기 토끼, 잘도 잔다, 아기 토끼.”

“고마워. 넌 정말 아기를 잘 돌보는 남자아이구나!”

조금 작은 엄마 토끼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토끼가 재빨리 먹이를 구해 온 후에,

두 아이는 다시 숲 속 탐험을 떠났어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늘 높이 하얀 뭉게구름이 걸려있는  
바위산을 지날 때였어요.

“어찌나. 어찌나.”

조금 큰 신음소리가 들렸죠.

“누구니?”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집을 다 짓지 못했던 말이야..”

조금 큰 산새 한 마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반짝이는 깃털을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 말아, 내가 지어 줄게.”

한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넌 여자아이잖아!”

조금 큰 산새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난 집을 잘 짓는 여자아이야.”

여자아이는 가방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서는

똑딱 똑딱 산새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넌 정말 집을 잘 짓는 여자아이구나!”

조금 큰 산새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산새가 새로 지은 집으로 들어간 후에,

두 아이는 다시 숲 속 탐험을 떠났어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씩씩한 일이지요.

맑고 맑은 시냇물이 노래하며 흐르는

숲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어요.

“어찌나. 어찌나.”





“누구니?”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또 한 아이가 물었어요.

“털이 너무 길게 자라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아주 큰 산양 한 마리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걱정 말아, 내가 잘라 줄게.”

한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남자아이잖아!”

아주 큰 산양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난 머리 자르기를 잘 하는 남자아이야.”

“그리고 이 털로 뜨개질도 잘할 수 있는 남자아이라구.”

남자아이는 가방에서 가위와 빗을 꺼내서는  
썉썉산양의 털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넌 정말 머리 자르기를 잘 하는 남자아이구나!”

아주 큰 산양이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산양이 가벼워진 몸으로 풀을 먹으러

달려간 후에,

두 아이는 다시 숲 속 탐험을 떠났어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지요.

이제 탐험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겠죠?

탐험은 위험하지만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지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용감한 일이지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일이지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씩씩한 일이지요.  
탐험은 위험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지요.  
이제 우리도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 활동방법

- ① <탐험이 어떤 일인지...> 동화를 소개한 후 이야기를 들려준다.
- ②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탐험을 떠난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었니?
  - 여자아이(남자아이)는 무엇을 잘하는 아이였지?  
어떻게 동물을 도와주었니?
- ③ 유아 각자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본다.
  - 우리 반 아이 중에도 아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을까?
  - 또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④ 자기 자신을 혹은 친구를 형용사로 표현해 보도록 해 본다.
  - 동화에서 탐험은 어떤 일이라고 했니?
  - 그렇다면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용감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 너희는 어떤 아이들이니?  
누가 “나는 ○○해요”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왜 너는 ○○하다고 생각하니?
- ⑤ 사람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본다.
  - 너희가 이야기한 말 이외에 또 어떤 말로 “○○는 이리해요”, “나는 이리해요”라고 할 수 있을까?  
(용감하다, 씩씩하다, 활동적이다, 활발하다, 활기차다, 굳세다, 강하다, 튼튼하다, 건강하다, 약하다, 부드럽다, 다정하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



다, 잘생겼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착하다, 얌전하다, 차분하다, 창의적이다, 예의바르다, 바르다, 의젓하다)

#### 추후활동

- 동화를 듣고 동극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 유아와 함께 동화의 후속이야기를 지어본 후에 책으로 만들어 언어영역에 내주거나 역할놀이영역에서 새로 지은 내용으로 동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의점

- 유아와 이야기나누기를 할 때에 남자만의 혹은 여자만의 특성으로 정형화 되지 않은 활동을 잘하는 남녀 유아를 격려한다.

#### 가정과의 연계

-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보고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거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들이 성역할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들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8 ‘남자답게? 여자답게?’ 참조)





관련 생활주제 : 〈나와 유치원〉

## 활동 5 나는 ○○해요 (II)

### 활동목표

- 사람마다 특히 잘하는 일이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에는 구별이 없음을 안다.
- 여러 가지 낱말과 문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언어활동)

### 활동자료



행동 특성이 나타내는 활동 그림카드 남·여 각 10장씩(5cm×7cm)

6면에 각각의 단어를 쓴 정육면체 주사위(씩씩하지요, 활발하지요, 바르지요, 다정하지요, 아름답지요, 마음대로)





#### 활동방법

- 여러 종류의 그림카드를 보며 어떤 행동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 이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 그림카드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본다.
  - 이 아이는 “씩씩하지요, 활발하지요, 바르지요, 다정하지요, 아름답지요”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잘 어울릴까?
  -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는 “씩씩하지요, 활발하지요, 바르지요, 다정하지요, 아름답지요”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 혼자 힘으로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아이는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주사위에 쓰인 표현을 함께 알아본다.
  - 어떤 아이를 ‘다정하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아름다운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



- ④ 규칙판을 보며 게임방법을 알아본다.
  -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규칙판을 함께 읽어 보자.
- ④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을 해본다.

#### 〈게임 방법〉

- ① 순서를 정한다.
- ② 그림카드를 바닥에 잘 보이도록 늘어놓는다.
- ③ 글자 주사위를 던진다.
- ④ 주사위에 나온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가져간다.
- ⑤ '마음대로'가 나오면 그림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카드를 가져간다.
- ⑥ 카드가 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이 난다.
- ⑦ 누구 카드가 더 많을까?

#### 추후활동

- ④ '나는 ○○하지요. 왜냐하면....' 등의 표현을 나타내는 행동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볼 수 있다.

#### 유의점

- ④ 주로 여자나 남자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알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그런지 이야기해 봄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에는 구별이 없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④ 한 행동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그림 카드의 행동을 주사위에 나온 단어로 적절하게 설명하면 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예: 친구 돕기는 '다정하다'와 마음이 '아름답다'로 표현할 수 있음).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활동 6

##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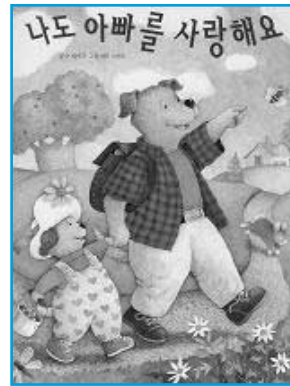
### 활동목표

- 가사는 엄마일, 아빠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생각해본다.
- 동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며 즐긴다.

### 활동유형

동화

### 활동자료



동화책 또는 동화책을 스캔하여 만든 OHP 자료

(나도 아빠를....., 글/수 케시러 · 그림/제리 스미스, 옮긴이/이태영, 출판/거인)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면

나는 짹짹 달려가 아빠 팔에 안기죠.

그러면 아빠는 나를 안아 빙글빙글 씹씹 돌려요.

아빠는 의자에 앉아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을, 정원 가꾸는 것을.....

.....반짝이는 별들을 가리키는 것을, 집 안팎을 고치는 것을 좋아해요.



나도 꼬치꼬치 물으며 신문 보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만들고 먹는 것을.....  
..... 아빠와 파란 담요 위에 앉아 넓고 넓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아빠를 도와 푹푹딱딱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아빠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 제일은.....바로 나!  
무엇보다 나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 활동방법

- ①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동화를 들려준다.
  - 책의 표지 그림을 볼까? 표지에 누가 그려져 있니?
  - 제목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겠니?
  - 아빠와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 ②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아빠가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니?
  - 주인공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니?
  - 주인공 아이는 왜 그것을 좋아했을까?
  - 그런데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누구였지?
- ③ 동화의 내용을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로 바꾸어 읽어본다.
- ④ 유아가 아빠(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아빠(엄마)와 함께 해 본 일을 이야기해 보자.
  - 아빠(엄마)와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이니?
  - 그 일을 엄마(아빠)와 해 볼 수도 있을까?



추후활동

- 유아가 아빠(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동화책으로 묶어 언어영역에 내준다.

유의점

- 아빠(엄마)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엄마(아빠)와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 활동 7 돼지책 (II)

### 활동목표

- 가정에서의 일은 엄마 일, 아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서로 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가정에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생각해본다.
- 동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본다.

### 활동유형

동화

### 활동자료

동화책

(돼지책, 글·그림/앤서니 브라운,  
웁긴이/허은미, 출판/웅진닷컴)



### 활동방법

- ① 〈돼지책〉 동화를 들려준다.
  - 책의 표지 그림을 볼까?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니?
  - 왜 엄마가 아빠와 두 아들을 업고 있을까?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피곳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피곳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피곳씨와 사이먼, 패트릭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밥 줘.”, “엄마, 빨리 밥 줘요.”

피곳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피곳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곳 부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편지를 남기고...

피곳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하지 않은 집은 곧 돼지우리처럼 되었습니다.

피곳씨와 아이들은 껍껍거리고, 꿀꿀대고, 씹씹거리며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피곳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피곳씨는 설거지와 다림질을,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곳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왜 엄마는 편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을까?
  - 왜 엄마는 아빠와 두 아들을 “돼지”라고 했을까?
  - 엄마가 집을 떠나버린 뒤에도 왜 아빠와 아이들은 설거지와 청소 그리고 빨래를 하지 않았을까?
  -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와 아이들은 왜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했을까?
  - 엄마가 돌아온 후, 아빠와 아이들은 어떻게 했니?
  - 엄마는 왜 행복해졌을까? 아빠와 아이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 집에서 빨래, 청소, 설거지 등의 일은 누가 하니?
  - 엄마 혼자 그 일을 다 한다면 어떨까?
  - 엄마, 아빠,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면 집안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추후활동

- 유아가 가족과 함께 집안일 분담에 관해 토의를 한 후에 그 내용과 경험을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발표해보도록 한다.
- 피곳 부인의 입장이 되어 피곳씨와 아이들에게 그림 편지쓰기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유아들이 쓴 편지는 발표를 하거나 교실 벽면에 게시해준다.
  - 피곳 부인은 집을 나가기 전 “너희들은 돼지야”라고 편지를 썼지? 만약 너희들이 피곳부인이라면 피곳씨와 아이들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니?
  - 피곳 부인이 집에 돌아온 후 다시 피곳씨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니?

#### 유의점

- 집안일로 힘든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은 평상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가정과의 연계

- ① 가정에서 가족들이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역할 분담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를 토의해 본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1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참조)
- ② 유치원에서의 토의를 기초로 하여 가정 일을 나누기 위한 가족회의를 해보도록 한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2 ‘우리 집 가족회의’ 참조)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 활동 8 우리 식구 (II)

### 활동목표

- 가족 구성원은 각각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안다.
- 엄마와 아빠는 공동 역할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안다.
- 가족 구성원 역할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 활동유형

신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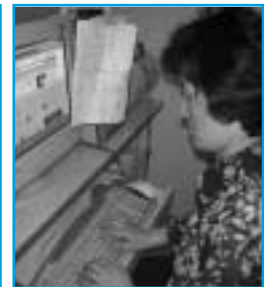
###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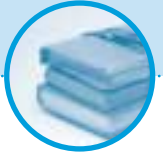


가족 구성원 그림 자료(아빠, 엄마, 언니, 오빠, 동생-나)

사진 자료(요리하는 아빠, 컴퓨터로 일하는 엄마)

그림책 자료(우리 아빠는요, 엄마는 비행사, 출판/한국 어린이 육영회)





활동방법

- ① 신체활동 전에 그림 자료를 보며 가족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너희 집에는 누구와 누가 함께 살고 있니?
  -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각각 어떤 일을 할까?
  - 이 사진 속의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저희 아빠는 요리를 잘 하세요”하는 사람 있니?
  - ◇◇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물냉면과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빠께서 요리하시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 줄 수 있겠니?
  - 아빠는 또 어떤 일을 하시니?
  - 그래, 회사에 다니시지.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 ○○야, 아빠께서 컴퓨터로 일하시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니?
  - 아, 키보드를 치고 있구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 볼래?  
앞에 나와서 친구들에게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 아빠께서는 집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 그림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실까?
  - 엄마께서 컴퓨터로 책을 만드신다고 한 △△가 앞에 나와서 엄마께서 책 만드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겠니?
  - 이 그림책 속의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실까?
  -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② 원하는 유아가 나와서 ‘우리 식구’ 노래의 ‘이력 저력 이력 저렇게’ 부분이 나올 때 식구 중 한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다른 유아는 함께 노래 부르며 친구의 몸짓을 따라 해 본다.
- ③ 두 개의 원으로 둘러서서 손을 잡고 다같이 율동을 한다.
  -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모두 다섯 식구죠.  
(손을 잡아 원을 만든 후,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 함께 모여 즐거웁게  
(서로 잡은 손을 가운데 위로 향하게 하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다)
  - □□ 따라 즐거웁게  
(□□ 역할을 하기로 한 유아만 가운데 남고,



다른 유아는 손을 잡은 채로 밖으로 뒷걸음질쳐 나온다)

· 이력 저력 이력 저렇게

(원의 한가운데에 서서 □□의 동작을 표현하는 유아를 보고,

다른 유아들은 모두 따라 한다)

· 전주가 나오는 동안 아빠 역할을 맡았던 유아는 원으로 돌아간다.

⊙ 제자리로 돌아가 앉은 후, 평가를 한다.

#### 추후활동

⊙ 실내 자유선택활동의 역할놀이영역에서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등의 정형화 된 역할을 탈피해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놀이한다.

이 때, 도입 시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썼던 사진과 그림 자료를 역할 놀이영역에 게시 해 두어 유아의 놀이를 돕는다.

#### 유의점

⊙ 사전활동으로 ‘엄마는 비행사’, ‘우리 아빠는요’ 동화를 듣는다.

⊙ 정형화된 성역할과 관계된 동작보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 엄마-신문보기, 컴퓨터로 일하기, 운전하기

아빠-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아기 돌보기

언니-공부하기, 축구하기

오빠-피아노치기, 그림 그리기

#### 가정과의 연계

⊙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위의 예와 같은 사진을 수집한 후 자료로 사용한다.

⊙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알아보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에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유아와 함께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우리 석구

안희옥 작사  
외국 곡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모두 일곱 석구 초  
함께 모여 즐거움 게 아바 따라 즐거움 게  
이 락 저 락 이 락 저 락 게

♣ 출처 : 이근화·김순세(1978). 어린이 송곡, 협설 출판사.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 활동 9 남자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없는 일 (II)

### 활동목표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임을 안다.
- 남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신체적 차이는 있지만 남녀의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안다.
- 경험과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 활동자료



1.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동의 사진자료  
(모유 수유하는 여자, 임신부, 서서 소변보는 남자, 면도하는 남자 등)



2. 남자와 여자의 정형화된 외양과 반대되는 사진자료  
(치마 입은 남자, 머리 긴 남자, 장신구로 치장한 남자, 힘이 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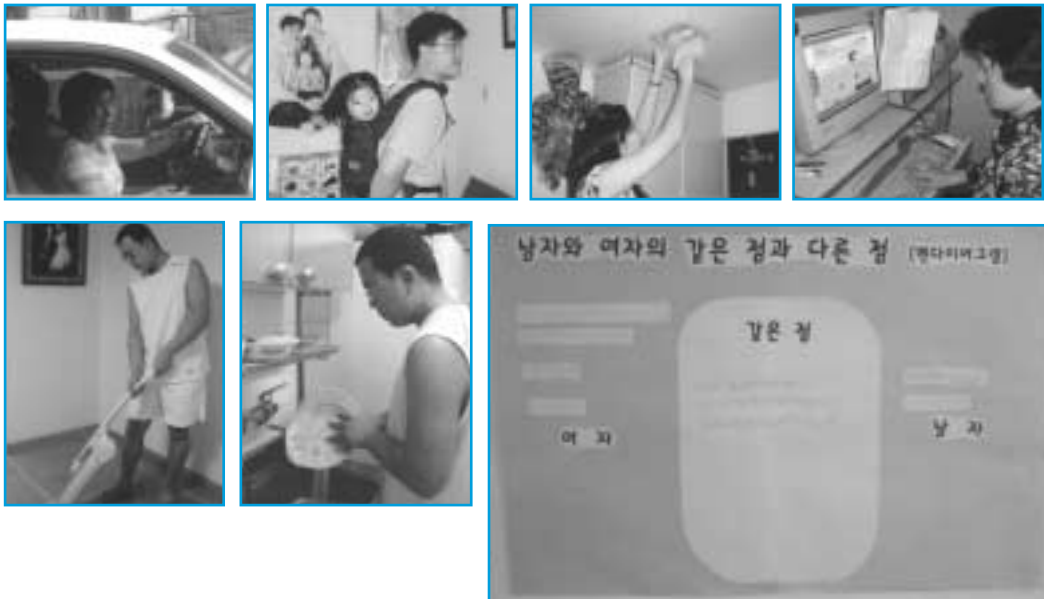




3.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남녀 각각의 사진자료  
(간호사, 과학자, 군인, 미용사 등)



4.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일상생활 모습 사진자료  
(운전하기, 아기 돌보기, 전등 교환하기, 컴퓨터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등)



5. 벤 다이어그램 판



활동방법

- 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로 인하여 여자만 할 수 있는 일과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의 사진(예 : 면도하는 모습,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 등)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면도는 왜 하는 걸까?
  - 면도는 왜 남자만 할까? 여자는 할 수 없을까?
  - 여자, 남자는 모습이 서로 다르고 몸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고, 여자가(또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 ② 여자(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본다.
  - 여자(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 ③ 유아가 이야기한 남녀의 외양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 치마는 여자만 입을 수 있을까?
  - 힘이 센 여자 운동선수를 본 적이 있니?
- ④ 그림자료를 보며 여자만 할 수 있는 일과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한다.
  - 이 사진 중에서 남자만 할 수 있는 일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그림판에 붙여보자.
- 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 (실험 중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니?
  - 그렇다면 실험을 하는 이 사람은 그림판의 어디에 붙일 수 있을까?
  - “병원에 갔을 때 여자 의사선생님께서 진찰을 해주셨어요”하는 사람은 손들어보자.
- ⑥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한다.
  - 전등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
  - 여자는 전등을 바꿀 수 없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 “우리 아빠는 요리를 잘 하세요”하는 사람 있니? 어떤 요리를 잘하시니?
- ⑦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일은 남녀 구분 없이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추후활동

-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유의점

- 성에 따른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역할의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직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활동한다.

## 가정과의 연계

-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유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예: 남자요리사, 여자건축가 등)이 계실 경우에는 직접 유치원에 초청하여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8 ‘엄마 아빠의 일’ 참조)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 활동 10 내가 커서 어른 되면 (I)

### 활동목표

-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남자직업, 여자직업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안다.
- 자신이 어른이 된 후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조형활동)

### 활동자료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종이판화 틀(요리사, 선생님, 경찰관, 군인, 운동선수, 의사, 간호사, 우주비행사 등), 물감, 로울러, 16절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막대자료(남아, 여아), 사진자료(여자축구선수, 남자간호사), 활동 순서도



〈판화틀 그림〉





### 활동방법

- 조형활동 전에 막대 자료를 사용하여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까?

남아 :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여아 : 나는 축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그러는 너는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남아 : 나는 우리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 줄 거야.

여아 : 그렇구나! 그런데 내 친구들은 여자는 힘이 없어서

축구선수를 할 수 없다고 놀려.

남아 : 나도 친구들이 간호사는 여자만 하는 거라고 놀려.

- 애들아, 두 아이가 말한 것처럼 여자는 힘이 없어 축구를 할 수 없을까?
- 또 간호사는 여자만 하는 걸까? 남자는 할 수 없을까?
- 여자축구선수와 남자간호사 그림 자료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 자료를 보여줄 때 직접 여자가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나 남자간호사가 간호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어도 좋다.
  - 혹시 여자축구선수를 본 적이 있니? 또 남자간호사를 본 적이 있니?
  - 이 여자 분은 우리나라 축구선수야. 그리고 이 남자 분은 간호사란다.
-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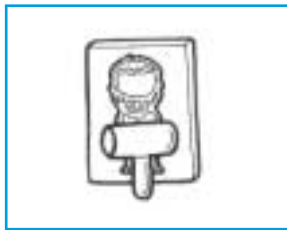


- 너희는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 의사(혹은 소방관, 미용사, 선생님, 과학자 등)는 어떤 일을 할까?
  - 왜 그 일이 하고 싶니?
- ④ 활동순서도를 보며 조형활동을 한다.

###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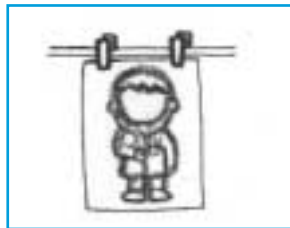
- 도화지 뒷면에 이름을 쓴다.
- 상자에 담긴 종이 판화 판 중에서 자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그림 하나를 고른다.



- 롤러에 물감을 묻힌다.
- 판화 판 위를 롤러로 문질러서 물감을 골고루 묻힌다.



- 도화지를 종이 판화 판 위에 올려놓는다.
- 손바닥으로 종이 위를 문지른다.



- 도화지를 들어내어 찍혀 나온 모양을 살펴본다.
- 완성된 작품을 건조대에 말린다.



- 마른 후에 얼굴과 배경을 그려 넣는다.



### 추후활동

- ⦿ II 수준 유아의 경우에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 본다.
- ⦿ 부모님의 직업을 조사해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예: 남자요리사, 여자건축가 등)을 직접 유치원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유의점

- ⦿ 유아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그림(종이 판화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직업에 관해 유아와 이야기를 나눈 후 종이 판화틀을 준비해준다.
- ⦿ 종이판화 틀의 얼굴 부분을 비워두어서 유아가 직접 자신을 그려 넣게 한다.





관련 생활주제 : 〈가족과 이웃〉

## 활동 11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II)

### 활동목표

-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에는 남자 직업, 여자 직업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안다.
-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한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수 · 조작 놀이)

### 활동자료



게임판, 말로 사용할 학급 전체 유아의 얼굴사진과 원자석 2개, 규칙판, PET병을 이용한 주사위

#### 〈만드는 방법〉

- ① 4절 크기의 하드보드지판을 반으로 접을 수 있게 만든다.
- ② 게임판에 함석을 붙이고 그 위에 색지를 붙인 후에 투명시트지로 쓴다.
- ③ 색지로 길을 오려 ②위에 붙이고, 얼굴을 비워서 코팅한 여러 가지 직업을 나타내는 복장의 사람들을 길 위에 붙인다.  
시작은 어린이 그림으로 붙인다.
- ④ 말로 사용할 원자석에 보슬이를 붙이고, 유아 얼굴사진은 코팅하여 뒷면에 까슬이를 붙인다.
- ⑤ 윗부분을 자른 PET 병을 하드보드지로 막고 눈알 4개를 넣어 주사위를 만든다.



#### 활동방법

- ① 게임판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 소방관인지 어떻게 알았니?
- ② 규칙판을 보며 게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규칙판을 함께 읽어 보자.
- ③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을 해본다.






#### 유의점

- 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 ② 교실 벽면에 다양한 직업의 남·여 사진을 게시해준다.



### 〈게임 방법〉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 ① 원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한다.
- ② 말로 사용할 에 나의 얼굴 사진을 붙인다
- ③ 를 흔들다 멈춘다.  
주사위
- ④ 나온 수만큼 길을 지나 해당 칸의 에 말을 붙인다.  
인형
- ⑤ 에 도착하면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방향표
- ⑥ 두 유아가 모두 가 되면 게임이 끝이 난다.  
우주비행사
- ⑦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야기해 본다.





관련 생활주제: 〈계절-봄〉

## 활동 12 남자색과 여자색이 따로 있나요? (II)

### 활동목표

- 남자색과 여자색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음을 안다.
-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한다.
- 동화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 활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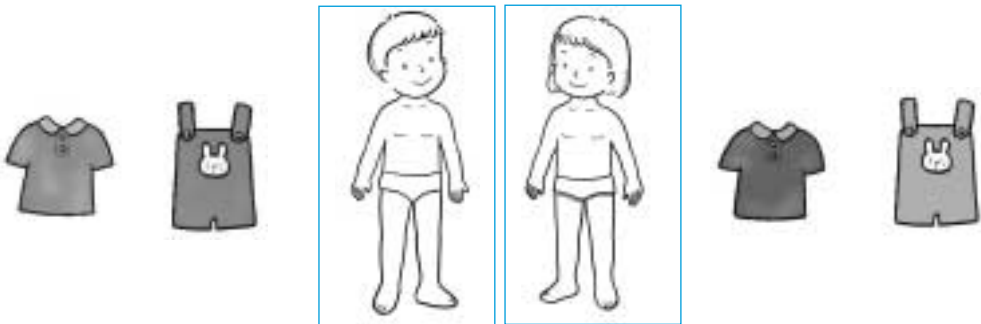
동화

### 활동자료



동화책

(피터의 의자, 글/그림 애즈라 잭 키츠, 출판/시공주니어),  
그림자료(남아/여아와 파란/빨간색 옷: 옷을 입히고 벗길 수 있게 제작, 붉은색 옷의 남자, 파란색 옷의 여자: NAVER에서 궁중의상 이미지 검색)





활동방법

- ① <피터의 의자> 동화를 소개한 후 이야기를 들려준다.

피터가 만든 빌딩이 와당탕! 무너져 버렸을 때 엄마가 꾸짖었지.  
 “쉬잇! 좀 조용히 놀아라. 우리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어요.”  
 여동생 수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어.  
 피터의 요람도, 아기침대도 “분홍색으로 칠해버렸잖아.”  
 “피터야, 네 동생 식탁의자를 칠하는데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니?”  
 침대 곁에는 피터가 쓰던 파란 의자가 놓여있었어.  
 “이건 아직 칠하지 않았잖아!”  
 우리 도망가자!  
 그런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어. 피터가 너무 컸거든.  
 “피터야,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점심에 아주 맛있는 걸 해 먹을텐데.”  
 피터는 아빠의 옆에 있는 어른 의자에 앉았어.  
 “아빠, 아기 의자를 분홍색으로 칠해서 수지한테 줄래요.”  
 아빠와 피터는 의자에 분홍색 칠을 하기 시작했지.

- ②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피터의 의자는 무슨 색이었니?
  - 왜 피터의 의자는 파란색이었을까?
  - 아빠가 피터의 침대와 의자를 피터의 여동생에게 주려고 어떻게 하였니?
  - 왜 아빠는 분홍색으로 칠했을까?
- ③ 빨간색 옷을 입은 남자 사진과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준다.
  -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 옛날에는 왕비나 공주는 파란색 옷을 많이 입었고, 왕이나 왕자가 빨간색 옷을 많이 입었다.
- ④ 남녀 유아 그림에 옷을 입혀주며, 유아가 생각하는 남자색과 여자색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또 직접 유아 중에서 붉은색 옷을 입은 남아와 파란색 옷을 입은 여아를 찾아보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선생님이 두 가지 옷을 가져왔는데 누가 입혀줄까?
- 왜 남자아이에게 파란색 옷을 입혀주었니?
- 왜 여자아이에게 빨간색 옷을 입혀주었니?
-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는데 다르게 입힐 수는 없을까?
- 남자(혹은 여자)들만 써야하는 색이 있을까?
- 남자가 빨간색(여자가 파란색) 옷을 입으면 어떨까?
- 오늘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 있니?
- 오늘 빨간색 옷을 입는 남자아이 있니?
- 그럼 만약 너희들이 피터의 아빠라면 여동생에게 줄 침대와 의자를 무슨색으로 칠해주겠니?

#### 추후활동

- ① 유아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유아의 놀잇감 또는 입은 옷 등의 색깔을 조사해보는 색깔 그래프 활동을 해볼 수 있다.
- ① I 수준 유아의 경우에는 색깔의 날(빨강의 날, 파랑의 날 등)을 정해서 옷을 입고 오게 하여 여자나 남자 모두 같은 색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

#### 유의점

- ①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분홍색을 자주 사용하는 여아 또는 파란색을 자주 사용하는 남아는 무조건 양성평등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여자이기 때문에 분홍색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 가정과의 연계

- ① 성별에 따른 색 편견에 관한 내용의 글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거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들로 하여금 색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0 ‘분홍 딸과 파랑 아들?’ 참조)



관련 생활주제 : 〈계절-여름〉

## 활동 13 설거지하기 (I)

### 활동목표

- 가족 구성원은 각각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안다.
-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안다.
- 놀잇감을 스스로 깨끗이 닦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 활동(역할놀이)

### 활동자료

역할영역의 그릇류, 큰 대야, 스폰지, 수건, 앞치마, 행주, 바구니

### 활동방법

- ◎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이하는 유아에게 교사가 더러워진 식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교사가 놀이자로 참여하여 활동을 제안한다).
  - 여기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더러워진 접시, 그릇, 컵, 수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세균이 없어져 병에 걸리지 않을텐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 ◎ 물놀이 영역에 큰 대야를 준비하고 식기를 옮겨 관심을 가진 유아가 자연스럽게 ‘설거지하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왜 어떤 그릇은 가라앉고 어떤 그릇은 물 위에 떠 있을까?



- 다 닦은 그릇은 어떻게 할까?
- 닦은 그릇을 이 바구니에 다 담아서 말리려면 어떻게 놓아야할까?
- ④ 설거지가 끝난 후, 유아가 놀잇감을 역할놀이영역의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한다.
- ④ 교사는 유아와 설거지를 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설거지를 해 본적이 있니? 언제 누구와 설거지를 해 보았니?
  - 설거지는 엄마만 해야 하는 일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 아빠와 설거지를 해 본적이 있니? 왜 아빠와 설거지를 했을까?
  - 설거지를 해보니 힘이 들었니?
  - 매일 설거지를 하는 엄마(아빠)께 어떤 마음이 들었니?
  - 밥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는 엄마(아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추후활동

- ④ ‘쌓기놀이 교구 닦기’, ‘빨래하기’, ‘인형 목욕시키기’, ‘교실의 대청소’ 등으로 변형, 확장한 후 신체표현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④ 모래놀이 후 더러워진 도구를 함께 세척할 수 있다.
- ④ 남자 요리사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자료를 함께 보며 남자의 가사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④ 설거지를 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본 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유의점

- ④ 활동할 유아는 옷의 손목 부분을 걷고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
- ④ 세제는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닦는다.
- ④ 젖은 놀잇감을 깨끗이 말릴 수 있는 도구와 공간도 확보한다.





- 유아의 대화 중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어휘가 오고가면 교사가 적절히 반응한다.

가정과의 연계

- 설거지 하는 모습이 담긴 자료를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과 함께 감상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설거지를 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경험한 후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관련 생활주제 : <계절-겨울>

## 활동 14 뜨개질은 재미있어요 (II)

### 활동목표

-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털실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 수 있음을 안다.
- 뜨개질(혹은 바느질)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임을 안다.
- 동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며 즐긴다.

### 활동유형

동화

### 활동자료



털실로 짠 옷(장갑, 목도리 등), 뜨개질하는 사진자료, 동화책(닉 아저씨의 뜨개질, 글/마가렛 와일드, 그림/디 헉슬리, 출판/중앙출판사),



### 활동방법

- ① <겨울바람>노래를 부르면서 모여 앉는다.



- 털실로 만든 옷, 장갑, 목도리 등을 유아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만든 것 같니?
  - 털실로 만든 옷(장갑, 목도리 등)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니?
  - 누가 만들어 주었니?
  - 이런 옷(장갑, 목도리 등)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 선생님의 이 옷(장갑, 목도리 등)을 누가 만들어 주었을 것 같니?
  - 왜 엄마(할머니)라고 생각했니?
- 뜨개질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닉 아저씨의 뜨개질〉 동화를 들려준다.
  - 남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 선생님이 들려줄 동화는 뜨개질을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의 이야기란다.

닉 아저씨와 친구인 줄리 아줌마는 뜨개질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특히 닉 아저씨는 조카의 바지, 점퍼 등의 옷을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줄리 아줌마는 장난감 인형 장갑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둘은 매일 아침 도시로 가는 일곱 시 기차 안에서 만나서 45분 기차여행 도중 서로 뜨개질을 하며 도란도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을 구경한다는 것에 크나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 아줌마가 아파서 더 이상 기차여행을 못하게 되었다. 함께 뜨개질을 하던 줄리 아줌마가 보이지 않자 닉 아저씨도 뜨개질이 재미없어지고, 줄리 아줌마도 병원에서는 도저히 뜨개질을 할 수가 없었다.

병문안을 간 닉 아저씨는 줄리 아줌마가 기차여행을 하며 바라보았던 창밖 풍경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줄리 아줌마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한다.

일주일 동안 줄리 아줌마를 위해 열심히 뜬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닉 아저씨와 뜨개질을 함께 하면서 기차 창밖으로 바라보았던 풍경이었다. 줄리 아줌마는 매우 행복해하고, 닉 아저씨는 다시 조카의 옷을 만들기 위해 뜨개질을 하기 시작한다.



- ◎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닉 아저씨는 왜 뜨개질 하는 것을 좋아할까?
  - 닉 아저씨는 아픈 줄리 아줌마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해주었나?
  - 만약 너희들이 뜨개질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니?  
누구에게 주고 싶어?
  - 왜 그것(장갑, 목도리, 모자, 옷, 가방 등)을 만들고 싶니?

#### 추후활동

- ◎ 만약 내가 뜨개질을 한다면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본다.
- ◎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굵은 대바늘과 끈을 이용해 바느질 놀이를 경험해 본다.

#### 유의점

- ◎ 유아에게서 성별에 따라 편중되는 놀이 현상(예: 남아만 쌓기놀이, 여아만 역할놀이를 하는 경우 등)이 나타날 때 활동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가정과 연계

- ◎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의미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보내거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성편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8 ‘남자답게? 여자답게?’ 참조)



관련 생활주제 : 〈건강한 몸과 마음〉

## 활동 15 운동선수 짝짓기 (I)

### 활동목표

- 다양한 운동경기에 관심을 갖는다.
-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는 다양한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같은 운동을 하는 남녀 선수 짝짓기 활동을 통해 일대일 대응을 할 수 있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수 · 조작 놀이)

### 활동자료

도미노 카드 12장(남 · 여가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카드)

#### 〈만드는 방법〉

- ① 하드보드지를 7cm×14cm 크기의 네모로 오려 12장의 판을 만든다.
- ② 6cm×6cm의 다양한 남녀 운동선수 사진을 카드로 만든다.
- ③ ①의 판 하나에 ②를 2장씩 엇갈려 옆으로 붙여 도미노 카드를 만든다.
- ④ 완성된 카드를 투명시트지로 싼다.

### 활동방법

- 여러 가지 운동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운동경기에는 어떤 것이 있니?
  - 너희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 도미노 카드를 소개하고 게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카드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같은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 사진끼리 연결을 해보자.

#### 〈활동 방법〉

- ① 카드 24장을 모두 뒤집어 놓는다.
- ② 순서를 정하고 먼저 시작하는 유아가 카드 두 장을 동시에 뒤집는다.
- ③ 카드를 뒤집어 동일한 운동경기를 하는 사진이면 카드를 갖는다.
- ④ 카드가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다.
- ⑤ 누가 더 많은 카드를 가졌는지 세어본다.

-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을 해본다.

#### 추후활동

- II 수준의 유아를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남·여 운동선수의 사진이 붙은 카드 24장을 만들어 〈기억력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 수가 많아서 유아가 어려워하면 카드 뒷면에 색깔을 구별해 줄 수 있다(예: 남자운동선수는 노랑, 여자운동선수는 파랑).

####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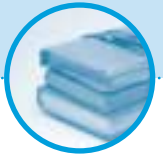
- 다양한 운동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 카드의 그림은 유아가 좋아하며 잘 알고 있는 운동경기를 선택하고, 사진도 실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다.
- 교실 벽면에 남·여 운동선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해준다. 특히 남자운동이라 생각되는 경기를 여자선수가 하는 모습(예: 여자축구 사진, 여자복싱사진 등)이 담긴 사진을 붙여준다.



〈관련 참고 사이트〉

스포츠 카테고리 검색(Daum 검색 → 스포츠, 레저 → 스포츠)

축구	KFA 대한축구협회 <a href="http://www.kfa.or.kr/">http://www.kfa.or.kr/</a> 한국 여자 축구 연맹 <a href="http://www.womensoccer.co.kr/">http://www.womensoccer.co.kr/</a>
농구	KBL 한국농구연맹 <a href="http://www.kbl.or.kr/">http://www.kbl.or.kr/</a>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a href="http://www.wkbl.or.kr/">http://www.wkbl.or.kr/</a>
골프	대한골프협회 <a href="http://www.kgagolf.or.kr/">http://www.kgagolf.or.kr/</a> 한국프로골프협회 <a href="http://www.koreapga.com/">http://www.koreapga.com/</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a href="http://www.klpga.com/">http://www.klpga.com/</a>
권투	변정일복싱클럽 <a href="http://www.boxingdiet.com/">http://www.boxingdiet.com/</a> 복싱매니아 <a href="http://cafe.daum.net/boxing/">http://cafe.daum.net/boxing/</a>
보디빌딩	매니아클럽코리아 <a href="http://www.maniacubk.com/">http://www.maniacubk.com/</a> 보디빌딩매니아 <a href="http://www.bodybuildingmania.net/">http://www.bodybuildingmania.net/</a>
체조	대한체조협회 <a href="http://www.gymnastics.or.kr/">http://www.gymnastics.or.kr/</a>
수영/다이빙	대한수중협회 <a href="http://www.kua.or.kr/">http://www.kua.or.kr/</a> 코리아 다이빙 <a href="http://www.koreadiving.org/">http://www.koreadiving.org/</a>
유도	최종성의 유도사랑 <a href="http://www.sung63.com.ne.kr/">http://www.sung63.com.ne.kr/</a> 계순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a href="http://cafe.daum.net/kyesamo">http://cafe.daum.net/kyesamo</a>
양궁	아처닷컴 <a href="http://thearcher.net/">http://thearcher.net/</a> 사이버 궁도장 <a href="http://user.chollian.net/~untitle1/">http://user.chollian.net/~untitle1/</a>
배드민턴	민턴하우스 <a href="http://www.mintonhouse.co.kr/">http://www.mintonhouse.co.kr/</a> 에이플러스 배드민턴 인터넷 신문 <a href="http://www.aplusbadminton.com/">http://www.aplusbadminton.com/</a>
태권도	아이러브 태권도 <a href="http://www.ilovetkd.com/">http://www.ilovetkd.com/</a> 태권라인 <a href="http://www.taekwonline.com/">http://www.taekwonline.com/</a>
육상	대한육상경기연맹 <a href="http://www.kaf.go.kr/">http://www.kaf.go.kr/</a> 삼성전자 육상단 <a href="http://www.samsungrunner.co.kr">http://www.samsungrunner.co.kr</a>



관련 생활주제 : 〈건강한 몸과 마음〉

## 활동 16 내가 좋아하는 운동 (II)

### 활동목표

- 운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남자와 여자의 운동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안다.
-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이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 활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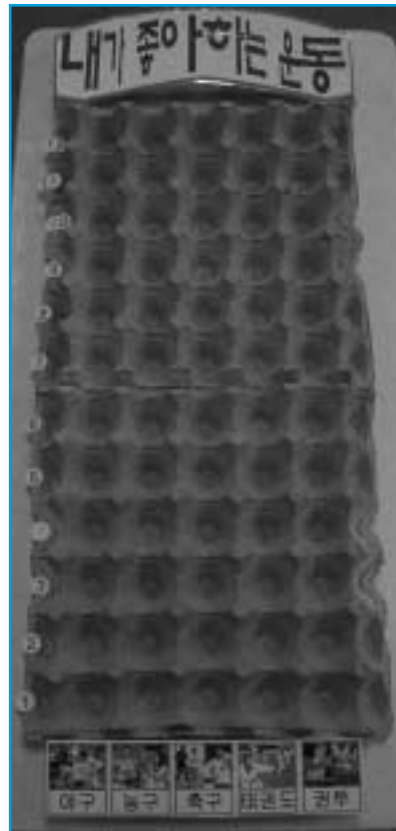
자유선택활동(수 · 조작놀이)

### 활동자료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남 · 여 각각의 사진, 그래프로 사용할 계란판, 탁구공

#### 〈만드는 방법〉

- ① 락카로 칠한 계란판 2개를 연결한다.
- ② 왼쪽에 1~12까지의 숫자를 붙인다.
- ③ 그래프 제목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위에 붙인다.
- ④ 한 칸에 남 · 여가 같은 운동을 하는 사진이 들어가도록 자료를 만들어 계란판 아래에 붙인다.







활동방법

- ① 여러 종류의 운동 사진카드를 보며 어떤 운동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사진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까?
- ② 운동경기를 본 경험을 이야기한다.
  - 이런 운동경기를 본 적이 있니?
  -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여자(남자)선수들이 경기 하는 것도 본적이 있니?
- ③ 운동을 직접 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 여기 있는 운동 중에서 너희가 해 본 운동을 찾아보자.
  - 누구와 같이 이 운동을 했니?
- ④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이야기해 본다.
  -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니?
  -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 ⑤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래프를 만들어본다.
  - 가장 좋아하는 운동 사진이 붙어있는 칸에 탁구공을 넣어보자.
- ⑥ 친구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는 어떤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니?
  -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누구누구일까?
  -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니?

추후활동

- ①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직접 해 본다(축구, 농구, 씨름 등 남자가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기 쉬운 종목).
- ② 여자 축구, 남자 체조, 혼성 스케이팅 경기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한다.



유의점

- ◎ 주로 여자(남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알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그런지 이야기해 봄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모두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가정과의 연계

- ◎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운동이나 운동선수에 대하여 조사하고, 운동에 따라 어떤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눈다.





관련 생활주제 : 〈건강한 몸과 마음〉

## 활동 17 영화 - 모자상 외 감상하기 (II)

### 활동목표

- 아기를 돌보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안다.
- 영화감상을 통하여 심미감을 기른다.

### 활동유형

조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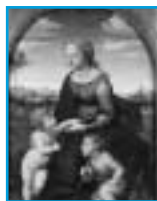
### 활동자료



영화 자료,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그림(아빠의 자장가, 글/토니 브래드맨, 그림/제이슨 커크크로프트, 출판/한국 빼아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리타의 성모』



라파엘로  
『아름다운 정원사의  
성모』



백문기  
『모자상』



제이슨 커크크로프트  
『아빠의 자장가』

『리타의 성모』, 『정원사의 성모』는 1490년, 1507년에 그려진 템페라, 유화작품입니다. 『모자상』은 백문기 선생님의 1951년 브론즈작품입니다. 6·25 사변 당시 전쟁에서 피난하는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 본능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얼굴은 작은 반면 팔은 굵고 크게 하여 아기가 완전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어머니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위의 그림은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 활동방법

- ① 명화를 보며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나눈다.
  - 이 그림에는 누가 그려져 있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모자상’ 이라는 그림이야.
  - 모자상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이 그림이라는 뜻이야.
  -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니?
  - 엄마(아이)는 누구를 보고 있니? 어떤 생각을 하며 보고 있을까?
- ② 백문기의 조각상을 보며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 나눈다.
  - 이 조각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어떤 느낌이 드니? 그림과 어떻게 다르니?
- ③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그림을 보며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나눈다.
  - 이 그림 속의 아빠와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니?
  - 아빠(아기)는 어떤 느낌일까?
  - 어떤 생각을 하며 보고 있을까?
- ④ 엄마나 아빠에게 다정하게 안겨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추후활동

- ① 자장가에 맞추어 아기를 재워보는 표현활동을 해 본다.
- ② 역할놀이 영역에 그림을 게시하여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를 업거나 재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모자상이나 부자상을 그리거나 찰흙을 이용하여 빚어본다.

### 가정과의 연계

- ① 아기 때나 현재의 자신을 돌보는 (업기, 재우기, 동화 읽어주기, 목욕시키기 등) 아빠나 엄마의 사진을 유치원에 가져오도록 하여 명화와 함께 게시한다.





관련 생활주제 : 〈건강한 몸과 마음〉

## 활동 18 자장가를 감상하고 표현하기 (II)

### 활동목표

- 아기를 돌보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자장가를 감상하고 몸으로 표현해 본다.

### 활동유형

음악활동

### 활동자료

세계 여러 나라 자장가를 부분적으로 편집한 CD(전래자장가)

(모짜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자장가 다운로드 <http://www.lovingschool.com>, 전래 자장가 CD 자미잠이, 류형선, 보림출판사)

아기를 재우고 있는 아빠 그림 책(아빠의 자장가, 글/토니 브래드맨, 그림/제이슨 커크 크로프트, 출판/한국빼아제), 아기 인형

### 활동방법

- ① 아기 인형이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교사가 아기 인형을 안고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
  -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까?
- ②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그림을 보며 엄마나 아빠가 자장가를 들려주며 재워주신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너희도 아빠나 엄마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신 적이 있니?
- 어떤 자장가인지 불러볼 수 있겠니?
- 엄마나 아빠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니?
- ④ 다양한 자장가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눈다.
  - 눈을 감고 여러 나라의 자장가를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자.
  - 우리나라의 자장가와 다른 나라의 자장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와 아빠가 부르는 자장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 엄마나 아빠께서 너희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실 때처럼 몸을 흔들며 자장가를 느껴 보면 어떨까?
  - 느낌이 어떠니?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니?
- ④ 자장가 음악을 들으면서 유아가 엄마나 아빠가 되어 아기를 재워보는 신체표현을 한다.
  - 우리가 직접 엄마 아빠가 되어 아기를 재워보자.
  - 어떻게 하면 아기가 잠이 들까?
  - 자장가를 잘 들으면서 자장가에 어울리게 아기를 재워보자.  
(자장가의 빠르기나 내용에 따라 아기를 안거나 업고 두드려 주거나 흔들어 주거나 토닥이는 표현을 한다)
  - 아기를 재워보니까 어땠어?
- ④ 두 유아가 짝을 지어 엄마(아빠)와 아기가 되어 표현해 본다.
  - 옆에 있는 친구와 짝이 되어 서로 엄마나 아빠와 아기가 되어 보자.
- ④ 활동 후에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엄마가 되어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니?
  - 아기가 되어본 사람은 느낌이 어땠니?
  - 이번엔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 오늘 밤엔 엄마나 아빠의 자장가를 들으며 자면 어떨까?
  - 내일 와서 그 느낌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자.



추후활동

- ① 음률영역에서 자장가를 감상하며 아기를 재우는 표현을 해 본다.
- ② 자장가(모짜르트, 전래 동요인 자장가)를 배운 후 직접 부르며 역할영역에서 아기를 돌보는 놀이를 해 본다.

가정과의 연계

- ①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로 불러주는 자장가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함께 불러본다.
- ② 활동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재워주시는 모습의 사진을 유치원에 가져오도록 하여 게시한다.





관련 생활주제 : 〈동물〉

## 활동 19 아빠 가시고기의 아기 사랑 (I)

### 활동목표

- 동물 중에도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을 안다.
-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하는 일을 알아본다.

### 활동유형

동화

### 활동자료



그림책 (가시고기아빠의 아기 사랑,  
글/김미영 · 그림/김희연, 출판/아이누리),  
사진 자료(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품거나 돌보는 펭귄, 에뮤, 김정망둑, 사냥하는 암사  
자: NAVER 이미지 검색)

### 활동방법

- 〈가시고기아빠의 아기 사랑〉 동화를 들려준다.
  - 이 책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를 아는 사람이 있니?  
제목에 보니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맑고 깨끗한 강 깊은 곳에 아빠 가시고기가 집을 지었어요.  
물풀과 나뭇잎으로 지은 아담하고 예쁜 집에서 아기 가시고기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아기 가시고기에게 뽀뽀를 하며 말했어요.  
“아가야!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아빠 얼굴이 따가운 것이 사랑인가요?”  
“아빠가 지금 웃으시는 것이 사랑인가요?”

“너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즐겁고, 네가 먹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고”  
“너의 잠자는 얼굴만 보아도 행복한 것, 그것이 사랑이란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포근한 아빠의 등에 누워있던 아기 가시고기는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아빠 가시고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아빠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아기 가시고기는 마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빠 가시고기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사랑을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

- 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아빠 가시고기는 왜 새 집을 지었을까?



- 아빠 가시고기는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  
그리고 얼마나 아기 가시고기를 사랑한다고 했니?
- ⊙ 가시고기의 생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죽게 된단다.  
그래서 아빠 가시고기는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고 잘 자랄 때까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새끼를 돌보다가 먹이를 먹지 못해 죽게 된단다.
- ⊙ 그림 자료를 보며 정형화된 암수의 역할이 아닌 행동을 하는 동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수컷이 알을 품거나 돌보는 펭귄, 에뮤, 검정망둑, 사냥을 하는 암사자 등.
- ⊙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너희들의 엄마와 아빠는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니?
  - 왜 그렇게 해주실까?
  - 너희 엄마와 아빠도 아빠 가시고기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 추후활동

- ⊙ 엄마와 아빠께 감사의 편지쓰기를 해 본다.
  - 엄마와 아빠께서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편지를 써보기로 하자.

#### 유의점

- ⊙ 동물의 암컷과 수컷도 다양한 성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활동한다.

#### 가정과의 연계

- ⊙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 녹음 테이프나 녹화 테이프를 유치원에 가져오도록 하여 친구들과 함께 감상함으로써 유아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5 ‘사랑하는 나의 딸(아들)에게’ 참조)



관련 생활주제 : 〈교통기관〉

## 활동 20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 (II)

### 활동목표

-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에는 남자 직업, 여자 직업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안다.
- 교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수 · 조작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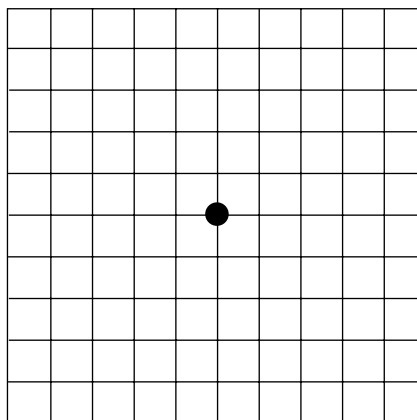
###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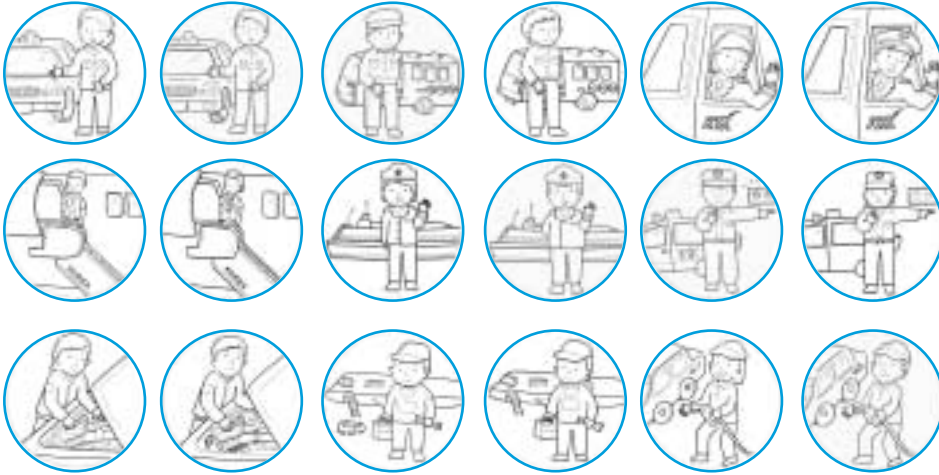


그림 자료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기관사, 승무원, 선장, 교통 경찰관, 자동차 정비사, 비행기 정비사, 주유원 등 교통기관 관련 종사자 그림으로 여자와 남자 1장씩), 삼목판

#### 〈만드는 방법〉

- ① 40cm×40cm 크기의 색하드보드지를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 ② ①에 4cm×4cm의 선을 그려 삼목판을 만들고 투명시트지로 싐다.
- ③ 지름 3.8cm의 원모양 종이에 그린 교통기관종사자의 그림을 코팅하여 1000ml 플라스틱 우유 뚜껑 안쪽에 붙인다.





#### 활동방법

- ① 교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사람은 어떤(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까?
  -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할까?
  - ○○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
  -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 될까?
  - ○○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어떤 점이 힘이 들까?
- ② 교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③ 규칙판을 보며 게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자유롭게 활동을 해본다.

#### 〈게임 방법〉

- ① 원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한다.
- ② 바둑판의 선이 십자로 만나는 곳에 말을 차례로 놓는다.
- ③ 말을 놓을 때는 말에 그려진 사람의 직업을 크게 외치면 놓는다.
- ④ 먼저 3개를 이어서 놓으면 이긴다.

#### 추후활동

- ① 삼목이 익숙해지면 사목, 오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② 그림을 뒤집어 놓고 같은 직업을 가진 남·여를 찾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관련 생활주제 : 〈도구와 기계〉

## 활동 21 손전등 조립하기 (II)

### 활동목표

- 남자와 여자 모두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도구와 기계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 활동(과학활동)

### 활동자료



건전지가 든 손전등, 모래시계, 손전등 조립 순서도, 기록표, 싸인펜

### 활동방법

- ① 손전등을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손전등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해본 적이 있니?
- ② 손전등이 켜지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손전등은 전기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불이 켜질까?
- ③ 손전등을 열어서 건전지를 꺼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건전지를 본 적이 있니?
  - 또 어떤 기계에 건전지를 사용할까?
  -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 ④ 가정에서 기계의 건전지를 바꾸는 일은 누가 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건전지를 바꿔 넣는 것을 본적이 있니?
- 우리도 손전등의 건전지를 바꿔 넣을 수 있을까?
- ④ 순서도를 보며 손전등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모래시계를 세워 놓고 손전등을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한다.
- ④ 조립이 끝난 후에 기록표에 이름을 쓰고 모래시계를 뒤집은 횟수를 적는다.

#### 추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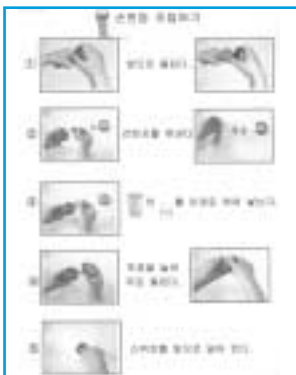
- ④ 소형 공구세트를 이용하여 기계의 나사를 분해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공구세트 놀잇감을 쌓기놀이 영역에 준비하여 정비소놀이나 수리공놀이를 해본다.

#### 유의점

- ④ 기계를 다루는 남녀의 사진을 과학영역이나 쌓기놀이 영역에 게시한다.
- ④ 조립 시간을 기록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여아의 참여를 격려한다.

#### 가정과의 연계

- ④ 가정에서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여 발표한다.





관련 생활주제 : 〈도구와 기계〉

## 활동 22 자화상 그리기 (II)

### 활동목표

- 유명한 화가 중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음을 안다.
- 세계 여러 나라 남녀 화가의 그림을 감상하고 즐긴다.
- 도구를 이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 활동(조형활동)

### 활동자료



여자와 남자 화가의 자화상(천경자, 피카소, 칼로, 고흐, 로랑생, 고갱 자화상), 연필, 지우개, CD 케이스 크기의 색지, CD 케이스



천경자



피카소



프리다 칼로

© 2004,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자화상, 1984, 서울시립미술관

© 2004, Succession Pablo Picasso-SACK(Korea) 피카소, 자화상, 1907, Prague Nation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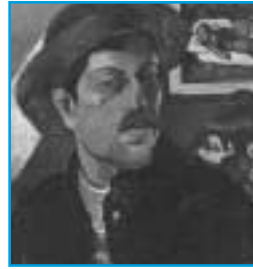
© 2004, Banco de Mexico Diego Rivera & Frida Kahlo Museum Trust, AV, Cinco de Mayo No. 2, Col. Centro. Del. Cuauhtemoc 06059, Mexico: D.F. Frida Kahlo, 자화상, 1926, 개인소장



고흐



프리다 칼로



고갱

### 활동방법

- ◎ 자화상에 대해 알아본다.
  - 자화상이 무엇인지 아니? 자화상이란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란다.
  - 그럼 화가 A가 그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
  - 그런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그렸을까?
  - 이 자화상 중에 여자 화가의 그림(남자 화가의 그림)은 몇 점일까?
- ◎ 남녀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을 감상한다.
  - 작품 B와 작품 C의 느낌은 어떠니?
  - 작품 B는 무엇으로 그린 그림일까?
  - 작품 B는 눈이 아주 크다. 정말로 화가의 눈이 저렇게 컸을까?
  - C는 눈썹까지 아주 자세히 표현했는데 무엇으로 저렇게 자세히 그렸을까?
- ◎ 화가가 그린 자화상의 눈, 코, 입 등의 표현을 친구의 얼굴과 비교해 보며 살펴본다.
  - 눈 밑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 보이니? 친구 얼굴에도 있는지 살펴보자.
  - 코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부분은 어떠니?
  - 눈 위의 선은 뭐라고 하는지 아니?
- ◎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은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해본다.
  - 얼굴을 자세히 보자.
  - 얼굴에는 무엇이 있니? 어떻게 생겼니? 모양이 어떠니?
- ◎ 얼굴을 관찰하며 자신의 자화상을 도화지에 표현한다.
  - ○○의 얼굴은 턱이 뾰족하구나. △△는 속눈썹이 아주 길구나.





- ① 완성한 자화상을 CD케이스에 넣어 전시한다.
- ②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작품과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후활동

- ① 여자와 남자 화가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의점

- ① 감상할 작품을 여자와 남자 화가의 수가 같게 준비한다.





## 자료

나혜석(1896~1948) 서양화가, 소설가, 한국 서양화가의 선구자

NAVER '자화상' 이미지 검색

천경자(1924~) 동양화가, 여인의 한과 꿈, 고독을 표현한 색채화가

NAVER '자화상' 이미지 검색

칼로(Frida Kahlo 1907~1954) 멕시코 화가

멕시코의 전통을 이어 강렬하고 화려한 색조의 그림

<http://cgfa.sunsite.dk/kahlo/index.html>

로랑생(Marie Laurencin 1883~1956) 프랑스 화가

장미빛과 청색·회색을 기조로 한 여성적 세계만을 그림

Daum '자화상' 백과이미지 검색

고희동(1886~1965) 한국인 최초로 서양화 공부, 한국 서양화가의 선구자

Daum '자화상' 백과이미지 검색

고갱(Eugene Henri Paul Gauguin 1848~1903)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타히티의 풍물에서 취제한 강렬한 화풍은 그 뒤의 회화에 큰 영향

Daum '자화상' 일반이미지 검색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파 화가

긴 선, 짧은 선, 파도 같은 곡선, 그리고 점들이 통일을 이룬 가운데 불꽃

같은 정열과 격렬한 필치와 눈부신 색채로 그려진 그림

NAVER '자화상' 이미지 검색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 1881~1973) 에스파냐 화가

회화, 조각, 석판화, 도자기, 소묘, 무대장치, 벽화, 태피스트리 등도 제작, 미술

사상 제작량이 가장 방대, 20세기 조형에 가장 큰 변혁을 일으켰던 입체파의 창

시자이며, 사실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양식

<http://cgfa.sunsite.dk/picasso/index.html>



관련 생활주제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 활동 23 나도 건축가 (II)

### 활동목표

- 여자와 남자 모두가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안다.
- 세계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감상하고 그 건물의 특징적 모양을 인식한다.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조형활동, 쌓기놀이)

### 활동자료



세계의 건축물 사진자료(영국 오페라하우스와 건축가 ‘자하 하디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설계도, 건축가인 ‘요른 웃존’, 우리나라 다보탑과 남대문, 프랑스 개선문과 에펠탑,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8절 도화지, 연필, 쌓기놀이 영역의 다양한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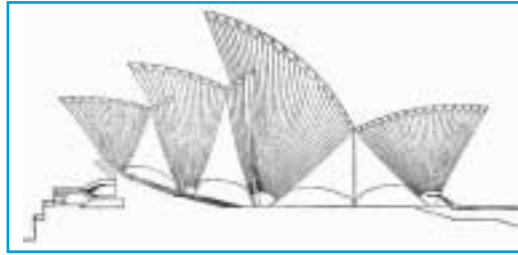


영국 오페라하우스



호주 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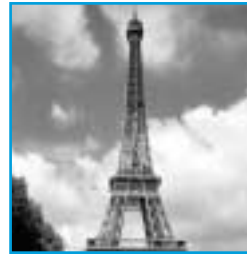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설계도



한국 다보탑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프랑스 에펠탑



한국 남대문



프랑스 개선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 활동방법

- ① 이름이 같은 두 나라의 건물(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영국의 ‘오페라하우스’)과 건축가를 소개한다.
- ②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건축물 사진을 감상하고 각각의 건물들의 특징적인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건물에는 어떤 모양이 많이 사용되었니?
  - 파르테논 신전과 개선문의 기둥 수와 모양을 비교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탑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 지붕이 뾰족한 것과 평평한 것을 찾아본다.



- ④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건축물을 선택한다.
  -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건축가가 되어볼까?
  - 너는 왜 이 건물을 선택했니? 건물의 어느 부분이 맘에 들었니?
- ④ 요른 옷존의 오페라하우스 설계도 사진을 보며 설계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무엇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계획을 종이에 미리 그려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 ④ 쌓기놀이 영역에 있는 다양한 블록의 모양을 탐색한다.
  - 연결이 가능한 블록은, 쌓기에 좋은 블록은 무엇이 있을까?
  - 뾰족한 지붕을 표현하려면, 아치모양을 표현하려면 어떤 블록이 적당할까?
  - 어떤 블록을 사용하면 다리처럼 길게 연결할 수 있을까?
- ④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그린다.
  - 건물의 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블록을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
- ④ 설계도에 따라 쌓기놀이 영역에서 자유롭게 구성해본다.
  - 설계도를 보며 건물을 구성하면서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설계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도를 수정한다.
  - 건축물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설계도와 함께 감상한다.
  - 어느 부분을 표현하는데 가장 어려웠니?

#### 추후활동

- ④ 쌓기놀이 영역의 블록으로 만든 건축물에 나라명과 이름을 붙여 ‘미니어처’ 세계를 만든 후, 인형을 가지고 세계 여행 놀이를 해 본다.
- ④ 건축물을 모방하여 구성하는 활동이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독창적 건축물을 구성하도록 격려한다.

#### 유의점

- ④ 유아가 교실에 있는 블록의 모양을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준다.
- ④ 설계도 그리기를 통하여 여아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블록으로 구성하는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가정과 연계

- 건축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 설계도를 구해서 유아가 자세히 관찰하고 더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격려한다.



#### 자료

-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 이라크 출생 건축가  
2004년 여성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Pritzker)' 수상  
NAVER '자하 하디드' 블로그 검색
- 요른 웃존(Jorn Utzond, 1918~) 덴마크 출생 건축가  
<http://blog.naver.com/philpan.do> 블로그 '내게만 들리는 소리' 건축자료실  
건축물 사진, NAVER 이미지 검색



관련 생활주제 : 〈특별한 날〉

## 활동 24 송편빚기 (I)

### 활동목표

- 차례 준비는 가족 모두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 친구와 협력하여 즐겁게 요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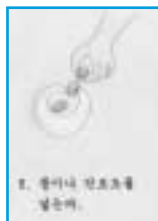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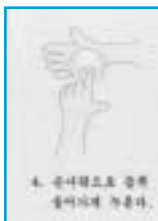
### 활동유형

자유선택활동(과학활동-요리)

### 활동자료



송편 재료(쌀가루, 뜨거운 물, 찹가루, 콩, 건포도, 참기름), 도구(찹통, 솔잎, 채반, 쟁반, 간식 접시, 휴대용 가스렌지), 요리 순서표, 다양한 송편 사진 자료





## 활동방법

- ① 추석에 먹는 특별한 음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 추석에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을까?
  - 송편을 먹어 본 적이 있니? 송편은 어떤 모양이니?
- ②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송편이 있다는 것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한다.
- ③ 송편을 빚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과 방법을 먼저 추측해 본다.
  - 송편을 빚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빚는지 이야기해 보자.
  - 송편을 빚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 ④ 재료 및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내가 추측한 생각과 비교한다.
- ⑤ 요리 순서표에 따라 송편을 만들어 본다(반죽할 때의 느낌과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모양을 이야기하며 만든다).
  - 반죽을 주무르니 어떤 느낌이 드니?
  - 어떤 모양으로 빚었니?
  - 송편을 찢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야기해 보자.
  - 다 익은 송편은 익기 전과 어떻게 다를까?
- ⑥ 송편을 맛보고, 송편을 빚으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한다.
  - 직접 빚은 송편을 먹어 보니 맛이 어떠니?
  - 송편을 빚어보니 어떤 점이 힘들었니?
  - 송편과 다른 음식을 준비하려면 엄마, 아빠는 어떠실까?
- ⑦ 추석에 집에서도 아빠, 엄마와 함께 송편을 빚어보도록 한다.

## 추후활동

- ① 차례를 지내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족이 모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유의점

- 차례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주로 여자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가정과의 연계

-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이 어떻게, 왜 일을 분담할 것인지 의논한 후에 차례 준비를 하고 유치원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24 ‘함께 추석을 준비해요’ 참조)





관련 생활주제 : 〈특별한 날〉

## 활동 25 추석에 즐겁게 지냈어요 (II)

### 활동목표

- 가족이 분담하여 명절 준비를 하면 모두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 추석의 고유한 풍속에 대해 알아본다.
- 경험과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 활동자료

유아가 추석을 지내고 가정에서 가져온 그림 및 사진 자료 등의 결과물

### 활동방법

- ◎ 추석을 지내고 와서 유아들과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추석에 송편을 빚었어요’ 하는 아이가 있니?
  - 누구와 함께 송편을 빚었니?
- ◎ 추석에는 어떤 고유한 풍속이 있는지 알아본다.
  - 추석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 ◎ 추석을 지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본다.
  - 집안 정리하기, 청소하기, 시장 보기, 음식 만들기, 제기 꺼내서 닦기 등



- ◎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일을 분담했는지 자료나 사진 등의 결과물을 보며 이야기해 본다.
  - 엄마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셨니?
  - 아빠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셨니?
  - 언니(오빠), 너는 어떤 일을 맡아서 했니?
- ◎ 역할을 분담하여 추석을 준비한 후 가족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본다.
  - 엄마(아빠, 너)는 기분이 어땠었니?
  - 엄마(아빠, 너)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누구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 ◎ 우리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려면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할지 생각해 본다.

#### 추후활동

- ◎ 가족이 함께 준비한 추석을 지낸 경험과 느낌을 동시에 표현해 본다.
- ◎ 가정에서 가져온 결과물을 전시하여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 유의점

- ◎ 명절은 즐거운 날이며 가족이 협력하여 준비할 때 엄마나 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 가정과의 연계

- ◎ 행복한 우리 가족의 추석을 주제로 유아가 공동으로 지은 동시를 가정으로 보내거나 활동 과정을 포함한 동시 자료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가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Ⅱ. 양성평등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 가정통신문

1. 양성평등 의식을 점검해 보세요. ....	122
2. 나의 몸 .....	123
3. 함께 목욕해요 .....	124
4. 내가 태어난 이야기 .....	125
5. 사랑하는 나의 딸(아들)에게 .....	126
6. 나의 놀잇감 I .....	127
7. 나의 놀잇감 II .....	128
8. 남자답게? 여자답게? .....	129
9. 울고 있는 콩쥐 .....	130
10. 분홍 딸과 파랑 아들? .....	131
11.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	132
12. 우리 집 가족회의 .....	133

13. 빨래를 함께 할까요? .....	134
14. 서로 돕는 엄마 아빠 .....	135
15. 아기하고 노는 아빠 .....	136
16. 아빠의 짐을 덜어주세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	137
17.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 .....	138
18. 엄마 아빠의 일 (직업) .....	139
19. 직업의 특성과 올바른 호칭 .....	140
20. 한국을 빛낸 사람들 .....	141
21. 우리 아이가 자라서 .....	142
22. 우리 아이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나요? .....	144
23.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운동 .....	145
24. 함께 추석을 준비해요 .....	146

## 부모회

1. 강연회 .....	148
자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49
2.토론회 .....	170
젠더체크리스트 검사 후 토론회 .....	171
자료감상 후 토론회 .....	174
주제토론회 .....	175
3. 워크숍 .....	176
책을 읽고 분석하기 / 동화와 편견 .....	178
교재 제작하기 / 도미노게임- 함께하는 놀이 .....	179
토론하기 / 생활 속의 편견들 .....	182
4. 참여수업 .....	183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	184
가족의 날 .....	185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

양성평등 의식을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께서서는 양성평등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점검해 보세요.

영역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1. 자녀가 취학 했을 때, 읽기, 쓰기 등 언어적 능력에서는 여아가 더 잘하고, 수학과 과학 등에서는 남아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2	3
	2. 딸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보다 많이, 아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록 가르치십니까?	1	2	3
여성다움 남성다움	3.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또는 남자가 그러면 되나 하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을 자주 사용 하십니까?	1	2	3
	4. 아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딸은 안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5. 아들(혹은 딸)이 딸(혹은 아들)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 치십니까?	1	2	3
진로지도	6. 딸은 장차 가정주부가, 아들은 직업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1	2	3
	7. 딸은 교사, 간호사, 비서와 같은 여성적인 직업을, 아들은 운동선수나 기술자, 과학자, 중장비 기사와 같은 남성적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1	2	3
합 계				

♣출처: 교육부(2000). 우리 딸, 아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교육부.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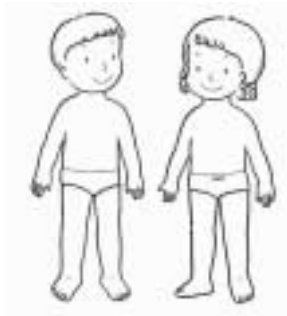
총점 14점 미만이면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며, 18점 이상이면 성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2

## 나의 몸

양성평등 교육의 시작은 자녀에게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타고난 성과 다른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남녀의 차이란 신체적 차이 일 뿐, 가치나 역할 수행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몸의 이름들을 알아보자.

소중한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녀의 신체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남자와 여자의 몸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몸(남녀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



자신의 성과 다른 성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를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할까?

남자(여자)로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3

## 함께 목욕해요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목욕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몸의 생김새는 어떤가?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나?

남자와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몸(부분별로)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남자만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수영 째기, 젖먹이기 등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나?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4

## 내가 태어난 이야기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라는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양성평등 교육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난 일을 기록한 사진첩, 비디오 등을 보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엄마 아빠의 결혼 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결혼 하게 된 이야기들.

서로에게 좋았던 점. 함께 하며 즐거웠던 이야기들.

결혼해서 새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게 된 과정을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맨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

임신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들.

내가 자랄 때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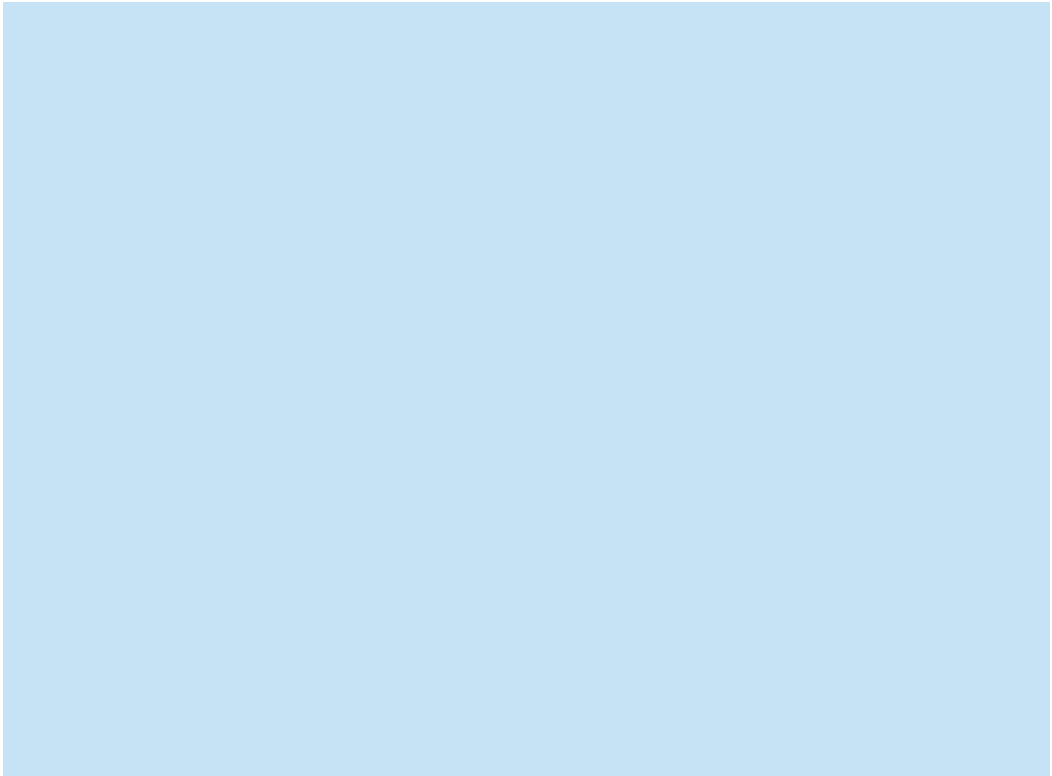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의 결혼식 장면, 임신기간 중의 엄마 모습, 신생아 때의 모습 등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VTR 자료 등을 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사진은 유치원으로 보내주세요.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5

## 사랑하는 나의 딸(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나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를 써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님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임을 알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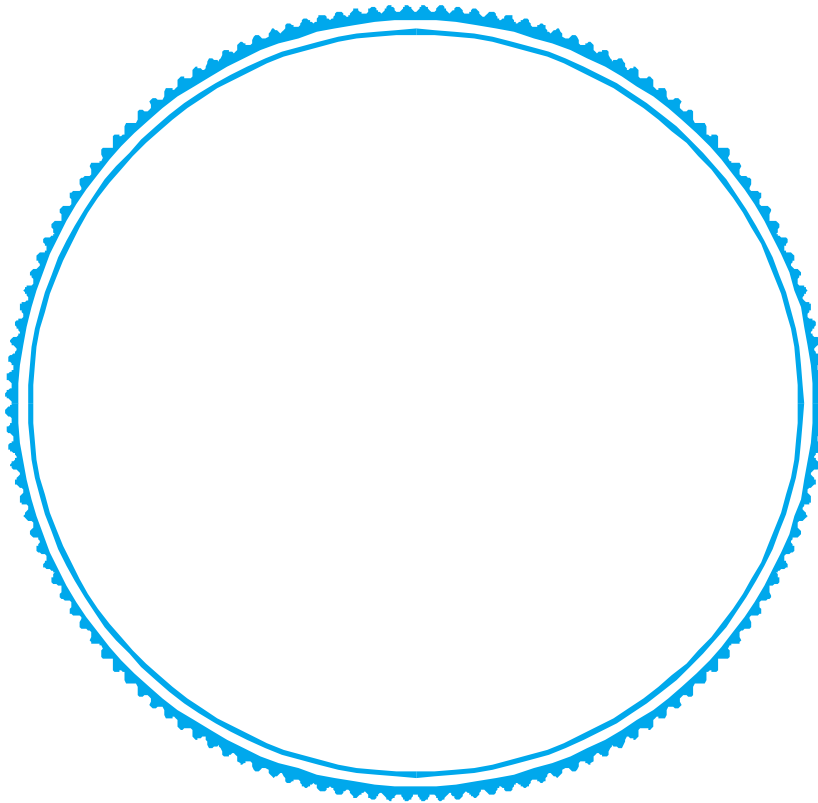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린 유아의 경우 음성녹음이나 VTR 녹화 테이프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6

## 나의 놀잇감(1)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그려 보아요.



집에 있는 유아의 놀잇감을 그려서 유치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치원에서는 놀잇감이 남아용, 여아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토론할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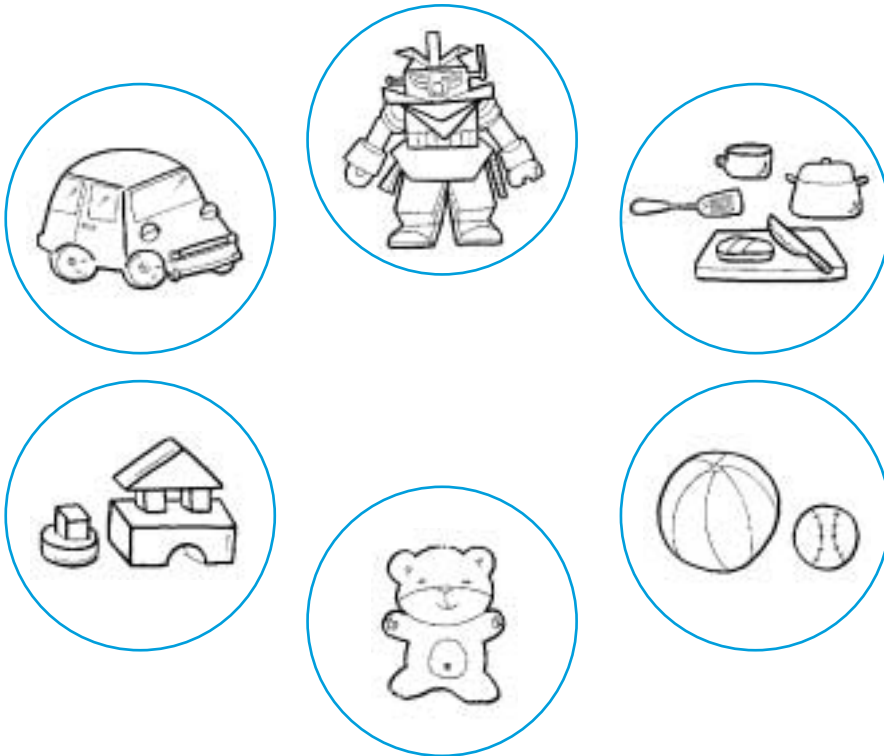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7

### 나의 놀잇감(II)

유치원에서는 나의 놀잇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자 놀잇감, 남자 놀잇감을 구분하여 사주는 것은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합니다. 자녀들이 선호하는 놀잇감을 모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놀잇감을 선택하고 자신의 성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여의 고정된 역할보다는 개개인이 남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의 놀잇감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을 하고 놀까?



남자유아도 인형을 가지고 가게놀이, 아빠놀이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여자유아도 자동차로 여행놀이, 운전놀이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8

## 남자답게? 여자답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서 혹시 성역할에 편견을 가진 말은 없을까요? ‘여자가~, 남자는~’ 하는 말 속에 자녀들에게 역할을 고정시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남자와 여자다움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어떨까요?

여자가 조심성없게  
넘어지고 그래!



⇒ 많이 아프겠구나!  
조심해야지

공주같이 예쁘게  
왕자같이 씩씩하게  
말해야지



⇒ 예의바르게  
이야기 해보자

남자애가 무슨  
인형놀이를 하니?



⇒ 인형에게  
좋은 아빠가 생겼네!

다음의 표현을 상황이나 대상에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전해지는 말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 여자 친구가 울면 남자친구가 달래줘야지.
- 여자는 이런 것 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 남자가 무슨 부엌일을 해. 고추 떨어질려구.
- 사내 녀석이 왜 울고 그래.
- 여자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 그런 것은 아빠만 할 수 있어. 아빠 오시면 해달라고 해.
- 무슨 여자애(남자애)가 꼭 남자(여자)같니.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9



### 울고 있는 콩 쥐



유치원에서 전래 동화 「콩쥐팥쥐」를 들었습니다. 「콩쥐팥쥐」는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재미있는 전래동화이지만 약한 여성의 모습을 그린 면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딸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울음으로 나약하게 해결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콩쥐팥쥐 동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콩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항아리가 깨져서 물을 담을 수 없네.  
콩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생 팥쥐가 매일 심술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0

### 분홍 딸과 파랑 아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놀잇감이나 옷을 살 때 아들인 경우 파란색을, 딸인 경우 분홍색의 물건을 선택하지는 않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선물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별을 잘못 알고 있다고 오해받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그럼 파란색은 남자의 색, 분홍색은 여자의 색이란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전통적으로 빨강색은 귀족의 색이었으며, 그런 전통은 현재의 공연장이나 호텔로비 등에 깔려진 빨간 카펫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시대에는 바닥까지 끌리는 분홍색을 입고 있는 왕자의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빨강색은 남성적인 색으로 분홍은 지배자를 나타내는 왕자의 색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 1920년대 유색유아복이 유행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에게 힘을 보여주기 위한 빨강에서 잠복, 위장의 필요성으로 자연색과 같은 계열인 파란색이 새롭게 군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복의 색깔인 파랑색이 남성의 색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남자아이에게 파란색 옷을 여자아이에게 반대색인 분홍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와 유행이 오늘날 잘못된 관례로 굳어져 남자아이에게 파란색 옷을, 여자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색채심리 연구가인 스에나가 타미씨는 색채심리라는 책에서 ‘분홍색이 여자아이의 색이라는 사회인식은 분홍색이 가진 색 감정을 여성이미지로 중첩시켜 “여자아이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파란색 역시 남자아이의 색이라는 인식으로 파란색이 갖는 느낌 즉 이성적인 이미지가 “남자아이다움”이며, 파란색이 가진 하늘이미지와 중첩시켜 남자는 여성보다 위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은 유아들의 상상력을 빼앗아가고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색의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알기도 전에 파란색은 남자의 색, 분홍색은 여자의 색으로 인식한다면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빈약한 감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에게 하늘은 파랗고 머리는 검정색이고 건물은 회색일 뿐이며, 창의력과 상상력의 열려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의 피부색이나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게 옷을 입혀주세요.

여자 또는 남자의 색으로 나누어 여자 또는 남자다움으로 키우지 말고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 있는 유아의 물건에서 색을 찾아보세요. 혹시 한 가지 색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1

##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집안일을 식구들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체크(v)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일	아빠	엄마	유아	그 외 다른 가족
1	밥, 반찬 만들기				
2	식사준비하기(상차리기)				
3	설거지하기				
4	빨래하기				
5	빨래 널기				
6	마른빨래 걷기				
7	빨래 개기				
8	다림질하기				
9	시장보기				
10	방 청소하기				
11	욕실 청소하기				
12	창고 정리하기				
13	이불개기 혹은 침대 정리				
14	쓰레기 버리기				
15	재활용품 분리				
16	꽃에 물주기				
17	세차하기				
18	전기기구 수리하기				
19	신발 정리하기				
20	신문·우유 가져오기				

- 혹시, 집안일이 한 사람(예: 주부)에게만 전담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 가장 많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해보세요.
-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 직장에 다녀온 아빠에게 너무 많은 집안일을 요구하지는 않나요?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에 다녀온 엄마가 혼자서 집안일을 하지는 않나요?
- 자녀의 성에 따라 일을 구분하여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나요?
- 앞으로 집안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2

### 우리 집 가족회의

가족회의는 식구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족의 역할을 평등하게 나누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자랄 경우,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 가정일을 나누기 위한 가족회의 회의방법 안내

##### ◆ 가족회의 내용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맡은 가정일을 이야기하고 그 동안 지내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에 대해 의논한다.

예) · 가정일은 대부분 엄마 혹은 아빠가 한다.

- 유아들이 놀이한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는다.
- 아빠는 집에 오시면 TV만 보신다.
- 엄마가 잘 놀아주시지 않는다.



##### ◆ 가족회의 지침

1. 일정한 시간을 정하세요(예: 0월 0일 저녁식사 끝난 후)
2. 유아들에게는 20 ~ 30분이 적당합니다.
3. 의논할 주제를 분명히 정합니다.
4. 모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5.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합니다.
6. 결정된 내용의 결과는 그대로 실행하고 다음 회의 때 이야기 합니다.
7. 회의가 끝나면 레크레이션,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여 즐겁게 마칩니다.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유아편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3

## 빨래를 함께 할까요?

가족회의를 해 볼까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가족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훨씬 수고가 덜어지는 것이 있겠지요? 빨래, 청소, 식탁 차리기 등 주로 엄마들이 도맡아서 담당하는 집안일들 중에서 가족이 함께 분담하면 훨씬 수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누어 하면 더 수월할지? 가족끼리 의논해 보세요. 혼자서 애쓰기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 일을 어떻게 나눌까요?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지 의논하여 이름을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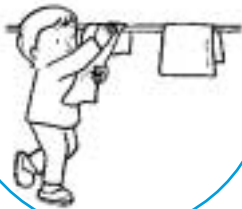
빨래 분류하기



빨래 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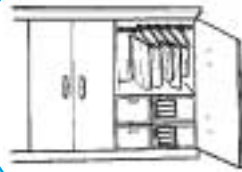
마른 빨래 걷기



빨래개기



제자리에 정리하기



또 어떤 일들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의논해보세요!

(청소, 식탁 차리기, 재활용품 분리, 신문·우유 가져오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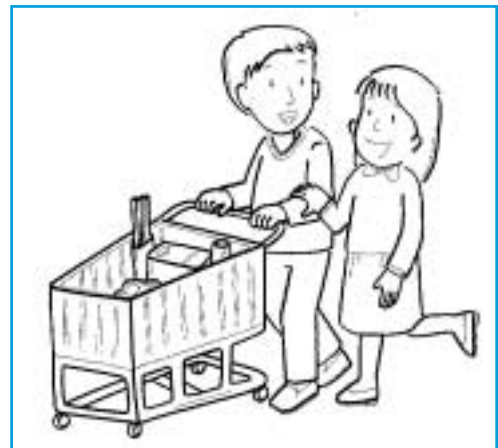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4

### 서로 돕는 엄마 아빠

유치원에서 유아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흉내 내어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돕는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모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사노동, 육아, 가정경제를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5

### 아기하고 노는 아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아프면 아직도 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역할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면 어머니가 혼자 교육 했을 때 보다 효과가 10배 더 높고 이야기 할 시간도 많아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일에는 아버지, 어머니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자녀들은 이를 보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배울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동시를 듣고 즐거웠던 때를 회상해보세요.

#### 아기하고 노는 아빠

아빠가 잔디에 벌렁 드러누워서  
두 다리 번쩍 들어 아기 태워주시네  
아빠가 일어나면 아기는 잔디로.  
아빠가 드러누면 아기는 하늘로.  
푸른 하늘 쳐다보며 오르락내리락.  
푸른 잔디 굽어보며 오르락내리락.  
아기하고 노는 아빠 번갈아가며  
아기도 되고, 아빠도 되고

♣출처: 교육부(1999), 유아를 위한 세계 이해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부.

아빠와 즐거웠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림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유아들의 이야기나누기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6

### 아빠의 짐을 덜어주세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관계란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 경계를 나누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경제·가사·자녀양육을 함께 책임지며 동료처럼 서로 돕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부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란 직업을 갖고 수입을 벌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 역할은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고정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과 가사노동을 함께 나누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사의 공동분담, 함께 하는 가족활동,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양육의 공동책임,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가족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부부간의 인격존중', '상대방의 의사 존중',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기', '동등한 의사교환'을 위해 부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 아빠의 짐을 덜어주세요.

최근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가정을 우선시 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 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들을 가족 부양의 주 책임자로 생각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질 때 고독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게 강한 모습을 기대하는 가족과 사회의 기대수준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엄마를 존중해 주세요.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여겨져왔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희생, 물질적인 제공은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직장을 가진 여성은 자녀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해 자식과 남편에게 부담을 갖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역할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7

###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

많은 유아들이 집안일은 어머니의 책임이며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만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일보다 어머니가 하는 가사의 일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 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서로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시장도 보고 집안 청소도 하며 음식도 함께 준비하면서 가정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몸소 보여주세요. 모든 일을 똑같이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정은 더욱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평등한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라는 동화를 감상합니다.

쓰찌다 요시하루(2001).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 오석균(역). 서울:계림북스쿨.



오늘부터 1주일 동안, 나는 아빠와 함께 지내요  
무슨 일일까? 예, 엄마가 바로 내 동생을 낳으셨거든요

동화를 듣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아빠(엄마)를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엄마(아빠)가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은 무엇일까?
-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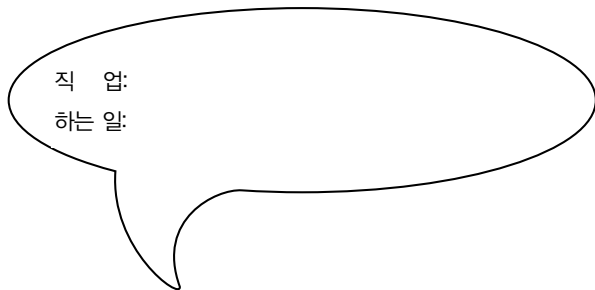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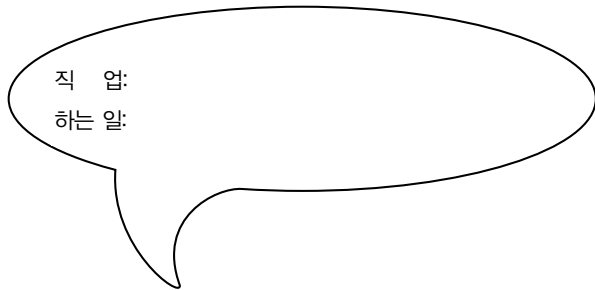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18

### 엄마 · 아빠의 일(직업)

직업이란 남자, 여자에 따라 나누어지기 보다는 성별의 구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업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직업의 한 종류이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이야기 하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보세요.



유아와 함께 활동하신 자료는 유치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유치원에서 다양한 직업종류를 이해하는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19

## 직업의 특성과 올바른 호칭

각자의 역할과 직업에 따라 부르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호칭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불러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호칭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특정 직업을 남자직업 또는 여자 직업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직업에 대한 성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앞에 고정된 성별을 붙이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 00	 남자미용사	 남자간호사	 남자디자이너	
여 00	 여의사	 여교사	 여기자	 여사장
00아저씨	 경찰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기사아저씨	
00 언니	 미용사 언니	 간호사 언니	 종업원 언니	

성별을 붙이지 말고 직업의 호칭을 사용해 보세요.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20

## 한국을 빛낸 사람들

미래 사회에는 특정분야나 개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녀간 노동의 질에는 차이가 없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육체적인 힘과 같은 물리적인 능력보다도 정보처리 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타고난 정보라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기질을 중심으로 개발 되어집니다.

다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과학자 황우석

-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소의 수정란 복제 성공
- 소 체세포 복제 성공
-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인간
- 배아줄기 세포 확립

## 발레리노 이원철

- 국립발레단
- 수석무용수

## 영화감독 이정향

- 2002년 대중상 영화제 작품상 각본상 수상
- 영화 '집으로...'
- '미술관 옆 동물원' 제작
- 2002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 성악가 조수미

- 선화예중고.
- 서울대 성악과 2년 재학중 이태리 유학
- 각종 국제 콩쿠르 입상
- 세계적인 성악가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자기의 일을 많이 사랑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21

## 우리 아이가 자라서

자녀들이 커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부모시대의 직업, 성, 고정화된 직업으로 자녀의 미래를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는 어린이들에게 500가지 직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미래 사회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예전처럼 여성 남성의 직업이 따로 있지도 않고 남들이 우러러 보는 특정 직업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왜 그 직업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 미래 사회의 직업들

정원설계사	정원, 공공녹지, 공원 등을 설계, 시공
경관기획자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풍광을 보전하며 광장이나 거리등을 설계
토피리어 디자이너	살아있는 식물을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기
브리더	애완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일
애니멀 테라피스트	동물을 이용해 자폐증 어린이나 치매, 장애인등의 재활 치료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일
동물 프로덕션	광고와 드라마, 광고 사진 등 미디어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훈련과 매니지먼트
작업치료사	병원, 재활치료센터, 노인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과 사회적응능력 회복시키는 일
리플렉소로지스트	반사(reflex)와 학(ology)의 합성어, 반사요법을 시술하는 일
MR(의학정보 담당자)	Medical Representative의 약칭.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의 성분과 사용법,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직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장기이식 과정에서 검사준비, 이식팀과의 연락, 장기운반 등의 일정관리를 담당
불꽃놀이 전문가	불꽃을 제조하고 쏘아 올리는 일
기업가치 평가사	기업간 전략적 제휴나 합병 시 기업들의 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해 주는 전문 인력
프라이빗 뱅커	은행 등 주로 금융권에 근무하여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유아 리트믹 지도원	음악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리듬감과 집중력, 창조력 등을 길러주는 일



캐스팅 디렉터	영화, 연극 등 각종 분야에서 대본에 알맞은 배우들을 골라내고 오디션을 실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
액션 슈퍼 바이저	싸움, 살인, 난투 장면 등을 찍을 때 배우들의 액션을 지도, 촬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하며 액션 장면 전체의 계획을 감독과 함께 세우는 일
캐스터	보도 프로그램과 정보 프로그램의 사회자
메디컬 스태프	운동선수의 건강관리를 위한 트레이닝 담당
건강관리 지도자	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는 물론 체력분석까지 담당
파크레인저	공원관리인. 국립공원의 순찰을 담당하는 국립공원경찰이 대표적
테마파크 디자이너	놀이공원의 각종 시설을 설계하는 직업
해외생활 컨설턴트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일
국제회의 기획진행자	컨벤션,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등 다양한 국제회의의 기획에서부터 일정과 장소의 조정, 프로그램 내용, 회의 운영 등을 담당
테크니컬 라이터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적인 글 작성-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정리, 설명서 작성 등
교통연구원	도시 교통 체계 및 지역 교통망의 계획, 운영 등에 관해 연구
범죄 연구원	범죄 전반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를 통하여 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연구
비애 치료사	가족의 죽음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슬픔을 딛고 다시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맥주 마이스터	손맛을 살린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일
조향사	꽃이나 풀, 동물의 분비물 등에서 추출한 향을 섞어서 오리지널 향수나 오데 코롱을 만드는 일
안경코디네이터	개개인의 얼굴 특성에 맞는 안경을 추천, 제작하는 일
개인이미지 컨설턴트	모든 분야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일
가이드 헬퍼	중증 장애인이나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외출을 도와주는 일
케어 복지사	타인이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출처: 무라카미 류(2004). 13세의 첼로워크. 이레.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22

## 우리 아이는 무슨 놀이를 좋아 하나요?

자녀가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하여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직업에 대한 추천은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자녀의 성격에 잘 맞고 흥미를 가지며 그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린시기의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살펴보세요.

### 좋아하는 놀이와 직업

<p>동물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간호사</li> <li>▶애니멀 테라피스트 :동물을 이용한 장애인 재활치료</li> <li>▶장제사 :말의 발굽을 정비하고 편자달기</li> <li>▶동물 프로덕션 :동물미디어메니지먼트</li> </ul>	<p>만들기가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공예 기능사 :보석디자인 :건축설계 :금속공예품</li> <li>▶기계설계사</li> <li>▶자동차 디자이너</li> <li>▶프라모델 제작 :프라모델 모형이나 상품 기획, 개발</li> </ul>
<p>스포츠가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 스포츠 선수 :각 종목별 프로 선수</li> <li>▶메디컬 스태프 :운동선수의 건강관리를 위한 트레이닝 담당</li> <li>▶스포츠 기고가 :신문이나 잡지에 스포츠에 관한 칼럼쓰기</li> <li>▶스포츠클럽 트레이너 :회원에게 맞는 운동을 제안, 지도</li> </ul>	<p>음악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션맨 :가수, 밴드가 녹음할 때 공연을 할 때 반주 담당</li> <li>▶코레페티토어 :오페라에서 피아노 반주</li> <li>▶유아 리드믹 지도원 :음악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리듬감 및 집중력, 창조력을 길러주는 일</li> <li>▶음악 저작권 관리 :작곡가의 저작권 관리</li> </ul>
<p>멋내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일리스트 :촬영 코디네이트</li> <li>▶조향사 :자연에서 추출한 향으로 향수 제작</li> <li>▶개인 이미지 컨설턴트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관리 해주기</li> </ul>	<p>타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의 외양 디자인</li> <li>▶레이싱팀 정비사 :레이싱카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사</li> <li>▶항공관제사</li> <li>▶테마파크 디자이너 :놀이공원의 시설 설계</li> </ul>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23

###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운동

유치원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참여하는 신나는 운동회! 운동회에서 함께 하고 싶은 운동, 가족들이 좋아하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식구는 어떤 운동을 좋아 할까?



의논하신 자료는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행사인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의 준비 자료로 사용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24

### 함께 추석을 준비해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부들이 명절 즈음에 느끼게 되는 부담과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아직도 명절 준비는 주부의 몫으로 인식되어 있나요? 명절은 모두 다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물론 명절 준비도 즐거워야하겠지요. 이번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로 만들어 보세요.

#### 추석에 하는 일 알아보기

✱ 추석명절에 하는 일들을 이야기 해 보세요.

- 손님맞이 청소하기
- 성묘하기
- 송편 만들기
- 차례준비하기
- 웃어른께 인사가기 등

#### 일을 어떻게 나눌까요?

✱ 추석준비를 위한 일 들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하면 좋을지 의논해보세요

성묘 갈 때 운전하기



시장보기



청소하기



차례제기 닦기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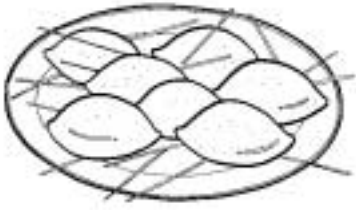
\_\_\_\_\_

\_\_\_\_\_



### 송편 만들기

유치원에서 추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송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유아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어 보세요.

### 추석 지낸 이야기

- 추석명절을 지내면서 함께 준비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힘들었던 점, 함께 해서 좋았던 점등에 대해 서로에게 격려해주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명절에 친척집으로 갔거나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경우 그에 따른 가족들의 역할분담을 의논하고 시간을 보내신 후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며 진행했던 결과물을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유아와 함께 추석을 지낸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강연회

유치원의 원장이나 담임교사가 부모들에게 양성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의를 통해 전달 할 수 있다. 가정과 연계된 양성평등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기초에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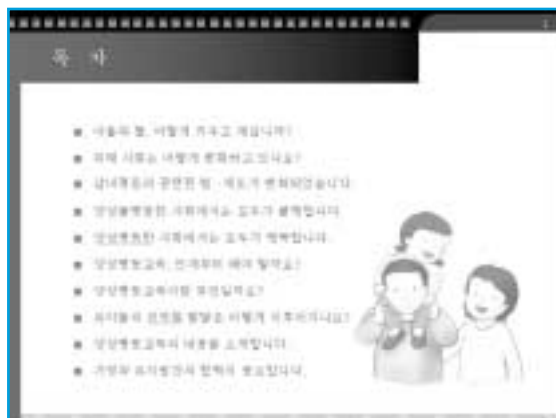
## 강연회 자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본 강연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모강연회의 주제는 <자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본 강연회를 준비한 목적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함입니다. 본 강연회를 통해 현재 부모님 자신의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도 살펴보고, 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강연회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쪽 - 아들과 딸,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율로 인해 1~2명의 자녀만 있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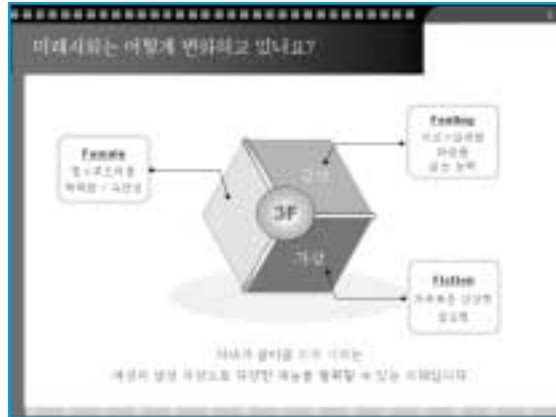
따라서 예전보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딸 구별없이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각자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님께서 갖는 기대치는 조금 다릅니다. 가령 아들에게는 강하고, 책임감 있고, 용감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 때는 “남자는 울면 안돼”라는 말을 곧잘 하기도 합니다. **반면 딸에게는 얌전하고, 예쁘고, 순종적이며, 세심하고, 다소곳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는 주로 움직임이 많은 놀이를 시키거나 이에 관련된 장난감을 사주고, 딸에게는 미술이나 소꿉놀이와 같은 정적인 놀이를 시키거나 활동성이 좋은 옷보다는 예쁜 옷을 먼저 사줍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딸에게는 집안일을 도울 것을, 아들에게는 은근히 부모를 부양하기를 기대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아들인가 딸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는 않습니까? (부모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여 양성평등의식을 점검해본다 -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참조)



### 3쪽 -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인식이나 사고들이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에 앞서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21세기를 여성(Femal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이라는 이른바 3F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물리적 힘이나 딱딱함보다는 부드러움과 유연성, 지성보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섬세함과 감성, 현실에서 상상력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가상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여성이 남성 이상으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로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기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4쪽 -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들은 여성이 성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당당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평등,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법’**에서는 아들과 딸의 재산상속분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으며,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동등한 자녀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도 교육,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을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차별적으로 키우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며 자녀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시켜주지 못합니다.



## 5쪽 - 양성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럼 양성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불행할까요?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양성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사를 잘 돌보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여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여성은 직장일과 가사 모두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일과 가사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스스로 가정의 소홀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들을 가족 부양의 주책임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인간이기에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질 때 고독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가정을 위해 일하지만 자식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여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성은 가족부양,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이분화된 사회에서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 6쪽 - 양성평등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 그렇다면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선 남성들은 자신 혼자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진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 역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일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들의 사회적 행동을 제약했던 많은 인식들이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운영해나갈 때 그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구의 절반인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게 되므로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사회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가 소중하며 동등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 7쪽 - 양성평등교육,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양성평등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양성평등은 인간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 이기 때문에 **성역할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들이 주변의 가까운 성인의 말과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실시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남아는 소꿉놀이에서도 청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보기 및 집안일을 혼자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여아 역시 소꿉놀이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당연히 자신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협동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도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잘못된 직업적 기대나 편견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8쪽 - 양성평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이란 '남녀를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기질 등이 다른데 어떻게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남녀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은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어 바뀌지 않는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말합니다. 반면 **사회학적 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녀의 성역할 및 책임의 차이를 말합니다. 흔히 생물학적 차이가 남녀의 기대역할이나 사회적 지위 및 능력의 차이를 만드는데, 가령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노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 9쪽 -양성평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만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만으로 남녀의 역할을 나눈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남녀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는 ‘**뉴기니아 세부족의 남성과 여성의 기질과 역할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결과에 의하면 참불리족은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남성은 수동적이고 예술적이며 섬세할 뿐더러 몸치장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아라페쉬족은 남성과 여성의 기질 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모두 온화하고 협조적이며 자녀양육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반면 먼더거머족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거칠고 폭력적이며 서로 경쟁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녀역할의 차이**는 생물학적, 본래적이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이나 환경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 10쪽 - 양성평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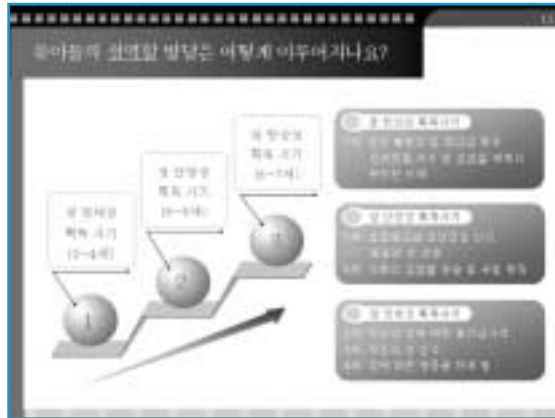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교육이란 남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차별적 태도 없이 남녀 모두에게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계발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회의 평등**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남녀 모두에게 직업이나 교육, 정치참여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열려있는 기회에 다가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조건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조건을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동등한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남녀 모두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주면서 동시에 학교에 가서 남녀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이란 남녀 모두 학교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역시 평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볼 때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11쪽 - 유아들의 성역할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아들의 성역할 발달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① 성정체성 획득시기 (2~4세)
- ② 성안정성 획득시기 (5~6세)
- ③ 성향상성 획득시기 (6~7세)

각 발달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① 성정체성 획득시기 (2~4세)

유아들은 2세가 되면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체가 하는 일이나 생식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3세가 되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게 되며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새를 보고 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편견, 느낌, 생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3세 말기에는 선호하는 장난감이 달라지고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4세가 되면 유아들은 성인의 중재 없이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성에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 ② 성안정성 획득시기 (5~6세)

5세가 되면 유아들은 성 정체성과 성 안정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아들은 자신이 여아면 여성으로, 남아면 남성으로 자라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성을 선호하며, 긍정적인 것은 자신의 성으로 부정적인 것은 다른 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후 6세가 되면 유아들은 사회가 원하는 성역할 관습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시기 유아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성역할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획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③ 성향상성 획득시기 (6~7세)

7세가 되면 유아들은 사람의 성이란 머리모양이나 의상으로 겉모습을 바꾸더라도 불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특정 장난감이나 직업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특정 성과 관련이 있다는 성유형화된 지식과 성역할 범주체계를 완전하게 습득하게 됩니다. 가령 청소, 빨래, 요리는 여자의 일이고 기계나 도구를 만지는 일은 남자의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알게 되며 이러한 틀 속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처럼 유아들은 태어날 때는 남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며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들이 보여주는 남녀에 따른 성역할을 모방하거나 혹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획득하게 됩니다.



## 12쪽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녀에 대한 고정화된 성역할 기대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 및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이를 교육 내용별로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남녀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 ② 직업에서의 평등의식
- ③ 가정에서 평등한 성역할
- ④ 평등한 놀이 장려
- ⑤ 성차별에 대한 비판과 대응능력

양성평등교육의 시작은 자녀에게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타고난 성과 다른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내용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아들이 남녀의 차이란 신체적 차이일 뿐, 가치나 역할 수행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으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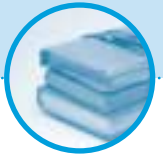
## 13쪽 -남녀신체특성 알기 및 다른 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



**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유아기에는 남녀 신체 및 생식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이때 부모님이 당황하여 대충 얼버무리거나 답변을 안 해주면 유아들은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학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긍정적 태도로 알려주어 유아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남녀의 신체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아들은 눈에 보이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때는 남녀의 신체에 관한 책을 함께 보면서 각 신체 부위의 올바른 명칭에 대해 알려주시고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중요한 점은 남녀의 몸의 모양은 다르지만 남녀 모두 몸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남녀 똑같이 자아존중감을 보이나, 고등학교에 이르면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반면 여학생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태어나길 더 선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능력보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제약받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남녀차이보다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건전한 성 의식과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14쪽 -직업에서의 평등의식



**직업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의 흥미나 소질, 적성을 잘 관찰하여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이라면 활동적인 직업을 추천해 줄 수 있으며, 섬세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녔다면 그 섬세함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직종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래에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자녀가 원하는 직업과 왜 그 직업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자녀의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고 느껴지면 미래에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에 대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남성 직업(운동선수, 군인 등) 혹은 여성 직업(무용가, 간호사 등)이라 인식되었던 분야를 개척하여 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 이야기 해보세요.

**직업에 올바른 호칭을 붙임으로 양성평등한 직업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직업을 설명하면서 특정 직업에 아저씨, 아주머니, 여자 등의 호칭을 붙이지는 않는지요? 가령 경찰관을 경찰관 아저씨, 간호사를 간호사 언니, 의사를 여의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특정 직업을 남자직업 혹은 여자직업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직업에 대한 성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호칭을 쓸 때 아저씨, 언니, 여자, 남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15쪽 -가정에서 평등한 성역할



**동등하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가족회의를 해보세요.** 자녀들이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간의 일에 대해 서로 생각해보고,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토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 자녀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가족회의를 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의 일을 협력하고 의논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많은 유아들이 집안일은 어머니의 책임이며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만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일보다 어머니가 하는 가사의 일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사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시장도 보고, 청소도 하며, 음식도 함께 준비하면서 가정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몸소 보여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아프면 아직도 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많이 받은 자녀가 어머니가 교육했을 때보다 효과가 10배 더 높다고 합니다. 자녀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울 것입니다.



## 16쪽 -평등한 놀이장려



유아들은 어린 시기부터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느낌 등을 통해 특정 성에 어울리는 장난감과 놀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간혹 인형을 좋아하는 남아는 주변 눈치를 보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블럭이나 자동차 등을 좋아하는 여아는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놀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들, 딸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양한 놀이경험을 제공해주세요.

**자녀의 성격과 기질을 고려하여 활동을 선택합니다.** 유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 및 성향을 타고나며 부모는 이를 잘 관찰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령 매우 동적이고 활발한 딸을 두셨다면 정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기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이나 장난감을 제공해 줍시다. 또한 취미활동을 선택할 때에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줍니다. 부모님 스스로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가령 태권도나 운동은 남아에게, 발레나 무용은 여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관심사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영역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시켜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남아들은 블럭이나 운동놀이를 좋아하고 여아들은 소꿉놀이나 미술활동 등을 좋아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남



녀간에 선호하는 놀이형태는 차이가 나지만, 이는 유아들의 성별보다는 얼마나 놀이경험을 충분히 하였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블록이나 운동을 격려 받고 자란 남아들은 이러한 놀이를 경험하지 못한 여아들보다 더 높은 성취와 흥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딸 구별없이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자녀들은 자신에게 맞는 놀이를 발견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하고 싶다면 여자도 농구, 축구, 블록 놀이를 할 수 있고 남자도 소꿉놀이, 아기놀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경험을 통해 양성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주장을 잘하면서 동시에 양보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감정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이 한 사람 안에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성을 가진 사람은 외부 자극에 대해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양성성을 가진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지능, 성취동기, 창의성을 갖고 있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양성성을 갖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령 딸에게는 적극적으로 운동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순발력과 지구력 강화를 통한 체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17쪽 -성차별에 대한 비판과 대응능력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을 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해주십시오.** 간혹 아들에게는 ‘울면 안된다’ ‘씩씩하고 용감해서 좋다’ 는 말을 하고 딸에게는 ‘얌전해서 너무 이쁘다’ ‘여자는 덤벙대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성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흔히 남성은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늠름하고 자유분방한 묘사되며 여성은 아름답고 착하고 다소곳하고 수줍은 이미지로 묘사되곤 합니다. 부모님 스스로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자녀에게 ‘여자가’ 또는 ‘남자다운’ 이라는 말 대신에 ‘인간다운’ 혹은 ‘사람다운’ 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친숙한 동화 속에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니다.**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화(예: 백설공주, 신데렐라)를 보면 왜곡된 성역할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동화 속에서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전형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에 의해 구원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자녀와 동화책 속에 남녀 주인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자녀가 책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8쪽 - 가정과 유치원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유치원과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폭넓게 잔존하고 있어 교사나 부모들도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하는 양성평등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시도되고 연계된다면 유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은 비단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부모님께서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정된 성역할 개념을 탈피하여 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고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부모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또 부모 자신의 삶이 바뀌면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즐거운 삶은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 19쪽 - 우리 모두 하나같이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시를 같이 보면서 강연회를 끝맺으려 합니다. 이 시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수상작입니다.

### 우리 모두 하나같이 - 대구 용계초등학교 6학년 황수정

강아지  
송아지  
땅아지  
도야지  
병아리  
갓난아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

아빠만 있었다면  
저 하늘빛을 보았을까요?  
엄마만 있었다면  
눈부신 햇볕 속에서 마구 뛰놀고,  
목청껏 외치고  
조잘거릴 수 있었을까요?

땅이 하늘을 우러르듯  
하늘이 땅을 어루만지듯  
암술 수술 꽃가루받이 끝에  
가지마다 소담한 열매  
주렁주렁 매달리듯

강아지  
송아지  
땅아지  
도야지  
병아리  
갓난아기들의 아빠, 엄마  
서로 다정스레 입맞춤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꿈의 씨앗이 꿈지락꿈지락  
싹틔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젠  
계집아이니 사내아이니 하고  
더는 따지며 편가르지 마세요.

높푸른 저 하늘 아래  
눈부신 햇볕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어여쁘디 어여쁘고  
우리 모두 하나같이  
지혜로울 테니까요.



## 토론회

토론회는 현대 부모들에게 적합한 부모회의 한 유형으로, 부모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조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부모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구축 하도록 돕는다





## 젠더 체크리스트 검사 후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부모들이 젠더 체크리스트(Gender Checklist)를 작성한 후 결과에 대해 토론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성 평등 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Gender Checklist는 일본의 미에현 여성센터가 여러 해에 걸쳐 남녀평등의식 조사를 실시사후 수정 검토하여 1999년에 만든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① 일상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남녀평등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 제반 생활영역에 있어 나의 성역할의식을 알아본다.
  - 나의 성역할의식 중 가장 편견적인 생활영역을 알아본다.
  - 나의 남녀평등의식과 실천상의 차이를 알아본다.
- ②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 나타나는 성역할 양상과 관련하여 나와 타인의 태도 및 성별차이를 이해한다.
  - 제반 생활영역에서의 성역할의식에 대한 나와 타인의 차이를 알아본다.
  - 성역할의식은 개인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③ 그룹별 종합을 통하여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성역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활동방법

- ①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에 토론회의 내용을 알리고 참석자를 확인한다.
- ② 참석자들은 한 그룹 당 5-6명씩의 인원으로 그룹을 구성한다.
- ③ **젠더체크리스트** 검사를 실시한다.
- ④ 젠더체크리스트 결과에 의한 **개별 활동 종합평가표**를 확인한다.
- ⑤ 개인의 평가표를 보고 그룹의 구성원들과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 젠더 체크리스트 (Gender-Checklist)

<p>성 별(남·여) 연령층(20대·30대·40대· 50대·60대·70대) 거주지( )</p>	<p>젠더(Gender)란, 생물학적인 성차가 아닌 사회적·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여성다움·남성다움」을 일컫습니다. 이 검사도구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남녀의 현실에 눈을 돌리고,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예」라든가 「아니오」를 ○ 또는 □ 안에 표시하십시오. 편안하게, 정직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b>A. 가족관계</b></p> <p>배우자와는 대등합니까?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남편이 결정한다. □ 2. 처자를 부양하는 것은 남자의 보람이다. ○ 3.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 4. 자산(저축이나 집, 보험 등)은 남편명이다. □ 5. 아내는 남편의 문중에 뼈를 묻는다. ○</p> <p>「예」라고 한 수는 몇 개(몇 점)입니까? 그 수를 ○와 □로 구분해주세요. ○는 의식을, □는 실천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이하 같은 식으로 체크해주세요.</p> <p>A 「예」의 합계 ( )점</p>	<p><b>C. 육아</b></p> <p>자녀양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여아는 안전하게, 남아는 씩씩하게 키운다. ○ 2. 아버지는 유사시에만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 3.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자니까」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나와 버린다. □ 4. 여아는 디자인이라든가 귀여움성, 남아는 기능성이나 단순성을 기준으로 옷을 고른다. □ 5. 남아보다 여아의 말 사용법에 관심을 두고 엄하게 주의한다. □</p> <p>C 「예」의 합계 ( )점</p>	<p><b>E. 직장가 가정</b></p> <p>직장과 가정의 조화는?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게 좋다. ○ 2. 직업을 갖으려면, 가정 쪽을 잊을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 3. 자녀가 어릴 동안은,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지 않는 편이 좋다. ○ 4. 남성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5. 여성이 직업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고민하면, 「무리 하지 말고 퇴직하라」고 권한다. ○</p> <p>모두 의식에 관한 항목입니다.</p> <p>E 「예」의 합계 ( )점</p>
<p><b>B. 집안일</b></p> <p>남성도 집안일을 합니까? 「아니오」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차(茶)는 스스로 준비한다. □ 2.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고 있다. □ 3. 아내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집을 비운 채 외출할 수 있다. □ 4. 간단한 식사 정도는 스스로 마련한다. □ 5. 필요에 따라 세탁이나 청소를 한다. □</p> <p>이 분야는 「아니오」의 수를 체크합니다. 모두 실행에 대한 항목입니다.</p> <p>B 「아니오」의 합계 ( )점</p>	<p><b>D. 간호</b></p> <p>누가 누구를 위하여? 돌보기와 간호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결혼한 남성이 집안일이나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해진다. ○ 2.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할 수 없다. ○ 3. 식사·대소변 등 노부모시중을 남성이 들기는 어렵다. ○ 4. 식사나 손님 접대역은 언제나 여성이다. □ 5. 부모가 쓰러지면, 여성(딸이나 며느리)이 간호하는 편이다. ○</p> <p>D 「예」의 합계 ( )점</p>	<p><b>F. 여가·사회활동</b></p> <p>여가나 휴일은 누구를 위해?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p>1. 데이트비용은 언제나 남성이 부담한다. □ 2.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아내)은 오히려 바쁘다. □ 3. 남성(남편)은 휴일에도 취미라든가 직장 동료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 □ 4. 남성(남편)은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지 않다. □ 5. 지역 활동·자원 활동은 여성 쪽이 적합하다. ○</p> <p>F 「예」의 합계 ( )점</p>



## 젠더체크리스트에 의한 개별 활동 종합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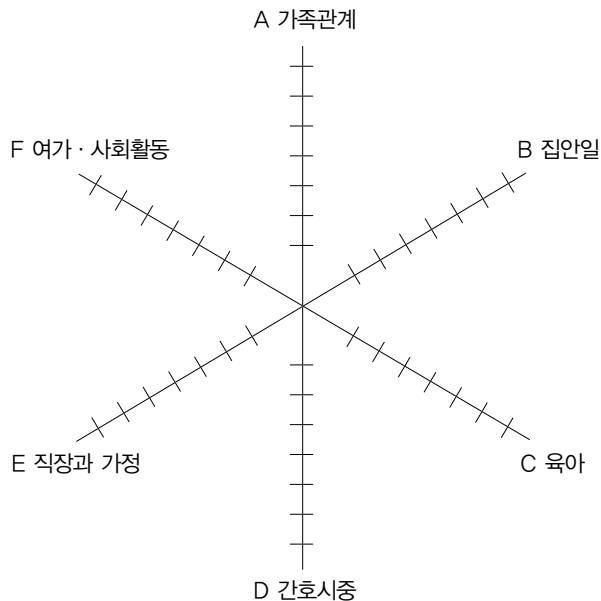
### 종합평가

자, 귀하의 성 인지도는 어떨까요?

우선, A~F까지 합계 점을 내서, 이하의 사항을 참고로 해보세요.

- ▶ 16 ~ 30점      성별에 꽤 얽매어있군요.  
한 번 더 일상생활을 다시 살펴보세요.
- ▶ 6 ~ 15점      의외의 구석에서 성별에 구애받는군요.  
남녀평등을 지향하세요.
- ▶ 0 ~ 5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활달하시군요.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발휘해보세요.

다음으로, 레이더-차트에 각 분야의 점수를 기입하고,  
편향성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상이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실천의 차이(Gap)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 의식의 수, □ 실태의 수를 각각 합계해보세요. 어느 쪽의 점수가 높습니까?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높을수록 젠더에 매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의식은 젠더로부터 해방되어 있을까요? 또한 남녀 평등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의식과 실태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 자료 감상 후 토론회

양성평등에 관련한 서적이거나 만화, VTR, 영화 등의 자료를 함께 감상한 후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회를 진행 한다.

### 만화 감상 후 토론회의 예

아래의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토론했다.



♣ 출처: 요시무라 아케미(1998). 바다보다 깊게, 한국 대원씨아이.

-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자신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떤 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 어떤 환경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 토론했다.
- 자녀가 가져야 할 양성평등 의식과 그것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주제 토론회

주제를 정하고 그룹을 나누어 토론한다. 이때 토론의 진행은 학급담임뿐 아니라 학부모의 한 사람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토론회 주제의 예

- 우리 가정의 양성평등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 가족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어 있나?
-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대는 무엇인가?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중성  
: 필요할 때는 평등(동일함) 주장, 불리할 때는 차이(다름 혹은 보호)를 주장한 적은 없나?
- 우리 아이의 양성평등 의식은 어떻게 길러주고 있나?

- 토론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좌석배치와 그룹구성을 조절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다.
- 부모토론회는 토론회를 위한 자리를 따로 계획하여 진행하거나 수업공개, 수업참여, 부모회, 강연회 등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부모프로그램’에 참석한 이후 시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



## 워크숍

워크숍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진행 방법을 이해하고 자료의 활용 및 상호작용 기술을 익힘으로써 양성평등 교육의 실행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교육활동과 주제를 같이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진행방법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부모 참여 워크숍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한다.
- 가정통신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일정을 안내하고 미리 참석여부를 묻는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각 그룹 당 20-30분 정도 활동을 진행한 후, 로테이션으로 진행하여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을 끝낸 후 그룹별로 혹은 전체 참석인원이 모여 워크숍 내용과 소감 등에 대해 토의한다.
- 부모님들이 개별 평가서를 작성한 후 귀가한다.

### 유의사항

- 교사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부모들이 각각의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활동 진행 시간과 참여인원 그룹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알린다.
-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 워크숍의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여 참석하는 부모의 수를 알아두면 자료준비 및 기타 행사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다.
- 방과 후에 실시하므로 여러 반의 교사가 워크숍 주제를 한 부분씩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일 진행을 위해 교사들은 함께 회의 과정을 여러번 거쳐 준비물, 시간 배정, 역할 담당,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토론 한다.
- 워크숍을 단독 부모회로 진행하거나, 강연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먼저 진행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인식한 후, 후속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1일 워크숍 사례

세 개의 활동을 세 그룹(8~10명 정도)으로 나누어 한 활동에 30분 정도씩 진행하고 부모들이 3영역의 활동에 모두 참여한다.

### 활동1: 책을 읽고 분석하기

## 동화와 편견

부모들이 유아들이 보는 동화책의 내용을 보고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을 점검하고 함께 토론한다.

- 교실에 있는 유아들의 동화책을 찾아 읽어보고 내용을 회상한다.  
동화책의 예: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 내용 중에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을 지닌 내용을 찾아본다.  
“여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누군가가 돕는다.”  
“아빠들은 새어머니를 맞이하면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곤경에 빠진 여자를 돕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다”  
“여자들이 항상 간교한 꾀를 쓰는 악역을 담당한다”
- 찾아낸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눈다.
- 다른 동화(또는 부모들이 본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도 편견의 내용을 찾아본다.
- 편견의 영역이 포함된 동화를 들었을 때 유아들이 갖게 될 편견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 양성평등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동화를 소개한다(부록 참조).
- 가정에 있는 책들을 자녀와 함께 읽고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다.



## 활동2: 교재 제작하기

### 도미노 게임 : 함께 하는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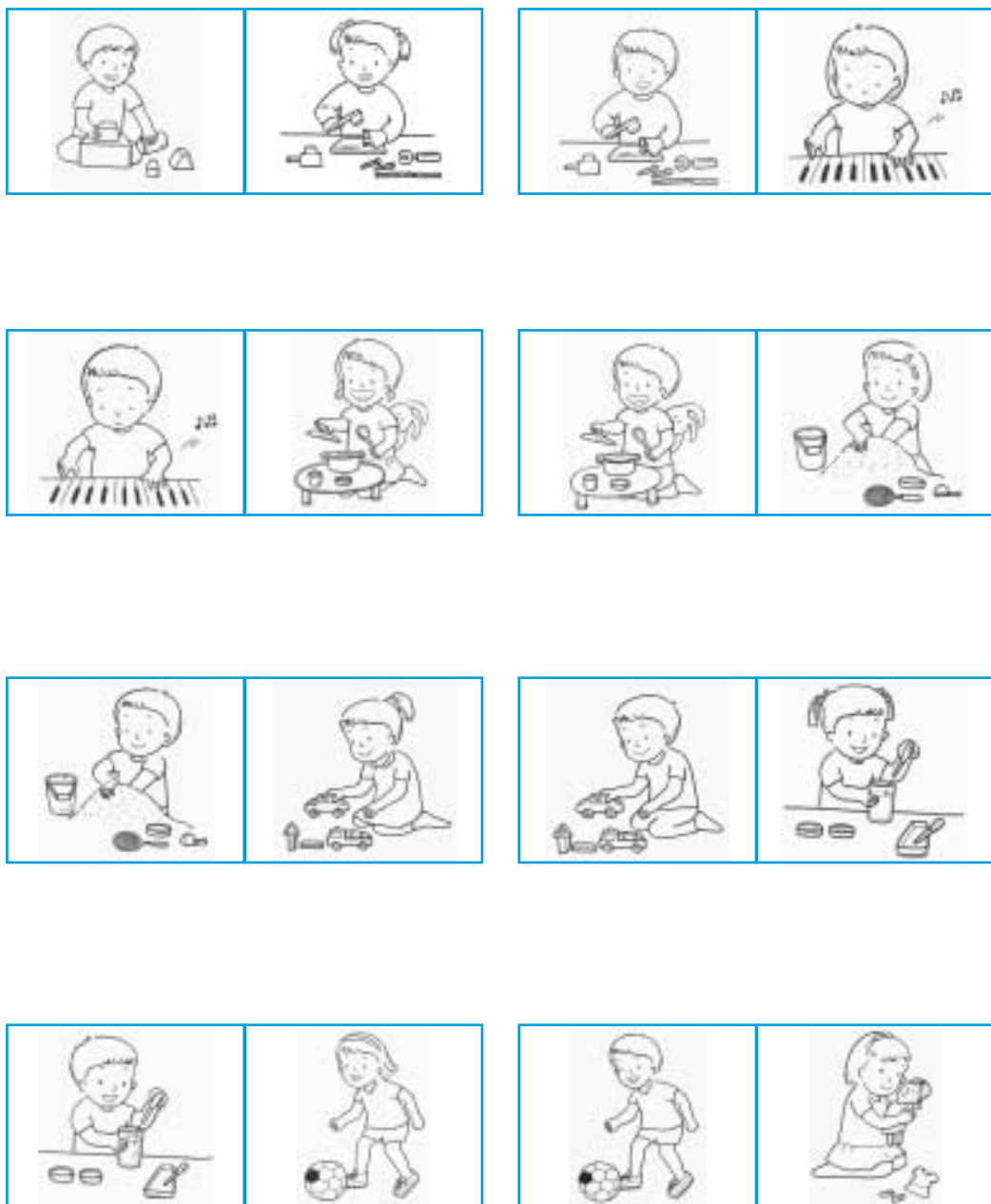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직접 제작해 보면서 양성평등교육의 내용과 유아와의 활동 방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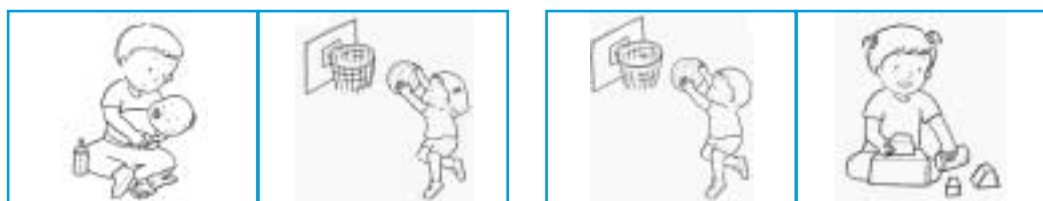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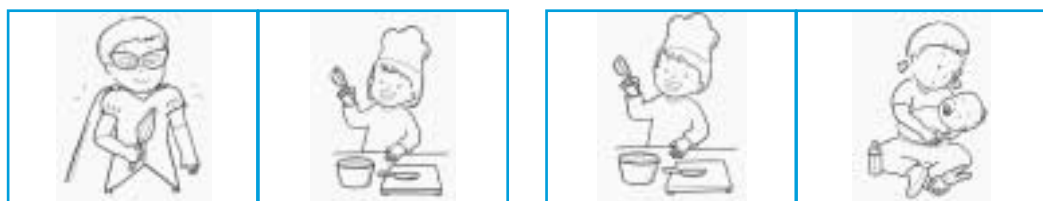
-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재를 소개한다.
-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교사의 설명에 따라 교재를 제작한다.
  - ① 그림 자료를 색칠하고 오린다.
  - ② 하드 보드지를 3cm x 6cm의 크기로 20장을 잘라 도미노 카드를 만든다.
  - ③ 그림 자료를 카드에 붙인다.
  - ④ 투명시트지로 카드를 싼다.
  - ⑤ 게임 규칙 판을 만든다.
- 교재를 제작하면서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편견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역할을 나누어 활동방법대로 게임을 한다.
  - ① 도미노카드를 뒤집어 놓고 잘 섞는다.
  - ② 둘이서 같은 수만큼 나눠 갖는다.
  - ③ 순서를 정한다.
  - ④ 시작하는 카드를 가진 사람이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다.
  - ⑤ 같은 놀이 종류의 카드가 있으면 같은 그림 옆에 내려놓는다.
  - ⑥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 이긴다.
- 완성된 교재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할 때 활용방법과 상호작용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도미노 게임 놀이를 통하여 남녀가 모든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종사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도미노 게임 그림 자료〉







### 활동3 : 토론하기

## 생활 속의 편견들

워크숍에 참석한 부모들끼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편견의 의식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을 알아본다.

-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화 내용 중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나타내는 경험을 이야기 한다.
- 그림을 보여주며 ‘가정에서의 상황이라면 가족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토론 한다.



- 소개된 사례에서 편견의 의식이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 가족간,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서 고쳐야 할 점들과 수정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그룹은 토론을 이끌어 가야하므로 경험 있는 교사가 리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수업

유치원에서 수업이나 행사를 성편견이 없는 활동으로 계획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참여수업일 전부터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들에게 알려주어 양성평등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고 참여 프로그램 후에는 부모회나 토론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참여수업 사례 1

###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를 개최하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운동을 남자와 여자운동으로 나누기 보다는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성향, 체력, 선호도, 경험 등에 따라 잘 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양성평등의 개념을 전달 할 수 있는 운동회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운동 조사하기

- 운동회 개최를 알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운동회 때 하고 싶은 운동을 조사해 본다.  
(가정통신문 23: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운동 조사하기 참고)

#### 2. 조사해온 내용을 알아보고 분류하기

- 운동의 종류. 누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 (남·여 비율 연령별 비율 구분)
- 그 운동은 누가 더 잘 할까?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을까?

#### 3. 운동회를 위해 운동 종목을 결정하고 그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을 섭외하기

- 가정에서 운동능력이 뛰어난 가족들(이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고르게 한다)의 지원을 받아 운동회 자원인사로 초청한다.

#### 4. 운동회 날 자원인사로 참여하기

- 운동 종목의 도우미, 심판 등의 역할을 맡는다.

#### 5. 운동회 회상하기

- 즐거웠던 일을 사진이나 글로 기록하여 운동회 다음날의 수업활동으로 진행한다.



## 참여수업 사례 2

### 가족의 날: 우리 가족을 유치원에 초대해요

유치원행사의 일환으로 가족의 날을 진행할 때,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직업,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개념을 전달 할 수 있다.

#### 성역할의 편견이 없는 직업조사하기

유치원 학부모 중에 성역할의 구분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진 부모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행사에 자원인사로 초청한다. 자원인사로 참여한 부모들은 직업과 관계된 여러 놀이를 코너로 만들 수 있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자원인사가 참여한 놀이 영역의 활동사례

- 목공놀이영역 : 건축설계사 엄마, 아빠와 벤치 만들기
- 운동놀이영역 : 체조선수 엄마, 축구선수 아빠와 운동하기
- 역할놀이영역 : 의사부모와 병원놀이하기, 미용사 엄마, 아빠와 머리 손질하기
- 조형놀이영역 : 조각가 엄마, 아빠와 공룡 만들기

#### 실·내외 여러 흥미영역 놀이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 요리영역 : 핫케익과 샌드위치 만들기, 딸기주스 만들기
- 컴퓨터영역 : 컴퓨터 게임하기
- 쌓기놀이영역 : 우리집 구성하기, 찾길놀이
- 역할놀이영역 : 아기보기 놀이
- 바깥놀이 : 농구놀이 (두 가족이 모두 참여하여 경기하기)



### 프로그램 진행의 예

2:00 ~ 2:10	가족과 함께 등원하여 이름표 달기
2:10 ~ 2:30	유치원 시설 돌아보기(자녀의 안내를 받는다)
2:30 ~ 3:30	가족이 함께 준비된 실내·외 활동에 참여하기
3:30 ~ 4:00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활동에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다른 가족과 인사나누기)
4:00 ~ 6:00	가족과 함께 양성평등 관련 영화보기(부록참조)
6:00	귀가하기

### 후속활동

- 가족의 날이 끝난 뒤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갖는 후속활동을 한다.
  - 부모님과 e-mail 주고받기: 행사에 참여한 느낌과 소감을 주고받는다.
  - 사진보고 이야기나누기: 모든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편견없는 직업, 함께 할 수 있는 집안일과 놀이 등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 가족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난 후 학부모들의 참여소감, 양성평등 개념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유치원에서는 행사 전에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부모의 도움과 참여를 권유한다. 특히 자원인사의 도움은 2~3주 전에 결정해야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할 경우 양성평등의 개념을 담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다(미용사 아빠의 머리 손질하는 모습, 조각가 부부가 함께 공룡 만들기를 돕는 모습,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 엄마가 농구 하는 모습, 엄마가 목공일 하는 모습 등)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장과 교사는 지금까지의 남·여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고르게 가져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취향에 따라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과 가족이 함께 하는 돕고 사랑하는 것 등 부모들이 양성평등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Ⅲ. 양성평등을 위한 교사교육 자료

### 교사를 위한 Q & A

1.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190
2. 양성평등?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길 해야 하죠?  
지금은 호주제도 폐지되는 시대인데요. .... 191
3.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은 이미 실현된 것 아닌가요? ..... 192
4.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 194
5. 유치원은 별도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성에 의한 불평등이 일어나는 교육적 환경이 전혀 없거든요. .... 195
6. 유아기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 196
7. 유치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열심히 해도 가정과 사회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197
8. 저는 철저하게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닌 교사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성 불평등을 초래할만한 교육적 경험을 준 적이 없어요. .... 198
9. 반편견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 199
10. 유치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 200

## 교사를 위한 활동

활동 1 :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해보세요	201
활동 2 : 양성평등놀이, 지도할 수 있어요	203
활동 3 : 우리 교실은 어떨까요?	205
활동 4 : 색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지 않나요?	206
활동 5 : 유치원에서의 교구, 적절한가요?	207
활동 6 : 양성 불평등을 경험했어요	209
활동 7 : 영화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211
활동 8 : 일상적인 삶에서 언어와 태도는?	213
활동 9 : 이럴 때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214
활동 10 : 남자답게? 여자답게?	215
활동 11 : 가장 정확한 표현은?	217
활동 12 :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화, 무엇이 문제일까요?	219
활동 13 : 올바른 직업호칭을 사용해요	224
활동 14 : 노래를 바꾸어 불러보세요	228
활동 15 :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9



### Question 1

##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양쪽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 남녀평등보다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남녀’가 ‘양성’으로 바뀌었을 뿐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남녀평등’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양성평등’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이지요. ‘남녀평등’은 용어 자체에 남, 녀의 성별 구분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단어를 조합할 때 습관적으로 ‘남성’을 ‘여성’의 앞에 두게 됩니다.

‘여남평등’하면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한 듯이 사용해 온 단어이니 그럴 수 밖에요. 그러나 너무나 익숙해진 것일 뿐,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우월주의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사소한 단어의 조합일 뿐이라구요? 네. 물론 그렇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부터가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용어 속에 내재해 있는 단어조합의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양성’이란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이란 양쪽의 성(性)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의 학자들은 ‘양성평등’을 ‘남녀평등’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용어 속에 내재해 있는 작은 불평등을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시작이 아닐까요?



## Question 2

**양성평등?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기길 해야 하죠?**  
**지금은 호주제도 폐지되는 시대인데요.**



.....  
법과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불평등의 요소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됐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완전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산적해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취업여성이 늘어났고, 여성 국회의원도 많아졌으며, 여성부라는 행정부처가 생겼고, 심지어 가부장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주제가 폐지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오늘날의 현실, 그런데 주위를 한 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은 진실로 양성평등한가요?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아의 성별을 궁금해 하고, 일하는 여성들은 직장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불평등의 요소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완전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산적해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 팽배한 성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성역할 기대는 남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굴레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해 실현 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남성, 여성 모두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3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은 이미 실현된 것 아닌가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으니 이제는 양성평등한 교육이라고. 물론 과거에 여성의 교육기회가 아예 박탈당했던 것에 비해 많이 평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적인 기회 균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뿐만 아니라,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열려있는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 차원이고, 학교에 가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의 결과가 동등할 수 있게 조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설명해볼까요?

예를 들면, 현재 유치원에서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모든 영역의 놀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전히 역할 놀이 영역에는 많은 여아들이, 쌓기 놀이 영역에는 많은 남아들이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불평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조건이 공평하게 조성되며,  
따라서 결과가 동등한 그러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에 오기 이전에 유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역할 개념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형제·자매에 의해서,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유아는 남아가 좋아하는 놀이, 여아가 좋아하는 놀이로 이미 놀이의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으므로, 놀이에의 접근 기회가 공평하다해도 조건이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주어져 있는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교사가 일정 기간동안 의도적으로 여아들의 쌓기 놀이와 남아들의 역할 놀이를 격려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조건을 동등하게 만든다면 양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 여아들의 쌓기 놀이와 남아들의 역할 놀이가 동등하게 이루어져 놀이 선호에서의 성차가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즉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교사의 격려’나 ‘교사의 지시’에 의해 남아와 여아가 각각 역할 놀이, 쌓기 놀이를 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교사의 개입 없이 유아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모든 놀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라 놀이를 통한 발달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조건이 공평하게 조성되며, 따라서 결과가 동등한 그러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Question 4

###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앞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제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함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교사의 개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교사의 개입은 성(性)을 고려  
하는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성을 고려하는 교육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차가 나타나는 교육양상에 있어 ‘교사의 격려’, ‘교사의 지시’ 등의 방법을 통해 성차를 줄이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양상에 있어서는 성별구분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성(性)과 관련된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즉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에 따른 교육을 다양하게 조절해 나아가는 다면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 Question 5

**유치원은 별도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성불평등이 일어나는 교육적 환경이 전혀 없거든요.**



유치원의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수활동, 교수매체에서 성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주변의 교육환경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불평등을 찾아내어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적 불평등에 관심이 모아지지만 신기하게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들은 유치원 교육이 수많은 성차를 야기하고, 따라서 성별에 따른 성역할 개념을 학습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부터 성적으로 차별화된 관념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셈이지요. 이외에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의 운영, 교사의 교수활동, 유아가 접하는 다양한 교수매체에 있어서, 성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선생님 반의 교실을 한 번 둘러보세요.

아빠는 당연한 듯이 회사에 가고, 엄마는 당연한 듯이 부엌에서 일하는 내용의 그림책이 도서영역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역할극을 할 때, 호랑이는 당연히 남아가 말고, 토끼는 당연히 여아가 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동화를 들려줄 때, 예쁜 공주와 씩씩한 왕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아빠곰은 똥똥해, 엄마곰은 날씬해”라는 노래를 왜 아빠는 똥똥하게 묘사되고, 엄마는 날씬하게 묘사되는지에 대해 한번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아들과 함께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변의 교육환경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불평등을 찾아내어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Question 6

**유아기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가 지나서 시작되면 이미 늦습니다.

너무 단호한가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조기교육 열풍처럼 무엇이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한 주장이 아닙니다.

.....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아기의 양성평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의 초기단계인 유아기가 성역할 개념 형성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의 양성평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의 초기 단계인 유아기가 성역할 개념 형성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사회적 기대에 의해 성역할을 요구받게 되고, 약 2세경부터 성별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7세경에 이르면 거의 성역할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기가 지나면 이미 형성된 성역할 개념이 더욱 고정화되고 강화되는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기기 전인 유아기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Question 7

**유치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열심히 해도 가정과 사회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맞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가정은 성역할 개념 형성에 있어 1차 근원지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도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너무 패배적인 생각 아닐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듯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교육대상은 유아만이 아니라 유아의 부모님, 유아가 속한 사회의 다양한 환경들이 모두 양성평등교육의 폭넓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 Question 8

**저는 철저하게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닌 교사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성 불평등을 초래할만한 교육적 경  
험을 준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니셨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양성평등한 사고방식을 지녔다’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및 태도에 있어 오랜 습관에 의해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성평등한 사고방식을 가진 교사에게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및 태도에 있어 오랜 습관에 의해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의 교육 과정에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에서는 교사 스스로 주의깊게 배려하여 양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유아에게 가정통신문을 건네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께 갖다드리렴”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요? 이처럼 별다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한마디 말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는 사람은 항상 엄마’ 라는 성역할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의 첫 출발점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얼마나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녔는지, 또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녔을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행동이나 태도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반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 Question 9

**반편견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

반편견 교육은 다양한 요인의 편견에 대응하는 교육이고, 양성평등교육은 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심도 깊은 교육입니다.

반편견 교육은 인종, 문화, 성, 장애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폭넓은 범위를 지녔다면 양성평등교육은 그 중 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반편견 교육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이고 양성평등교육은 범위를 좁혀서 성(性)에 있어 더욱 심도 깊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나아가 편견에 대응하여 다양한 적응력과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하는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Question 10

### 유치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앞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교사 스스로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녔는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교육환경에 있어 성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를 방지하거나 때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 개입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 매체를 활용함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부모, 지역사회와의 탄탄한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 스스로 양성평등한 의식을 지녔는지 반성해보고, 이후 교육환경이나 활동 속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관찰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나아가 부모와 지역사회간의 탄탄한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물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유아들이 살아갈 양성평등한 사회의 미래가 선생님의 두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활동 1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해보세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남녀 유아들의 놀이 선호도를 관찰해 보세요.

혹시 쌓기놀이 영역에서 남아들만 놀이를 하거나 역할놀이 영역에서 여아들만 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남녀 모두 다양한 놀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아들이 성별에 따라 특정놀이만 하고 있나요?

- 여아들이 많이 하는 놀이는? \_\_\_\_\_
- 여아들이 놀지 않는 영역은? \_\_\_\_\_
- 남아들이 많이 하는 놀이는? \_\_\_\_\_
- 남아들이 놀지 않는 영역은? \_\_\_\_\_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유아 스스로가 남자놀이, 여자놀이를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다. ( )
- 유아들이 각 영역활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 놀이에 흥미가 없다. ( )
- 특정 영역에 남아/여아들만 독점하고 있어 놀이 개입이 어렵다. ( )
- 특정 유아가 다른 성의 유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
- 기타 ( )

위의 내용은 유아들이 성별에 따라 특정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를 유아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혹시 교사가 구성한 영역구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고, 동료 교사들과 토의해보세요.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환경구성 시 역할놀이 영역에는 1년 내내 부엌 소품들을 배치하고, 쌓기 놀이 영역에는 공룡, 동물 등의 소품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흥미영역에 사진을 전시할 때 활동적인 여아의 사진보다는 정적인 여아의 사진을 전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놀이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 알아봅시다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은 유아의 성 역할 개념에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기회조차 불평등하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성 역할 고정적인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무감각하게 지나치기보다는 작은 요소 하나일지라도 양성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노력 및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 활동 2

## 양성평등놀이, 지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여아는 정적인 놀이나 소꿉놀이 등을 좋아하고, 남아는 동적인 놀이, 특히 블록놀이나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성별에 따라 특정놀이를 좋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토의해 보세요.

여아들이 차지한 역할놀이 영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20분 쯤 주변을 빙빙 도는 영준이, 역할영역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여아들에게 거절당했다. 영준이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가끔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배달원이나 집에 놀러온 손님 혹은 강아지 역할이 전부이다.

교사가 개입하려고 하지만 “남자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여아들...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권력이나 일시적인 설득이 아니라 유아들의 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료교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 알아봅시다

여아에게는 소꿉놀이, 색종이 접기 등 주로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권하고 남아에게는 주로 움직임이 많은 놀이, 행동이 큰 활동과 운동, 기구나 도구 사용 놀이 등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생물학적인 이유에서만 찾으려고 한 결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성(sex)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에서 생물학적인 성이 갖는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사는 평등한 의식을 습득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치원 생활에서 평등한 삶의 모범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활동 3 우리 교실은 어떨까요?

유치원 교실은 보통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구석구석에서 예쁜 모습으로만 꾸며진 곳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개선해 봅시다.

나의 교실은...	예	아니오
교실 내 환경판이 주제에 적합하기보다는 예쁘게만 꾸며져 있다.		
교실 내에 있는 모빌이 유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사가 예쁘게만 만든 것이다.		
개인 사물함과 신발장의 이름과 안내가 예쁘기만 하고 사물함과 신발장의 안내가 정확하지 못하다.		
유치원 현관에 부모게시판이나 행사 일정 등이 없고 예쁘게만 꾸며져 있다.		
교사실의 안내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여자그림만 그려져 있다		
주방과 식당의 안내 그림이 적절치 않고 관계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복도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예쁘게만 꾸며져 있고 남, 녀 어른들이 아이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진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의 안내와 사용법이 정확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은 빨강 치마 입은 여자그림만, 남자 화장실은 파란 바지 입은 남자 그림만 그려져 있다.		
교실의 창문에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로 채워져 있다.		
교실 내 흥미영역에 양성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역할놀이 영역에는 여아를, 쌓기놀이 영역에는 남아의 사진이 전시되어한다.		

#### 알아봅시다

21세기는 물리적인 능력보다 정보처리 및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능력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예쁘게 꾸며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환경을 통해 유아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남과 다르게 사고를 하는 창의력을 길러주며 어떤 일을 기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 활동 4 색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지 않나요?

색은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 상징이나 기호,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제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파란색은 남자 색, 분홍색은 여자 색이라는 고정관념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색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재·교구나 특정 어휘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유아들에게 제시하는 교재·교구 또는 전시물에 색의 편견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체크해 봅시다.

특정색의 사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없다
놀잇감		
언어영역의 책		
그림자료		
교수활동자료		
사진/게시물		
인형 옷		
역할놀이용 옷		

#### 알아봅시다

우연히 분홍색을 자주 사용하는 여아 또는 파란색을 자주 사용하는 남아가 무조건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분홍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색에 대한 편견을 지도합니다. 하지만 환경구성 시 유아들의 조형작품을 전시할 때나 이름표를 만들어 줄 때 자신도 모르게 남아와 여아의 색을 구별하여 사용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시다.



## 활동 5 유치원에서의 교구, 적절하나요?

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교구 및 그림 자료도 많은 부분이 양성 불평등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활동의 다수가 다양한 그림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 조작놀이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 출처: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5: 건강한 몸과 마음, p.98, 교육부.

게임판에서 여아는 조용히 앉아서 퍼즐이나 조형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아의 대다수가 다쳐서 넘어지고 블록을 던지거나 거북이를 만지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알아봅시다

남녀 누구나 완전히 강하거나, 약한 또는 수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사람이란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하거나 활발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에 따라 강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 또 약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조형영역의 활동 <우리 동네 고무 판화>



♣ 출처: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3: 가족과 이웃, p.86, 교육부.

경찰관, 의사, 집배원은 남성으로, 간호사, 장을 보는 사람, 은행원은 여성의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어 직업에서의 양성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 알아봅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만 또는 남성에게만 적합한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은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활동 6

## 양성 불평등을 경험했어요

주변에서 양성(불)평등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었는지 반성적 글쓰기를 해보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나의 경험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유치원에 면접을 보러 간 일이 있었다.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내가 만약 이 유치원에 교사가 된다면 그동안 열심히 배운 지식을 기초로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유치원에 도착하여 원장님을 만났다.

인사를 드린 후 원장님은 질문을 하셨다. ‘\_ \_ 대학을 졸업했나요? 선생님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면접이 진행되었다. 다음 질문으로 원장님은 갑자기 ‘남자 친구는 있나요? 키와 몸무게는 얼마인가요? 옷을 좀 예쁘게 입어야 할텐데, 귀걸이도 좀 하고, 성격은 어떤가요? 나는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여자다운 사람이 좋은데... 요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예쁘고 날씬한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순간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유치원교사를 선발하는 것인지 모델을 선발하는 것인지... 다른 직업에서 면접을 할 때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지, 유치원 교사 면접을 처음 해보는 나는 혼돈스러웠다.

## 어떤 불평등인가요?



그러한 불평등을 인식하고 대응하셨나요?

다시 그런 상황(원장 또는 교사)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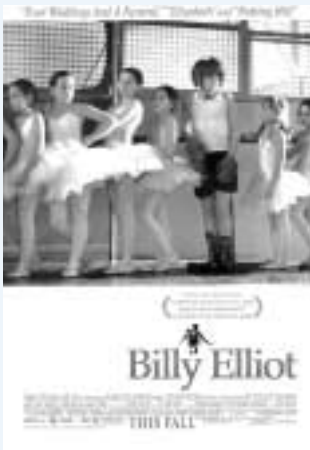
유치원 교사의 90%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치원 교사에 대해 부모나 원장이 갖는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예쁘고 다소곳하고 안전한' 교사이고 그러한 교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의 90%이상이 여성이라고 하여 유치원 교사에게 여자다운, 여성스러운 모습만을 기대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성보다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여성스러움만 강조하기보다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 활동 7 영화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양성평등의 주제를 다룬 영화를 같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빌리 엘리어트



#### ▶ 줄거리

#### -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에 관한 이야기

영국의 한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형을 둔 빌리는 발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년이다. 아버지와 형은 탄광촌에서 시위에 열성이고 할머니는 치매증세가 심하다. 아직은 어리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빌리, 하지만 어느 날 엄마의 손끝이 베어 있는 피아노마저 땔감으로 사라져가고..

빌리의 가정에 사랑의 온기는 점점 식어간다. 어느 날 권투 연습을 하던 빌리는 체육관 한 모퉁이에서 실시되는 발레수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고, 그 수업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악에 순식간에 매료된다.

이 수업의 선생님이 월킨 부인의 권유로 간단한 레슨을 받게 된 빌리는 점점 발레에 매력을 느끼게 되나 아버지와 형의 단호한 반대로 발레 레슨이 중단된다. 힘든 노동과 시위로 살아온 아버지와 형은 남자가 발레를 한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발레솜씨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빌리는 성탄절, 텅빈 체육관에서 혼자서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빌리의 진지한 몸짓에서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빌리가 발레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남자답게 키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도 빌리의 재능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헌신으로 빌리는 유명한 발레리노가 된다. 발레복을 입고 힘차게 도약하는 빌리의 모습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지켜보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아버지는 왜 빌리가 발레 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나요?
-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왜 발레를 하고 싶어 했습니까?
- 결국 아버지는 빌리를 지지하게 되고 빌리가 훌륭한 발레리노가 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남자 유아(또는 선생님의 아들)가 발레리노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알아봅시다

진로, 학업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성별에 따라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영화 외에 슈팅 라이크 벅, 워터 보이즈, 모나리자 스마일, 물란 등의 영화를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활동 8

## 일상적인 삶에서 언어와 태도는?

일상적인 삶에서 양성 불평등한 언어와 태도를 무심코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사들 중에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머리가 짧으면 남자친구 또는 남편에게 혼나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하려면 남자 친구 또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자신의 머리모양이나 머리를 손질하는 것도 남성의 취향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모양을 바꿀 때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머리모양을 바꿀 때 자신의 의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보고 다른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알아봅시다

사람은 살면서 때에 따라 주도적이기도 하고, 멈추어 서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남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질, 성격, 그때 그때의 상황,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물론 사회(인간관계)로부터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다른 대접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개인의 행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활동 9 이럴 때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유치원에서 교사들도 무심코 성역할 불평등을 반영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찾아보고 양성 평등을 반영하는 용어로 바꾸어봅시다.

아빠 다리 해보자. 엄마처럼 예쁘게 앉아보자.  
아빠 꿈은 똥똥해. 엄마 꿈은 날씬해  
일요일은 아빠가 쉬는 날.  
아빠처럼 씩씩하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알아봅시다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아빠(남성)처럼 씩씩하게, 엄마(여성)처럼 예쁘게’라는 식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무심코 사용한 말은 유아에게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줍니다. 남·여가 타고난 개성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목적입니다.



활동 10

남자답게? 여자답게?

흔히 남성은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늠름하고 자유분방한 것으로 묘사되며 여성은 아름답고 착하고 귀엽고 다소곳하고 수줍은 이미지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유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지요?

유아들에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특정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바르게 고쳐봅시다.

- 힘센 남자 친구들이 의자를 올려줄래? 책상을 닦는 것은 여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

\_\_\_\_\_

- 지영이는 어쩔 그렇게 얌전하고 예쁘니? 남자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_\_\_\_\_

- 남자는 이런 일로 우는 게 아니야.

\_\_\_\_\_

-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_\_\_\_\_

- 우리 반 여자친구들은 공주같이 예쁘고 남자 친구들은 모두 왕자같이 늠름하구나.

\_\_\_\_\_

- 여자친구가 울면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거예요.

\_\_\_\_\_



### 알아봅시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성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 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교사의 언어와 태도는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개인차, 인간존재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고정관념에 맞추고 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심한 갈등과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요하거나 재생산하지 말아야하며 성 중립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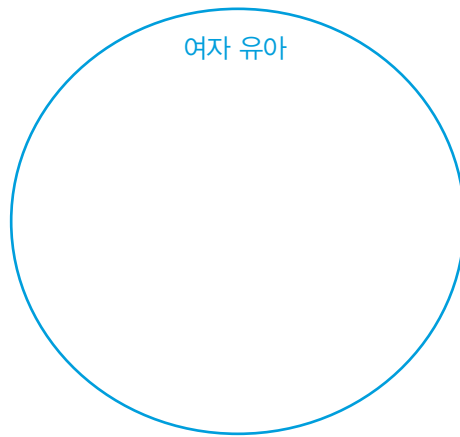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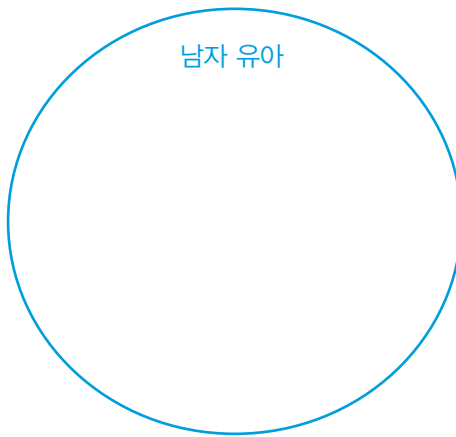




활동 11 가장 정확한 표현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보고 여자유아와 남자유아에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느끼는 것을 아래 칸에 써 보세요.

자신있는	기쁜	지적인	수동적인
야심있는	부드러운	헛된	독립적인
보호하는	감정적인	강한	용감한
책임있는	약한	매력적인	강인한
겁많은	유능한	공격적인	인정있는



왜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유치원에서도 여아에게는 ‘수동적인, 부드러운, 약한’ 등의 단어를 남아에게는 ‘자신있는, 야심있는, 독립적인’ 등의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 알아봅시다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신의 행동 및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여자는 “-해야 한다” 남자는 “-해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사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의 기질은 본래적인 차이보다는 사회구조가 강조하는 기질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활동 12

##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화, 무엇이 문제일까요?

## 동화 -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곳에 집 한 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희네가 그 집으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희네는 너무 외롭고 심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네 집 옆에는 다른 집들이 하나, 둘, 셋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이사 와서 영희네는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영희네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야채가 모자랐어요. 영희네 동네에는 시장이 없어서 다른 마을까지 가서 사 와야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야채를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영희 엄마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곳에서 사고 싶어했어요. (이하 내용 생략)

♣ 출처: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1998). 5세 주제접근 통합교육과정, p.354, 양서원.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3: 가족과 이웃, p.95, 교육부.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영희네 엄마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화에서 여성(엄마, 할머니)은 식사준비가 주요 업무입니다. 식사준비와 같은 가사 일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아이들에게 ‘식사준비는 여성의





뭣'이라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을 전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기질을 인정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화 - 할머니 생신 날

오늘은 할머니의 60번째 되는 생신날이에요.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래요.  
그래서 어제부터 엄마와 작은엄마, 고모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아빠와 삼촌도 거드셨죠. 그리고 나는 아주 즐거웠어요.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할머니 생신날 아침, 아침부터 나와 아빠, 삼촌, 누나는 집 안 청소를 했어요. 손님들이 오신대요. 신문과 책, 놀잇감을 가지런히 놓았지요. 화분도 닦았어요. 그리고 소파는 벽 쪽으로 밀어 놓았어요. 마루에 큰 상을 펴 놓아야 한대요.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에 사시는 고모, 그리고 이름이 △△인 사촌 형,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할머니의 오빠도 오셨어요.  
히히히, 참 우습죠, 할머니께 오빠가 계시다니...  
우리들은 모두 할머니께 절을 하했어요. 선물도 드렸지요.  
드디어 엄마, 작은엄마, 삼촌, 고모들이 쟁반 가득 음식을 담아 큰 상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잡채, 갈비, 송편, 빈대떡, 김, 오징어... 모두모두 차려 놓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 출처: 이화여대 부속유치원(1995). 4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나와 가족. 교문사.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3: 가족과 이웃, p.169, 교육부.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음식 준비의 주 담당자는 여성(엄마, 작은엄마, 고모)이며, 남성은 ‘거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일은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동화 - 이렇게 인사해요

영이는 “아이, 잘 잤다.” 하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루에 나와 보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영이처럼 너희들도 따라해 볼까?  
 할아버지께서는 “오냐, 영이 너도 잘 잤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영이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도 도울게요.” 너희들도 따라해 보자.  
 엄마는 “우리 영이도 잘 잤니? 상에 숟가락을 놓아 주겠니?” 하고 부탁하셨어요.  
 영이는 식구들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 드세요.”  
 따라 해 보자. “아빠, 진지 드세요.” 따라 해 보자. “언니, 밥 먹어.” 따라 해 보자.  
 밥을 다 먹고 나서 영이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영이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이야, 아빠 회사에 가신다.” 엄마가 말씀하셔서 영이는 얼른 현관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빠께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드렸어요.  
 출근하시는 아빠께 너희들도 인사해 보자.  
 영이도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께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너희들도 인사해 보자.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이는 집안 어른들께 어떻게 인사드렸을까요?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어요. 영이는 아빠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따라 해 보자.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어요. 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따라 해 보자.  
 엄마, 아빠께는 어떻게 인사를 드렸을까?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 출처: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3: 가족과 이웃, p.157, 교육부.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엄마는 밥상을 차리고 있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아버지는 회사에 가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은 신문을 보거나 출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 역시 여성은 가사 일을 전담하고 남성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양성 불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심어줍니다.

#### 동화 - 여행을 떠나서

정욱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욱이는 여행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장난감 자동차, 수영복, 동화책, 그림을 그릴 색연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엄마도 오랫동안 집을 비우기 때문에 화분에 물도 주고 냉장고에 음식물도 정리하며, 여행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아빠는 무얼 하고 계실까요?

자동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공구들을 꺼내어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정욱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점검하시나 봐요. 아빠는 자동차 안의 여러 가지 물건들도 확인하고 유리창과 옆거울까지 깨끗이 닦으셨어요.



자, 이제 출발입니다. 부릉부릉……. 차가 출발합니다. 정욱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 의자 위로 올라가 깡충깡충 뛰다가 그만 머리를 쿵 찡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정욱이는 심심해서 “음악을 틀어 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 음악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더 크게, 더 크게요.”라고 소리칩니다. 음악 소리가 아주 커져서 정욱이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 몸을 흔들며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차 뒤에서 큰 트럭이 앞으로 불쑥 나오며 경적을 심하게 울리는 겁니다. 아빠, 엄마, 정욱이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경적을 울렸는데 아빠께서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아빠, 음악 소리를 줄여 주세요.” 정욱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욱이네 가족은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달리지도 않고 급하게 멈추지도 않으면서 엄마와 정욱이가 차안에서 편안하도록 운전을 하십니다.(이하 생략)

♣ 출처: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8: 교통기관, p.200, 교육부.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여행을 갈 때 엄마(여성)는 가정의 일을 보살피고(화분, 냉장고정리) 아버지(남성)는 자동차와 공구들을 살펴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욱이와 엄마를 위해 혼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이나 공구를 챙기며 운전을 하는 일은 남성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역시 가정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형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활동 13

## 올바른 직업호칭을 사용해요

유아들에게 직업을 설명하면서 직업에 아저씨, 언니, 아주머니 등의 호칭을 붙임으로써 특정직업을 남자직업 또는 여자직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아래의 직업에 맞는 올바른 직업호칭을 생각해 보세요.

- 경찰관아저씨, 남자경찰관   ⇒ \_\_\_\_\_
- 소방관아저씨, 남자소방관   ⇒ \_\_\_\_\_
- 간호사언니, 남자간호사   ⇒ \_\_\_\_\_
- 미용사언니, 미용사아줌마   ⇒ \_\_\_\_\_
- 농부아저씨, 농부아주머니   ⇒ \_\_\_\_\_
- 정비사아저씨, 여자정비사   ⇒ \_\_\_\_\_
- 기사아저씨, 버스기사아저씨   ⇒ \_\_\_\_\_

### 알아봅시다

직업 호칭을 사용할 때에는 아저씨, 언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직업 앞 에 여자, 남자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여성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에서의 양성 불평등의 다른 예도 찾아봅시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화에 바르지 못한 직업 호칭들이 있습니다.

### 고마우신 분들

나영이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참 좋아요.  
배 아플 때 찾아가면 되니까.  
집배원 아저씨가 계셔서 참 좋아요.  
편지랑 엽서랑 전해 주니까.  
소방원 아저씨가 계셔서 참 좋아요.  
불이 나면 얼른 와서 도와주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의사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어로 쓰고, 집배원과 소방원을 아저씨라는 단어로 쓴 것은 의사가 집배원이나 소방원 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과 소방원을 아저씨로 표현한 것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직업에서도 성 역할 불평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 집배원, 소방원이라고 쓰도록 유도하여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 우리 반 선생님

민경혜

우리 반 선생님은 척척박사입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면 전부 알아요.  
우리 반 선생님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 동네 영식이도 꼼작 못 해요.  
우리 반 선생님은 요술쟁이입니다.  
내 마음 속까지 다 본대요.  
우리반 선생님은 천사입니다.  
내가 울 때 엄마처럼 안아 주세요.  
우리 반 선생님은 공주입니다.  
빨리 커서 왕자되어 결혼할래요.

♣ 출처: 특별한 이야기 친구 제 5집(1993). p.23, 세세대육영화.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11: 특별한 날들, p.73, 교육부.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으나 선생님을 ‘엄마처럼’, ‘공주’ 라고 표현함으로써 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선생님의 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 위의 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선생님이 있는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불러 일을 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엄마처럼, 공주라



는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대신 ‘내가 올 때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로 바꾸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을 공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 선생님은 과학자랍니다. 빨리 커서 같이 탐구하고 싶어요’로 바꾸는 것이 양성 평등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 구멍가게

골목 모퉁이 구멍가게 바빠요 바빠요  
두부 한 모에 양파도 한 개  
초콜릿 한 개에 과자도 한 봉

저녁때면 주인아저씨 방글방글  
콩나물 배추 파도 한 단  
아이들도 엄마도 같이 손님

♣ 출처: 이화여대 부속 유치원(1995). 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지역사회. 교문사.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3: 가족과 이웃, p.124, 교육부.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알아봅시다

위의 동시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저씨(남성)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엄마(여성)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를 자주 듣게 되면 남성은 주도적인 역할(상인)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손님)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국한하지 않는 것이 양성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14

## 노래를 바꾸어 불러보세요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에 가정에서의 불평등한 성 역할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노랫말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절하게 바꾸어 봅시다.

어떤 노래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유치원에서 주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 출처: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10: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p.81. 교육부.

###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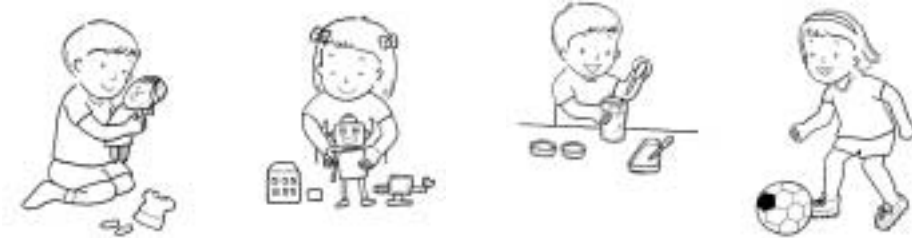
남성(도련님)에게는 “멋진”, 여성(아가씨)에게는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은 예쁘고 남성은 멋지다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아(인정있는)도련님, 와-아(자신있는) 아가씨로 바뀌면 어떨까요?



### 활동 15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사례를 읽고 학부모 면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적어보고, 동료 교사들과 토론해 보세요.

- 왜 우리 아이는 여자인데도 유치원에서 남자 아이들 하고만 놀이를 할까요?
- 우리 아이(여아)가 태권도에 다니게 해달라고 졸라요. 전 정말 싫거든요.
- 우리 아이는 여자인데도 치마를 입으려 하지도 않아요.
- 선생님 아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핀이나 머리띠는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 우리 아이(남아)는 다른 애처럼 블록 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인형 같은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 여자답게 키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인가 봐요.





### 알아봅시다

아들에게는 강하고, 책임감 있고, 용감해야하며, 적극적이고, 자립적이고, 활달하지만 묵직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기대합니다. 권장하는 놀이는 주로 움직임이 많은 놀이, 행동이 큰 활동과 운동, 기구나 도구 사용 놀이 등을 추천하십니까? 옷을 고를 때에도 활동하기에 편리한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반면 딸에게는 다소곳하고, 수줍으며, 세심하고, 곱고, 안전하고, 의존적이며, 예뻐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여아들에게 추천하는 놀이란 소꿉놀이, 색종이 접기, 색칠하기 등 주로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입니까? 여아들을 위한 옷을 고를 때에도 활동하기 편리한 옷보다는 예쁘고 고운 옷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딸은 예쁘게 커야한다, 아들은 씩씩하게 커야한다는 차별적인 생각보다는 딸과 아들 모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련자료 및 사이트

### ▶▷ 유아용 동화

- 김미영(2000). 가시고기 아빠의 아기 사랑. 서울: 아이누리.
- 로버트 민치(1998). 종이봉지공주. 김태희(역). 서울: 비룡소.
- 마가렛 새넌(2003). 빨간 늑대. 서울: 배틀북.
- 마가렛 와일드(2002). 닉 아저씨의 뜨개질. 서울: 중앙출판사.
- 샤롯데 줄로투(1999). 윌리엄의 인형. 이은화(역). 서울: 다음세대.
- 새너 코리(2003).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서울: 아이세움.
- 새세대육영회(1997). 우리 아빠는요. 서울: 사단법인 새세대 육영회.
- 새세대육영회(2000). 엄마는 비행사. 서울: 사단법인 새세대 육영회.
- 수 케시러(2003).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서울: 거인.
- 쓰찌다 요시하루(2001). 엄마를 위해 아빠와 함께. 오석균(역). 서울: 계림북스쿨
- 야마모토 쇼조(2001). 이사 가는 날. 서울: 크레용 하우스.
- 앤서니 브라운(2001). 돼지책. 허은미(역). 서울: 웅진닷컴.
- 존버닝햄(1996). 장바구니. 김원석(역). 서울: 보림.

### ▶▷ 부모용 도서

- 강주현(2003). 나는 여성보다 여자가 좋다. 서울: 황소걸음.
- 김선호, 김정한 (1995). 평등부부 만들기. 서울: 사계절 출판사.
- 데이브 맥킨(2002). 금붕어 2마리와 아빠를 바꾼 날. 윤진(역). 서울: 소금창고.
- 돈 엘리엄, 젠느 엘리엄(2000). 아들, 강하고 부드럽게 키워라. 손덕수(역). 서울: 글 읽는 세상.
- 미하엘 솅하우스(2004). 엄마는 힘이 세다. 선우미정(역). 서울: 들녘.
- 바바라 위크(2002). 흑설공주 이야기. 박혜란(역). 서울: 뜨인돌.
- 변재란(2000). 반쪽이네. 서울: 한겨레신문사.
- 사이토사토루(2001).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이규은(역). 서울: 종문화사.
- 수잔 길버트(2002). 반쪽짜리 육아는 버려라. 양은모(역). 서울: 명진.
- 심영희(2002). 함께 이루는 남여평등. 서울: 나남.
- 알리 러셀 흑실드(2001).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백영미(역). 서울: 아침이슬.



- 우렌 페럴(2002). 남자만세. 손희승(역). 서울: 예담.
- 엘런 피즈(2000).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종인(역). 서울: 가야넷.
- 엘리자베스 하트리 브루어(2003). 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100가지 방법. 김은경(역). 서울: 오상.
- 엘리자베스 하트리 브루어(2003). 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100가지 방법. 김은경(역). 서울: 오상.
- 여성을 위한 모임(1994). 일곱가지 남성의 콤플렉스. 서울: 현암사.
- 이강옥(2000). 젖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 서울: 돌베개.
- 이규태(2002).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잘 된다. 서울: 신원.
- 이병철(2001). 참 아름다운 도전. 서울: 명상.
- 이해명(2001).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 서울: 동아일보사.
- 제 1의 성(2000). 제 1의 성. 정명진(역). 서울: 생각의 나무.
- 존 그레이(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역). 서울: 친구.
- 최재천(2003).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서울: 궁리.
- 최정현(1992). 반쪽이의 육아일기. 서울: 여성신문사.
- 최정현(1999). 평등부부 반쪽이네의 가족일기. 서울: 주니어 김영사.

#### ▶ 인터넷 사이트

- 딸사랑 아버지 모임 <http://www.daughterlove.org>
- 부산 YMCA 좋은 아버지 모임 <http://myhome.naver.com/inepisode>
- 부모교육 종합센터 부모 카페 <http://www.bumocafe.net/index.asp>
-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http://www.kigepe.or.kr>
- 재단법인 서울여성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http://www.father.or.kr>
- 순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http://www.goodab.com>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서울 : 교육부.
- 강경희(1999). 전형적 비전형적 성역할 이야기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원(1999). 반편견 사고게임과 그림동화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숙(1986). 학습장면에서의 위계적 성역할 관계-서울시내 S동 새마을 유아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신(2003).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 · 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연구 -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희옥(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남정(2001). 아동의 성역할정체감과 남녀평등의식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김희진, 곽삼근, 김정원(2004). 생애주기별 남녀평등의식 교육의 기본 방향 연구 및 유아기 평등의식 프로그램 개발.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4-08.
- 성구진(1994). 반편견 그림동화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아(1995).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희정(2003).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한국과 미국 사회 교과서 비교.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아(1997). 동화와 그림 자료를 통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명순 · 권희경 · 조복희 · 한유미(1999). 비전형적 성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pp. 91-104.



- 왕석순(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2(3), pp. 77-91.
- 우민정(1995). 성역할 평등 개념에 기초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2000). 취학전 아동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0-10.
- 윤혜원(1990).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1981). 유아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 김현수 · 신화식(1985). 성별에 따른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 *청주사대 새마을 연구 논문집*, 4.
- 이재옥(1999). 유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사교육*, 16(2), pp. 217-237.
- 이지현(1984). 이야기 유형이 5, 6세 유아의 성역할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경(200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숙(1991). 어머니의 성역할 성격특성 및 가족환경 변인과 아동의 성특성 편견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2001). 지식 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과제-양성평등교육. *서울교육*, 43(3), pp. 12-16.
- 정해숙 · 양애경 · 김홍숙(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 · 학습과정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 조경원(1999).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29, pp. 3-17.
- 조경자(1988). 유치원 교사-아동 상호작용에서의 교사의 성차별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198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여성연구*, 16, pp. 112-140.



- 최영주(2001). 유치원내 남자 체육교사가 유아의 성역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민(1985).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아동양육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연애 · 정옥분(1993). 전형적 · 비전형적 성역할 VTR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14(1), pp. 39-57.
- 황지현(2002). 가정과 연계한 성평등 동화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not, A.(1985). Current Development in the Sociology of Women' s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6(1), pp. 123-130.
- Barnett, R. C.(1981). Parental sex-role attitudes and child-rearing values. *Sex-Roles*, 7, pp. 837-846.
- Brophy, J. E., & Good, T. L.(1970). Teachers' Communication of Differential Expectation for Children' s Classroom Performance: Some Behavioral Dat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5), pp. 365-374.
- Houston, B.(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pp. 359-369.
- Irvine, J. J.(1986). Teacher-Student Interaction: Effects of Student Race, Sex, and Grade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1), pp. 14-21.
- Langenbach, M.(1977). *Day care curriculum consideration*. Columbus, OH : Charles Merrill.
- Martin, J. R.(1994). Toward a New Concept of Career Development. In C. S. Pearson, D. L. Shavlik & J. G. Touchton(eds.), *Educating the majority*. New York : Macmillan.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엄정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혜선 (명지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주 (색동유치원 원장)

이춘자 (침례신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보조연구원

송 정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이효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 삽 화

김유림 (새세대육영회 부설유치원 원감)

## CD-ROM 디자인

우숙영

##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발 행 교육인적자원부 (02)2100-6375

인 쇄 (주)서울멀티넷 (02)2269-2288

---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